교 가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 내는 경남고교

慶南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 집 주 간 **김종명**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30호 - 2020년 8월 10일 발행**

총동창회관 역사적 개관…6만 동문 '원(願)' 풀었다

〈관련기사 2~15면〉

2020년 6월 20일 역사적인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자들이 회관 현관 앞에서 개관을 축하하는 단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8월 15일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

총동창회, 재경동창회와 합동편찬 추진…잠정 합의 단계
공동위원장 체제의 조직 구성·인선 제안서 재경에 보내

총동창회는 모교 80년사 편찬 사업을 재경동창회와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동창회는 편찬위원회 조직 구성과 인선 내용을 재경 측에 제시했다. 지난 7월말 양측은 오는 8월 15일 오후 3시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의 80년사 편찬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김도형(26회·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문 간에 이뤄진 것이다. 김 동문은 지난 7월 25일 낮 재경 측 편찬위원 8명과 함께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관련 기사 2면〉

총동창회는 80년사 편찬위원장을 재경동창회와 공동 체제로 운영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합동 발간 추진의 큰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총동창회가 제안한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편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고문, 재정위원을 두며, 공동위원장 산하에 자문위원회, 실무를 맡을 편집위원회, 경영지원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측면 지원 조직으로 협력기구가 있다. 편찬위원회는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20개월 운영된다.

한편 총동창회는 재경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종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편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15일로 예정한 편찬위원회 출범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총동창회가 제안한 편찬위원회 조직 인선 명단은 아래와 같다(괄호 안 숫자는 기수).

■편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찬(25) 서기석(26) ▲고문: 송두호(3) 정치근(4) 오영은(6) 배중현(7) 장혁표(8) 김경희(9) 정행권(9) 김문희(10) 안강태(11) 오완수(11) 문정수(12) 윤학근(12) 이경재(13) 이상택(13) 조규향(14) 구자신(14) 김경일(15) 오봉석(15) 천신일(15) 김판규(16) 송규정(16) 조길우(16) 김준연(17) 배재욱(17) 정량부(17) 정홍원(17) 김길제(18) 김길출(18) 이용흠(19) 임우근(19) 김형오(20) 구본홍(20) 박용덕(20) 강창수(21) 구본능(21) 박봉흠(21) 성상철(21) 이재호(21) 허창수(21) 전재호(21) 허범도(22) ▲재정위원: 유재진(22) 김영기(23) 김중광(23) 박홍규(24) 김진철(25) 백영호(28) 박성철(29) 김대욱(29) 윤성덕(30) 최우철(30) 박종호(31) 홍성수(31) 김법영(33) 박명진(33) 장인화(35) 박진용(36) 허부남(37) 권두성(38) 정재형(38) 박근태(39) 우영환(40) 탁정환(44) 정신(47)

〈기사 2면에 계속〉

총동창회관 개관 특집 발행
44면으로 증면… 화보 8~13면

동창회보 구독료 특집
납부 현황 18~28면 게재

알 림

동문들이여, 이제 동행의 날개를!

이번 제430호 동창회보는 44면 발행 특집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앞으로 동창회보 발송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초 발행될 제431호까지는 주소록이 파악되는 모든 동문에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보를 받지 못한 동문이 주변에 있으면 사무국(051-253-7788)으로 주소를 등록 시키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1월말까지 구독료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432호 동창회보부터 발송을 중지합니다. 회보 증면에 따른 제작비와 발송경비 증가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동창회 소식은 전달됩니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자부심이 더욱 충만한 동문회가 되도록 날개를 달고 다 함께 비상합시다.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깊은 양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구독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총동창회관 개관

새 지평 열린 날 함께한 용마들, 감격 또 감격

현판제막식·개관기념식·자축연 등 개최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는 지난 6월 20일 대망(待望)의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경남중고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개교 78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쾌거였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동문들은 감격에 겨워했고, 용마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한껏 도취해 상기된 모습이었다.〈개관식 상보 3면〉

이날 행사 개최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방문객은 오전 8시부터 삼삼오오 줄을 이었다. 조바심이 날 정도로 기대가 컸다는 말이다. 동문과 내빈을 포함, 이날 행사 참석자는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전공개 행사도 7차례나 있었다.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경남중고 동문의 염원 성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 강렬했다는 의미이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2시 총동창회관 현관 앞에서 막이 올랐다.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머릿돌 및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제막식, 회관 둘러보기, 공식 개관기념식, 자축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이날 개관기념식 인사말에서 "오늘은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날이다. 회관에 1,700여 동문의 혼이 녹아 있다. 1942년 개교하여 78년 만에 동창회관을 갖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난 역사를 깨고 무궁하게 발전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 힘을 모아 함께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방문객들은 공식 개관식 전후로 회관 내부를 둘러보고 각 층별 입주 및 배치 현황 등을 파악했다. 한결같이 "잘했다" "수고했다" "멋지다"는 감탄과 격려의 말이 쏟아졌다. 특히 1~6층 계단에 설치된 미니역사관을 마주하고선 북받쳐 오르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동문들도 많았다.

이날 총동창회관 방문 동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기부자 명패였다. 특히 5층 계단 복도에 설치된 일반기부자 명패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기수별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명패 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십시일반 갹출한 기금이 모여 오늘 이 같은 훌륭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표출이었다.

방문객들은 각 층마다 마련된 휴게장소에서 총동창회가 제공한 음식과 음료수를 들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방문객들은 총동창회가 마련한 기념선물(머그잔, 타월, 캘린더 등)을 받아갔다.

총동창회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 직전 참가자들이 운집해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2개의 80년사는 안 된다"에 화합주

모교 80년사 합동편찬 잠정 합의까지 전말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모교 80년사 편찬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기까지 곡절이 있었다. 경남중고는 이미 70년사, 60년사 편찬 불발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관련 자료의 유실 및 파손, 증언 가능 선배기수의 연로함 등을 고려할 때 80년사 편찬은 꼭 성사되어야 할 과제였다.

지난 2018년 8월말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개인 사무실에서 양 집행부가 80년사 공동발간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편찬위원 3명씩 선정키로 했다.

총동창회는 이후 두 차례의 자체 준비위원 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1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용마의 밤' 행사 직전 총동창회·재경동창회 집행부는 합동회의를 갖고 80년사 총괄편찬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2019년 4월 26일 자갈치 식당에서 열린 양측 집행부 합동회의에서 총동창회는 조직표 등 제안서를 전달하고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그 후 양측 간의 불협화음으로 80년사 편찬 논의는 중단되었다. 총동창회는 제안서에 대한 재경 측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차에 재경동창회는 지난 5월 22일 80년사 편찬주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재경동창회 회지 '용마'에 실렸다. 총동창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진의를 확인키로 했다. 지난 6월 22일자로 공문을 보내 합동편찬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기로 했다. 2주일 내 재경 측의 답신이 없을 경우 합동편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동창회 단독 편찬 의지를 전달했다. 모교사 편찬은 총동창회 고유의 권한이란 사실도 천명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7월 7일 총동창회는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80년사 단독 편찬을 결정지었다. 재경 측으로부터 회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흘 뒤 7월 10일 재경동창회는 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 임명과 현판식까지 마쳤다. 단독 편찬을 관철하면서 작업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급기야 지난 7월 24일에는 재경 측 실무진이 부산에 와서 자료수집에 나섰고, 다음날 편찬위원회 상견례를 겸한 부산회의를 총동창회 인근 호텔에서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 총동창회장은 재경 측 실무진을 7월 25일 낮 총동창회관으로 초대했다. '2개의 80년사는 막자'는 생각이었다. 회관 구경도 시켜주고, 80년사 합동편찬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해본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강부덕(20회) 동문의 중재가 있었다.

7월 25일 낮 12시가 지나 재경 측 인사들이 총동창회관을 찾아왔다. 김도형 이승무(이상 26회) 박승준 이민부 이희수(이상 27회) 전재만(28회) 정아존(33회) 김동건(34회) 손공(38회) 등 9명 동문이었다. 박 총동창회장이 영접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들과 회관을 함께 돌며 관련 설명을 했다. 80년사 합동발간의 당위성도 중간중간 곁들였다. 관람을 마치고 곧바로 회관 식당으로 향했다. 합동편찬 생각을 공유했기에 따로 회의를 가질 필요도 없었다. 삼계탕을 들면서 합동편찬의 화합주를 마셨다. 재경 측 인사들은 8월 15일 편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로 하고 회관을 떠났다. 뒤이어 며칠 동안 조직구성과 인선작업이 있었다. 총동창회는 예산 2억원 확보를 밝혀둔 상태이다.

재경동창회 80년사 편찬위원들이 지난 7월 25일 낮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기사 1면에서 받음〉

■자문위원회=▲위원장: 이희문(6) ▲부위원장: 한석정(25) 김도형(26) ▲위원: 주기민(16) 차동렬(24) 박종기(25) 양맹준(25) 이승무(26) 이희수(27) 전재만(28) 김기섭(30) 서강태(30) 정대호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편집위원회=▲위원장: 김형석(16) ▲부위원장: 박승준(27) ▲위원: 김기열(23) 박창호(24) 전섭태(25) 허택(25) 김희복(26) 이민부(27) 이요섭(27) 박종기(28) 김기수(30) 정아존(33) 김동건(34) 손공(38)

■경영지원위원회(예산 집행)=▲위원장: 남진현(19) ▲위원: 옥동훈(25) 신승렬(36) 윤원욱(39)

■협력기구=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산하 각 동기회·직능회 집행부와 국내외 각 지역동창회 집행부.

모두 하나 된 큰잔치…상기된 얼굴, 자부심 만발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 주요 인사들이 도열해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사진 =윤 원 욱(39회) 영상편집위원〉

500여 용마들, '우정의 결실' 보고 또 보고

"모여라, 보아라, 우리의 우정을."

지난 6월 20일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참석한 동문들은 총동창회에서 내건 이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총동창회관을 찾은 동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탄사를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願) 풀었다'였다. 경남중고 6만8천여 동문의 숙원이었던 동창회관 건립이 개교 78년 만에 이뤄졌으니 그 벅찬 감격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은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진행됐다. 쾌청한 토요일 오후였다. 일찍 회관을 방문한 동문 및 내빈들은 회관을 둘러보면서 환담을 나누다 회관 현관 앞 도로에 운집했다. 박종기(28회) 동문의 사회로 행사는 막이 올랐다.

이날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공식 개관기념식에 이은 자축연까지 8가지의 행사가 진행됐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관기념식과 테이프 커팅 및 제막식, 그리고 자축연이다.

■개관기념식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 본행사인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테이프 커팅과 제막식 등을 마치고 회관 내부 관람에 이어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축전·화환 소개, 경과보고, 총동창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경과보고에서 남진현(19회) 초대 동창회관장은 동창회관 건립에 사용된 재원이 3차에 걸친 모금으로 조성되었음을 밝혔다. 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16억원이며, 전체 공정에서 34명의 동문이 참가해 90여일 만에 개관되었음을 보고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3개월 전 동창회관 건립 제안을 했을 때 대부분의 동문이 믿지 않았고 제가 마중물을 냈지만 미적거렸다. 그 뒤 끈질기게 동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힘을 모은 결과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면서 동문의 단합된 힘이 영글어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6월 20일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100m 달리기 10초 벽을 깬 의미 있는 날이다. 우리도 지난 역사를 깨고 총동창회관 개관의 의미를 새기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이경재 개성고 동창회장, 박현숙 부산여고 동창회장, 김진필 동아고 동창회 부회장, 정대호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강은아 경남중 운영위원장, 오영은(6회) 동문 은사,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김영일(16회·총동창회관 현판 휘호 서예가) 동문 등이 내빈으로 소개됐다.

내빈 축사 순에서 송규정(16회) 총동창회 상임고문은 "대단히 기쁘다.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이다. 역사적 회관 건립은 박종찬 회장이 노심초사하며 많은 동문들을 규합해 이룬 결실이다. 남진현 동문과 함께 정말 큰일을 해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동창회관 개관을 계기로 모교와 동창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대호 경남고 교장은 "동창회의 숙원사업인 회관 개관을 성황리에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박종찬 회장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많은 기부 동문과 리모델링 참여 동문,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창회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창회관 건립이 보다 효율적인 모교 지원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학생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이전의 결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은 "기대하고 기대하던 동창회관 개관식이다. 회관 모든 곳에서 동문의 힘이 느껴진다. 경남중고의 한 가족으로서, 교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동창회의 각종 지원에 학생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이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도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경남중고' 제하의 4행시를 읊었다(다음 4행시는 김 교장이 더 다듬어서 보내온 글이다).

'경상도 사나이 중의 싸나휘 경남중고!/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동문들의 파워!/중추적 역할로 우뚝 선 총동창회관 건립!/고결한 모교사랑! 영원하라 경남중고!'

마지막 순서로 모교 교가 제창이 이어졌다. 용마코러스 지휘자인 조성빈(47회) 동문이 지휘를 맡았다.

■테이프 커팅 및 제막식

총동창회관의 문을 공식적으로 활짝 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테이프 커팅에는 주요 내외빈 25명이 대표로 나와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참여 인사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안강태(11회) 용마장학회 이사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을 비롯, 오영은(6회)·김경희(9회)·김영일(16회) 등 재경동창회 원로 동문, 이경재(13회) 창원지역동창회 고문, 송규정(16회) 총동창회 상임고문, 회관 건립 고액기부자 엄종원(16회)·김영기(23회) 동문, 박대동(23회) 총동창회 고문, 최점수(21회)·노상우(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 박성철(29회) 총동창회 제1수석부회장, 이영희(28회) 통영지역동창회장·차의수(29회) 김해지역동창회장·김정암(29회) 창원지역동창회장·박경수(31회) 양산지역동창회장 등 지역동창회 대표, 그리고 외부 인사로서 정대호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공한수 서구청장, 박현숙 부산여고 동창회장, 이경재 개성고 동창회장, 김진필 동아고 동창회부회장, 강은아 경남중 운영위원장 등이다.

이어 머릿돌 제막식이 열렸다. 회관 정면 계단 우측에 설치된 모교의 심볼마크 제막식이다. 머릿돌에는 정면에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옆면에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새겨져 있다.

〈기사 7면 넘김〉

총동창회관 건물 머릿돌인 모교 심볼마크 제막식 모습.〈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개관 - 이모저모

'78년 궤적' 미니역사관 앞에서 전율하며 환호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식은 6만 8천여 동문에게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있다. 훗날 이 이야기들은 용마의 전설이 되어 전승될 것이다. 개관식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밤새 설레 새벽같이 온 동문

○…역사적인 총동창회관 개관식 날 첫 방문자는 오영은(6회) 동문 은사였다. 강부덕(20회) 동문이 전날 서울에서 모셔와 해운대서 1박하고 아침 일찍 회관을 찾았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다. 도착 시각은 오전 8시였다. 오후 2시가 공식 개관식이라 6시간 일찍 온 셈이다. 총동창회 집행부도 도착 전이라 회관 현관문이 닫혀 있었다. 이때 문재인(25회)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축하화환이 쇄도하자 오·강 동문이 인도에서 접수 확인서를 써주고 정렬 작업을 했다. 용마이면 너, 나 없이 모두가 '회관 주인'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축연에서 오 동문은 1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관련기사 5면>

박 총동창회장의 역작에 놀라

○…미니역사관에 설치된 판넬을 하나하나 읽어낸 동문들은 어떻게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분야별로 잘 발췌했는지 궁금해 하기도. 지난 동창회보(제429호)에서 소개한 미니역사관 설치 과정에 대해 소상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동문들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역작이라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문들은 게시판 내용 중 오·탈자를 찾아내 집행부에 전해주기도 했다. 게시판 제작 과정에서 개관일이 촉박해 오·탈자를 잡아낼 교열작업을 불가피하게 건너뛰기로 했다. 다행히 수정작업이 손쉬워 조만간 완벽한 판넬이 부착된다.

재경 원로에 감사의 거마비

○…총동창회는 이번 개관식에 참석한 재경동창회 원로 동문, 오영은(6회)·김경희(9회)·김영일(16회) 세 분에 대해 '거마비'(20만원)를 전달했다. 이 사실은 비공개였으나, 오 동문이 자축연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키로 했다. 먼 거리에서 총동창회 행사에 참가한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의 거마비였다.

○…이번 개관식 기념선물은 타월, 머그컵, 2021캘린더(황종민 53회 동문 협찬) 한 세트였다. 선배동문 200분에게는 이외에 신동훈(38회) 동문이 협찬한 이태리감성 명품 양말 선물이 추가됐다. 행사 전날 총동창회관 4층 동문 공용사무실 로비에서 기념품 750박스 포장 작업이 있었다. 김형권(37회) 이양걸 전삼록(이상 41회) 김영휘(43회) 손창오(45회) 육한수(46회) 신현식 유상일(51회) 동문이 수고했다.

이번 기념선물은 경남중과 경남고 교직원들에게도 전달됐다. 개관식 이후 총동창회는 경남중에 교사 32명, 행정직 등 28명 선물 60개를, 경남고에 교사 60명, 행정직 등 32명 선물 92개를 각각 배송했다. 모교 재학생은 학년별 단체로 총동창회관 방문 시 기념선물을 선사하기로 했다.

푸른색 진행요원 조끼 등장

○…개관식은 잔칫날처럼 북적거렸다. 코로나19사태로 발열체크까지 겹쳐 로비는 많은 방문객으로 번잡스러울 정도였고, 미니역사관인 계단은 1층부터 6층까지 붐볐다. 자원봉사 30여명의 진행요원들은 방문객 안내에 종일 땀을 흘렸다. 용건회, 경미회, 덕형리그 등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됐다. 총동창회는 이번 행사에 맞춰 푸른색의 진행요원 조끼를 마련했다. 조끼를 입은 이들이 손에 든 것은 '동문애'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진행요원은 다음과 같다.

김경곤 김태호 신동훈(이상 38회) 백기현(39회) 강훈 김신욱 김인수 이양걸 전삼록(이상 41회) 김영휘(43회) 구자삼 손창오 조청래 조태성(이상 45회) 김백권 육한수 이태환(46회) 감기환 이승택 정신(이상 47회) 이충현 최유탄 최진영(이상 49회) 김정현 이상구(이상 50회) 유상일(51회) 김현진(52회) 김광호 김상욱(이상 53회) 남승태 조중완(이상 54회) 이재곤(62회) 황태호(65회).

유능한 사회자 발굴 수확도

○…이번 행사에서 유능한 사회자를 찾은 것은 큰 수확이다. 테이프 커팅에서부터 기념식까지 줄곧 사회를 도맡았던 인물은 박종기(28회·㈜프로마르스 대표) 동문이었다. 대우조선 출신인 박 동문은 재직 시 오랫동안 홍보업무를 담당했다. 큰 키에 호남형 얼굴로 유려한 말솜씨가 일품. 동창회보 편집위원으로도 활약 중인 박 동문은 대우조선 근무 중 대통령만 해도 6명을 상대해 사회 봤을 정도로 베테랑이다.

총동창회관 현판 제막식 모습.

안용백 모교 초대교장 흉상 제막식 모습.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교가 제창을 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로 훤해진 회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과 머릿돌·현판 제막식 당시 유달리 동창회관이 훤한 느낌을 주었다. 까닭이 있었다. 회관 맞은편 가로수 2개를 시원하게 가지치기 한 결과였다. 남진현(19) 동창회관장은 개관일을 앞두고 다소 갑갑하게 느껴졌던 가로수를 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고압선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이 가로수를 손대면 산림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남 동창회관장은 초청한 많은 손님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시간이 촉박해 선(先)가지치기를 단행했다. 주변의 고발이 있었고, 조사가 있었다. 남 동창회관장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전압이 2만2천 볼트이면 2m, 3천 볼트이면 50㎝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이 두 가로수는 이격거리 조항을 어기고 있었다.

개별 포장 소형컵 과일 인기

○…개관식 방문객 접대음식 중 인기를 끈 것은 개별 포장 소형컵의 과일이었다. 몇 가지의 과일을 담고 미니 플라스틱 포크를 넣어둬 먹기에 편했고 위생적이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부인 문영희 여사가 자택에서 개관일 전날 오후 만든 400개의 과일 컵을 심야에 회관 식당 냉장고에 보관하는 스토리가 있었다. 소형컵은 단골 빵집에 구입한 것이라고. 문 여사는 개관일에도 지인 몇 명과 함께 회관 식당에서 음식 배분에 수고를 더했다.

총동창회관 개관 - 기부 미담들

‘나도 이름 올리고 싶다“…식지 않는 기부 열기

오영은(6회) 동문이 총동창회관 기금을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홍기(4회) 동문이 총동창회관 기금을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엄종원(16회) 동문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오영은(6회) 동문, 100만원 쾌척 엄종원(16회) 동문 “내 동네 회관 기뻐” 4회 양종학·박홍기 동문 “그냥 못 가”

용마의 기부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기쁨과 자긍심이 기부의 감정선을 자극한 결과이다. 지난해 12월 말일 1차, 지난 5월 20일 2차 마감일을 지나 지난 6월 20일 개관일마저도 훌쩍 넘겼지만 기부는 지속되고 있다. 총동창회관을 방문한 동문이라면 기꺼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회관 내 설치된 고액기부자 동판과 일반기부자 명패 진열대 앞에 서면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기금 모금을 언제까지 존속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해외 동문들도 기금을 보내오고 있는 등 가능한 한 참여 폭을 넓혀서 역사에 남겨두자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일각에선 개관 1주년까지는 접수창구를 열어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동창회관 개관식 날 가장 일찍 회관을 찾아온 오영은(6회) 동문 은사는 모교 재학 중 6·25사변 참전 경력에다 모교에서 영어교사로 봉직하면서 3부요인 동문을 제자로 두고 있는 등의 사연으로 애국심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축연에서 오 동문은 “‘위대한 제자’ 자랑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오 동문은 동문 제자들의 기부동참을 호소하고 이 자리서 1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오 동문은 스스로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면서, 이날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 100만원씩 각 3회, 총 600만원 기부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 6월 5일 오후 총동창회관에는 뜻하지 않은 귀빈이 찾아왔다. 이날 총동창회 고문·자문·부회장단 대상 동창회관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렸다. 송규정(16회) 상임고문은 이날 행사에 친구 1명 데리고 간다고 미리 귀띔을 해주었다. 엄종원(16회) 동문이었다. 나이를 초월한 스포티한 차림이었다. 동창회관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선 고액기부자 동판 전시벽 앞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내가 사는 동네에 총동창회관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시장 내 커피 판매 거상인 엄 동문은 잃었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데다 동창회 발전상에 크게 고무되었다. 8일(월) 오전 약속한 3천만원 기부금이 입금되었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참가한 제일고참 기수 동문은 4회로 4명이었다. 양종학 동기회장을 비롯, 박홍기 심석택 윤연도 동문이다. 이날 양·박 두 동문은 약속이나 한 듯이 각각 50만원의 기부금을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전했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 4회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했던 ‘용마의 영웅’이었다. 그때 4회 동기회는 600만원이란 거금을 경남중 야구부 후원금으로 내놓고선,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에 기여를 못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마음 한 곳에 마치 빚진 듯이 회한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날 그 ‘짐’을 모두 내려놓았다. 모교와 동문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다.

이날 박 동문은 기부자 명판에 두 아들의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봉투를 건네면서 두 아들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다. 자식에 대한 부정(父情)이었다. 큰아들은 박인균(29회) 동문으로 서울에서 정계에 몸담고 있으며, 작은 아들 박성균(34회) 동문은 공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동문은 대학 재학 중 당한 6·25사변 피란일기 ‘난중만보(亂中漫步)’를 2007년 6월 월간조선 별책부록(‘전쟁과 인간’)에 발표하여 세인의 주목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참가한 윤상준(15회) 동문은 남다른 감회에 가슴이 북받쳤다. 이날 윤 동문은 자신이 총동창회관 건물의 설계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당시 건물주는 박용일(16회) 동문이었다. 윤 동문은 이 건물이 1988년 설계에 들어가 1989년 1월 14일 건축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관 중인 도면 카피를 총동창회 사무국에 보내주기로 했다. 미니역사관으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계단의 너비가 큰 이유는 주차장 입구 너비와 맞춰 설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동문은 이날 현장에서 10만원의 기부금을 전하고, 귀가하고 이틀 뒤 40만원의 기부금을 송금했다. 기부금 합계 50만원을 채워서 동창회관 건물 설계자로서의 긍지를 찾겠다는 의지였다.

○…미국 켈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허정택(30회 미주 동기회장) 동문이 지난 7월 3일 총동창회관 기금 5천달러(5,952,844원)를 보내왔다. 이에 앞서 허 동문은 동기생 이연재(미주 동기회 총무) 동문, 사촌동생 박규병(35회) 동문과 함께 각자 20만원씩, 합계 60만원에 이르는 총동창회관 기금 500달러를 박 총동창회장 앞으로 보내왔다. 허 동문은 1983년 이곳으로 이민 와서 37년째 살고 있으며, 건축과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허 동문은 기부금 합계 615만원으로 브론즈급(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등재되었다.

○…고액기부자가 없어 아쉬웠던 26회가 기운을 찾게 됐다. 기존에 낸 1,550만원의 발전기금으로 실버급 기부자인 박상호(신태양건설 회장·사진) 동문이 지난 7월 13일 2,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이로써 합계 3,550만원으로 골드급 고액기부자에 올랐다. 박 동문은 그 이튿날 1,500만원을 추가로 더 기부했다. 총액이 5,050만원이 됐다. 하루 만에 플래티늄급 기부자로 급상승했다. 박 동문의 이번 기부를 계기로 등급 명칭 기부자들의 승급 과정도 동문사회의 이목거리가 될 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축하 선물·현물 기증

총동창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회관 기금 모금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하 선물이나 현물 기증도 있었다. 모두가 모교와 동문 사랑의 발로이다.

문재인(25회) 대통령, 벽시계 보내와

○…문재인(25회) 대통령은 이번 총동창회관 개관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축하 화환과 함께, 원형 벽걸이시계를 보내왔다. 벽시계는 총동창회관 5층 사무국 내 총동창회장석 뒤 벽에 걸어두었다.

여근섭 화백, 그림 2점 기증

○…지난 6월 1일부터 총동창회관 카페에 그림을 전시 중이던 여근섭(41회·화가) 동문이 전시된 50호 크기 그림 두 점을 지난 6월 15일 총동창회에 기증했다. 두 그림은 경남고가 자리한 구덕산 기슭 숲길 정경이다. 여 동문은 지난 6월 15일 회관 리모델링 공사 참여 동문들과 함께 사전 공개 행사에 초대되었다가 자신도 회관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배대결 동문, 동아 백과사전

○…이색적인 기증품도 있다. 백과사전이다. 동아백과사전 1질 31권이다. 배대결(13회) 동문이 보내왔다. 자신이 박스째로 보관해오던 새 책을 이번 동창회관 개관을 기념하여 기증했다.

배준수 동문, 공기청정기 2대

○…배준수(47회)동문이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며 사무국에 공기청정기 2대를 기증했다.

신동훈 동문, 고급 양말 200벌

○…신동훈(38회) 동문이 총동창회 개관 축하선물로 고급 양말 200벌을 기증했다. 양말은 개관식 참가자 중 200명의 선물보따리에 1벌씩 들어 있었다.

기부자 리스트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기부 내역

총동창회관 기금 기부 추가 참여자

2020년 7월 23일 작성. 동창회보 제429호 게재 내용 이후 기부분

일반기부자		
기수	성명	금액(만원)
4	박 홍 기	30
4	양 종 학	50
6	오 영 은	100
15	윤 상 준	50
15회 덕우회		5
16	민 신 웅	10
16	김 형 석	30
17	박 흥 식	30
17	어 윤 대	100
17	장 호 남	20
25	유 승 호	10
25	이 영 호	10
28	주 종 목	100
29	박 인 균	10

일반기부자		
기수	성명	금액(만원)
30	이 연 재	20
30	이 학 수	50
31	김 태 영	10
34	박 성 균	10
34	박 창 주	20
35	박 규 병	20
35	백 현 성	20
35	오 문 세	30
38	한 용 준	10
41	성 찬 기	10
41	최 호 열	10
50	구 원 모	10
50	윤 종 선	10
50	정 재 우	20

일반기부자		
기수	성명	금액(만원)
50	채 현 철	10
50	한 진 우	10
52	박 선 종	10
54	김 승 택	10
70	이 동 현	10
대전 · 세종지역		30

누락자		
기수	성명	금액(만원)
25	백 영 건	100
31	최 상 웅	10
32	김 광 기	30

확인불명	
(7/8 입금, 경남고등학교 52)	10

2020년도 기준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100만원
3	25	박 종 찬	1억5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6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1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2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1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200만원
9	26	박 상 호	1,550만원
10	29	김 대 욱	6,550만원
11	30	윤 성 덕	6,150만원
12	37	허 부 남	5,250만원
13	38	권 두 성	7,1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1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 동 훈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종 원	
4	19	이 용 흠	4,10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6	21	손 석 보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1,000만원
10	28	백 영 호	3,150만원
11	29	박 성 철	3,350만원
12	31	박 종 호	3,150만원
13	31	홍 성 수	3,220만원
14	33	김 법 영	4,150만원
15	35	장 인 화	3,100만원
16	36	박 진 용	3,100만원
17	38	정 재 형	1,000만원
18	39	박 근 태	3,060만원
19	40	우 영 환	3,150만원
20	44	탁 정 환	3,300만원
21	47	정 신	3,11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홍	1,5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6	15	천 신 일	2,430만원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6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350만원
21	30	김 현 태	1,200만원
22	30	정 경 목	1,0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4	33	최 웅 남	800만원
25	34	이 진 호	3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38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8	김 봉 길	500만원
2	17	김 동 수	500만원
3	17	윤 성 욱	500만원
4	17	조 증 언	500만원
5	19	김 봉 호	600만원
6	19	장 홍 의	600만원
7	20	김 태 영	500만원
8	20	박 병 철	500만원
9	23	이 상 수	350만원
10	25	김 익 수	600만원
11	25	박 세 철	380만원
12	25	송 정 규	550만원
13	25	이 명 철	680만원
14	26	김 상 현	500만원
15	26	박 재 욱	500만원
16	26	하 원 규	500만원
17	27	문 두 찬	600만원
18	28	구 영 소	500만원
19	28	이 원 철	900만원
20	28	최 강 호	500만원
21	29	이 석 조	500만원
22	30	김 해 곤	200만원
23	30	윤 인 태	580만원
24	30	이 명 건	30만원
25	30	이 학 수	700만원
26	30	허 정 택	
27	31	남 기 태	700만원
28	31	류 명 석	630만원
29	31	오 민 일	600만원
30	31	이 병 태	600만원
31	31	정 철 수	500만원
32	32	이 종 휘	630만원
33	34	박 철 웅	
34	34	이 재 완	550만원
35	39	백 기 현	10만원
36	41	이 양 걸	300만원
37	44	안 병 규	100만원
38	64	표 종 빈	500만원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과 화환, 그리고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화분–이상택(13회)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회장, 천신일(15회) 우리옛돌박물관 이사장, 송규정(16회) 윈스틸 회장, 김형오(20회) 전 국회의장, 전우성(21회) 동산요양병원 병원장,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회장, 김길수(25회) 목천화원 대표, 조대우(25회) 성암미술관 명예관장, 한석정(25회) 동아대 총장, 서기석(26회) 재경동창회장, 장인화(35회) 부산광역시 체육회 회장, 주영록(38회) 서부산터널10만추진본부 위원장, 42회 동기회, 정일권(49회) 센트럴병원 병원장, 사하지구동창회, 경남중 교직원, 경남중 운영위원회, 경남고 운영위원회, 경남여고 46회 동기회, 권귀임 경남여고 총동창회장, 박현숙 부산여고 총동창회장, 이동욱 서부경찰서, 윤창호 자이안트 대표.

△화환–강부덕(20회) ㈜용마홀딩스 고문, 문재인(25회) 대통령(벽시계 포함), 박성중(30회) 국회의원, 김상수 45회동기회장, 45회 재경동기회, 기장지구동창회, 생우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정대호 경남고 교장, 이경재 개성고 총동창회장, 정호태 동래고 총동창회장, 황승연 동아고 총동창회장, 김흥관 부산중·고 총동창회장, 박춘수 LG시스템에어컨 ㈜대신 대표이사.

△축전–조경태(40회)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역 (VAT 포함)

내역	세부내역	세부금액	합계 금액
건물구입비		3,000,000,000	3,000,000,000
등기 외	등록세 외 소유권이전 비용	61,102,130	
	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로)	13,263,260	
	회관 구입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0	
			84,365,390
리모델링 공사 및외주비용	리모델링 설계비	20,900,000	
	리모델링공사 석면조사	880,000	
	실내 철거	76,318,000	
	부지 측량 비용	848,100	
	감정평가 비용	2,512,400	
	소방관련 공사	44,935,000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외부, 1, 2층) VAT포함	482,000,000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3, 4, 5, 6층) VAT포함	425,200,000	
	도어록 및 출입통제 설치 공사	9,460,000	
	판넬 지붕 보수 공사	3,190,000	
	전기 공사	27,060,000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	80,300,000	
	소방 전기공사	20,644,800	
	주방설비	37,000,000	
	경남고 전체교정 축소모형 제작비	27,500,000	
	도시가스시설 공사	3,000,000	
	전화,인터넷 공사	24,112,000	
	건물 외벽 도장공사	52,250,000	
	배수시설 보수 및 포장공사대금(계약금)	21,780,000	
	옥상 조경공사	29,700,000	
	전기 사용전 검사	157,080	
	승강기 천정공사	3,850,000	
	폐기물 운반 처리비	1,100,000	
	간판 및 역사관, 기부자 명단 외 제작비	47,000,000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비	700,000	
			1,442,397,380
가구 외 직접구입비	가구 구입	46,970,000	
	당구장 집기 구입	49,300,000	
	조명공사	8,524,450	
	블라인드공사	6,600,000	
	개관 기념품(머그컵) 제작비(잔금)	7,480,000	
	정수기 설치 비용	4,455,000	
	소모품 (화장실 점보롤 외)	1,062,600	
	계단 및 가구	31,000,000	
	조명공사	8,415,000	
	그릇 외 집기 구입비	7,063,540	
			170,870,590
개관식	개관식 신문 광고료(부산일보, 국제신문)	5,500,000	
	현판 붓글씨 감사비(16회 김영일 동문)	500,000	
	개관기원제, 초청장 제작 및 발송, 선물(타올)제작, 음식 외	27,842,640	
			33,842,640
판매용 선물구입비	기념품 제작비 (레이저 포인터)	3,006,300	
	모자	3,872,000	
	반팔티	6,963,000	
	후드티	13,747,800	
			27,589,100
		총액	4,759,065,100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품 판매합니다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개관 기념품으로 T셔츠 4종, 모자 4종, 후드티(겨울용) 4종, 머그잔, 그리고 레이저펜을 제작, 판매 중이다. 각 기념품에는 '1942KN'로 고가 새겨져 있다. T셔츠는 2만2,000원, 모자는 1만5,000원, 후드티 5만원, 머그잔 2,000원, 레이저펜은 1만6,500원이다. 이와 별도로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을 3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051) 253-7788.

레이저펜.

머그잔.

모자 4가지 디자인.

T셔츠 4가지 디자인.

후드티 4가지 디자인.

〈3면 기사 받음〉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송규정(16회) 총동창회 상임고문, 김영일(16회) 현판 휘호 서예가, 박대동(23회) 총동창회 고문 등 4명의 동문이 제막 끈을 당겼다..

곧바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회관 정면 좌측 벽에 부착된 경남중고 총동창회 문패이다. 가로 35㎝×세로 160㎝ 크기로 김영일(16회) 동문의 휘호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오영은(6회) 동문 은사, 안강태(11회) 용마장학회 이사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이 제막에 참가했다.

회관 건물 외부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사로 기념촬영이 있었다. 향후 당분간은 총동창회 차원에서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이만한 행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역사적 순간 동참'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바람이 모여졌다. 현관 앞 계단을 비롯한 회관 입구를 메웠다. 이 장면은 경남중고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촬영을 마친 내외빈들은 회관 건물 내로 안내됐다. 로비와 계단에 설치된 미니역사관 관람순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안 교장은 해방 이후 혼란기에 모교에 부임, 초인적인 헌신으로 모교를 재창조한 위인으로 경남중고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사표(師表)로 기억되고 있다. 이 흉상은 2009년 강주홍(7회) 동문이 안 교장의 지도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보은의 마음으로 기증한 것이다. 경남고 교정에 있던 흉상을 이번에 총동창회관으로 옮겨와 안치했다. 제막은 정대호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박성철(29회) 총동창회 제1수석부회장, 흉상 기증자 강 동문의 동생 강인홍 씨와 장조카 강종수 씨 등이 맡았다.

■자축연

이날 오후 3시 회관 1층 카페에서 열린 회관 개관 기념 자축연은 외부초청 인사는 돌아가고 동문들만 남아 가진 개관식 뒤풀이였다. 60여명의 동문이 촘촘히 앉거나 서서 축배의 잔을 들었다. 이 자리서 오영은(6회) 김경희(9회) 박대동(23회) 동문이 축하 샴페인을 터뜨렸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샴페인용 잔을 자택에서 가져오기도 했다.

오 동문은 건배사에서 "축배 건배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경남중고 만세!'를 외치며 원샷의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 동문은 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며 '얼씨구 절씨구' 선창에 '지화자 좋다'의 후렴으로 건배사를 했다. 박 동문은 "기쁘고 무한한 영광"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때 회관 개관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면서 '후라 경고!'를 토해냈다.

한편 이 자리서 김 동문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화해를 하고 '80년사'를 함께 만들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총동창회장은 재경동창회와 80년사 발간에 얽힌 갈등의 경위를 설명하고, 여의치 않으면 총동창회가 독자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마치 '내 집'에 온 듯… 이렇게 기쁜 날이…

총동창회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 직전 진행 시나리오를 재점검하는 집행부 모습.

김영일(16회) 동문이 자신의 휘호로 제작한 총동창회관 현판 옆에 서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에서 내빈들에게 인사하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송규정(16회) 상임고문.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진행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이 열리기전 행사 진행을 점검하는 총동창회 집행부.

▼총동창회관 개관식 날 가장 일찍 방문한 오영은(6회) 동문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화보 I ~VI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Ⅱ

총동창회관 현판 제막식을 집행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안강태(11회) 용마장학회 이사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오영은(6회) 원로동문,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총동창회관 머릿돌 제막식을 집행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영일(16회),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송규정(16회) 상임고문, 박대동(23회) 고문.

김영일 현판 휘호 서예가와 16회 동기인 송규정 상임고문, 엄종원 동문(사진 왼쪽부터).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자들이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

김영일 현판 휘호 서예가(오른쪽)와 함께 기념사진. 왼쪽부터 김경일(15회) 동문, 정대호 경남고 교장, 박종찬 총동창회장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제막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을 마치고 사회자와 함께 기념사진. 오른쪽부터 박종기(28회) 사회자, 강은아 경남중 운영위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박종찬 총동창회장, 정대호 경남고 교장, 신승렬(3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앞에선 경중·경고 양 교장과 흉상 기증자 재일교포 강주홍(7회) 동문의 동생 강인홍 씨와 장조카 강종수씨.(가운데 두 명).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앞에선 원로 동문들.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Ⅲ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 자축연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대동 총동창회 고문, 오영은 동문은사,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 안강태 용마장학회 이사장.

▼총동창회관 개관 축하 샴페인을 잔에 따르는 모습.

총동창회관 개관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

◀'1942KN'카페에서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자들과 함께 건배하는 모습.

▶총동창회관 로비벽에 부착한 경남중·고 교훈 앞에 놓인 동창회보 진열대.

'1942KN'카페 내 유일한 원탁 테이블에 자리잡은 동창회 원로들.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자들이 방명록 작성대 앞에 서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Ⅳ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 참가자 중 최고참인 4회 동문 3명이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양종학 4회 동기회장, 윤연도, 박홍기 동문, 박 총동창회장.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 사흘 전 6월 17일 총동창회관을 방문한 이희문(6회) 원로 동문이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이태석 신부 역사 게시판과 십자가상 창 앞에 함께 섰다.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 하루 전날인 6월 19일 동창회관을 찾은 5회 두 동문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이수관(38회) 강서지구동창회 사무국장, 이병찬(23회) 고문, 상기중, 진도영(이상 5회) 원로 동문, 박종찬 총동창회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기념품 박스.

우영환 경미회 회장을 비롯, 경미회 회원들이 고액기부자 명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일반기부자 명판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은 동문.

총동창회 사무국 벽에 걸린 김영삼(3회)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大道無門(대도무문)'과 함께 기념촬영 하는 36회 동기들. 왼쪽부터 박철종, 신승렬, 정윤희, 박진용 동문.

◀31회 산우회(회장 오민일) 회원들이 총동창회관 개관식날 오전 일찍 회관을 방문,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눈으로 확인한 용마 보금자리…축배엔 자부심 가득

*개별 사진설명은 생략.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Ⅵ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마친 진행요원들이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참석한 통영지역동창회 인사들. 왼쪽부터 신성찬(25회) 동문, 박종찬 총동창회장, 이영희(28회) 통영지역동창회장, 김기산(33회) 사무국장.

동문 자녀 3명이 문재인 대통령 화환 옆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는 화환들.

박종찬 총동창회장 부인 문영희 여사가 총동창회관 개관식 참가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총동창회관 앞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후 훤해진 모습의 동창회관 위용.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최점수(21회·오른쪽) 자문위원, 박성철(29회·왼쪽) 1수석부회장이 각자 부인과 함께 자리한 모습. 부인들은 모두 경남여고 46회 동기생이다.

경남중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29일 총동창회관을 방문, 개관을 축하했다.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이 접대하는 모습. 개관 축하는 계속되고 있다.

"정말 큰일 해냈다…오늘 너무 기분 좋아"

상기중·진도영(5회) 동문·이병찬(23회) 고문 사전 방문

"박 총동창회장 불굴의 의지가 대업 이뤄"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께 5회 상기중·진도영 동문이 총동창회관 공식 개관에 앞서 사전방문을 했다. 이병찬(23회) 고문도 이때 방문, 함께 회관 관람을 했다.

강서지구동창회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두 원로 동문은 이날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초청을 받았다. 개관일의 혼잡을 피해 편안하게 회관을 둘러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초청한 임성업(5회) 동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강서지구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두 원로를 모셔왔다.

이날 두 원로 동문은 회관 전체를 둘러보고 이구동성으로 "원(願) 풀었다"고 말하고 박 총동창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두 원로동문에게 5회 동기회가 내년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질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지난 5월 4일 4회 동기회가 졸업 7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말하고 "이 전통을 꼭 살려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서지구동창회의 5회 '3인방'은 요즘도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찬을 함께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한다고 했다.

한편 회관을 찬찬히 둘러본 이 고문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큰일 해냈다. 박 회장이 1등 공신"이라면서 그의 '불도저 정신'을 높이 치하했다.

상기중(왼쪽에서 세번째)·진도영(〃 네번째) 5회 동문과 이병찬(23회 〃 두번째) 총동창회 고문, 이수관(38회·〃 첫번째) 강서지구동창회 사무국장이 총동창회관 공식 개관식을 앞두고 사전 방문했다.

이날 방문 동문들은 총동창회 집행부와 회관 내 카페&식당 '1942KN'에서 오찬을 들고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이희문(6회) 동문, 개관 사전 방문 소회

"회관 보유 꿈 접은 한(恨) 이제야 씻어"

"오늘 너무 좋다. 원(願)을 풀었다."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무렵 총동창회관을 찾은 이희문(6회) 원로 동문은 가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응어리를 토해냈다.

1980년대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부산 중구 초량동 용(龍) 빌딩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송두호(3회) 총동창회장 시절이다. 당시 사무국장은 이희문(6회) 동문이었다. 경남고 현직 교사이기도 했다. 초량동 소재 한 건물을 동창회관용으로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까지 건넸다가 정치적 이유로 좌절된 적이 있다. 이 동문은 이날 동창회관 보유의 꿈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만 했던 과거의 한(恨)이 풀렸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찬찬히 보니 좋다"면서 "특히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이전과 이태석 신부 자료게시판 설치와 십자가 창은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미수(88세)의 나이에도 훌륭한 기억력을 보유한 이 동문은 경남중고 동창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추억을 들려주면서 지금의 총동창회관 건립 사실은 그만큼 동창회의 큰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격려했다.

이 동문의 경남고 재직 시 에피소드이다. 1978년 무렵이다. 자습실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책걸상 구입비가 없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정상천(4회) 동문에게 어렵사리 전화를 했다. "형님, 낭패 났습니다"면서 사정을 말했다. 난감해 하던 정 동문이 1주일 후 전화를 걸어왔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노? 니 전화 받고 잠을 못 잤다.…돈 보내줄게"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로부터 40여년 후 이와 유사한 용마의 모교사랑 사례가 있어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얼마 전 경남고 정독실 책걸상 비용을 천신일(15회) 동문이 협찬한 미담이 그것이다.

이희문(6회) 원로 동문이 총동창회관 개관 전에 회관을 방문, 모교 역사를 들려주고 있다.

이 동문은 1991년 경남고 교장에 부임하고서도 이 같은 인연으로 총동창회 사무국장직을 1년간 놓지 못했다. 1990년 총동창회장(21~22대)이 된 정 동문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자리서 이 동문은 회관 로비에 부착된 경남중·고 교훈 위치와 관련, "원칙은 경고가 위, 경중이 아래인 것이 맞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경중이 위에 간 것에는 찬성한다"면서 기억의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교훈이 하나 더 있다. 1~7회 동문이 사용한 것으로 안용백 교장이 지었다. '생기 있게 끈기 있게/생각하고 창조하세/성실히 책임 다하세'이다." 이 동문은 덕형관 입구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문 원로 동문이 미니역사관에서 과거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16회 동기회서 홈커밍데이를 기념하면서 경남고 정문을 새로 제작했다고 한다. 이 정문의 기본 설계가 청와대 정문의 축소형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용마인들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요인에다 국무총리까지 배출한 학교 출신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 동문은 여기에 경찰청장(과거 치안국장)을 추가했다. 경찰청장 4명을 배출한 학교는 모교가 유일하다고 했다. 정상천(4회)·최석원(6회)·유흥수(11회)·박일룡(13회) 동문이다. 이밖에도 추월령 교장에 얽힌 이야기, 모교 불어반 존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 동문은 총동창회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동창회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박종찬 회장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동문은 재경동창회 용마회보에 게재된 80년사 발간 편찬주비위 구성 기사와 관련, "이게 말이 안 된다. 서울 자체 발간은 잘못된 길이다. 모교가 있는 곳에서 역사를 정리하는 게 맞다. 원래 모교사는 학교에서 만들고 동창회가 협조하는 게 모범적이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대화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관 개관 - 사전공개행사

“빛나는 새 역사 위해 용마의 정기(精氣)모으자”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자 지난 6월 1일 사무국 이전입주를 마친데 이어 2일부터 20일 개관식 전까지 7차례의 사전공개 행사를 가졌다. 2일 고액기부자, 3일 집행위부회장단, 4일 운영위부회장단, 5일 고문·자문위원·일반위부회장단, 10일 동호회 회장단, 15일 리모델링 참가 및 협찬동문, 17일 직능단체 대표 등 순이다. 각 행사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미니역사관과 각층 내부 등에 대한 현장설명에 이어 ‘1942KN’식당에서 만찬을 들며 환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멋지다” “내 집 같다” “참 좋다”는 등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사전공개 행사 참가자〉 *참가자 명단을 사진설명으로 대체

❶ 고액기부자 대상(1차 6월 2일)=이경재(13회) 박종찬(25회) 김대욱(29회) 박성철(29회) 김법영(33회) 박명진(33회) 박진용(36회) 권두성(38회) 정재형(38회) 탁정환(44회) 정신(47회) 동문 외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9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❷ 집행위부회장 및 리모델링 참가자(2차 6월 3일)=이영학(26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정윤성(35회) 신동훈(38회) 전삼록(41회) 권우일(45회) 동문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남진현 동창회관장 및 사무국팀.

❸ 운영위부회장단(3차 6월 4일)=김길수 김익수 김종현 박세철 여성조 장세훈 제영성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및 사무국팀.

❹ 고문·자문위원·일반위부회장단(4차 6월 5일)=정행권(9회) 송규정(16회) 엄종원(16회) 이용흠(19회) 강창수(21회) 최점수(21회) 곽두희(24회) 노상우(24회) 정길(29회) 류장근(33회) 오희진(38회) 전삼록(41회)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남진현 동창회관장 및 사무국팀.

❺ 동호회 회장단(5차 6월 10일)=△용마당구회-노상우(24회) 회장, 김옥권(25회) 운영위원장 △경불회-서정환(28회) 사무국장 △용마골프-김대욱(29회) 회장 △용마바둑회-김대욱 회장, 이영태 이사, 강성훈(이상 29회) 간사 △용마합창단-최상규(31회) 단장 △용마산악회-김진영(37회) 사무국장 △덕형리그-김경곤(38회) 사무국장, 강훈(41회) 경기이사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및 사무국팀.

❻ 리모델링 참가 및 협찬 동문(6차 6월 15일)=정순길(30회·조명) 양호진(36회·대리석) 김근홍(38회·설비) 김경곤(38회·지하실 포장) 백기현(39회·보안) 여근섭(41회·그림 전시) 김영휘(43회·타월) 박형규(43회·모형제작) 최영동(43회·식자재) 진상영(45회·인조대리석) 이상구(50회·인테리어) 황종민(53회·캘린더 협찬)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및 사무국팀.

❼ 직능단체 대표(7차 6월 17일)=△경미회-배병훈(40회·부회장) 손창오(45회·사무국장) △경야회-조용철(38회·회장) 정용중(42회·부회장) 김동주(51회·사무국장) △등대회-안청홍(29회·회장) 최효식(31회·부회장) 장시호(43회·사무국장) 정하윤(47회·사무차장) △부산시청용마회-안종일(35회·회장) △용건회-이영학(26회·회장) 김인수(41회·사무국장) △용마언론인클럽-조선(34회·회장) 이태욱(40회·사무차장) 외 박종찬 총동창회장 남진현 동창회관장 및 사무국팀.

"모교사 편찬은 총동창회 고유 권한" 천명

관련 회칙 수정…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역 승인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경남중고 총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7월 7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용 승인과 모교 80년사 편찬과 관련한 회칙 수정이 핵심 안건이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겸해 회의 개최 배경 전반을 설명했다. 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용은 이영학(26회) 건축감정인이 각 항목별 내역을 발표했다.

▲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용=△건물구입비 30억원 △등기비용(부동산 소개비 포함) 8,436만원 △리모델링 공사 및 외주 비용 14억4,239만원 △가구 외 직접 구입비용 1억7,087만원 △개관 행사 관련 비용 3,384만원 △판매용 선물 구입비용 2,758만원 △합계 -47억5,906만원.

이 건축감정인은 이 자리서 "이 건물을 지금처럼 신축할 경우 총 67억여원이 소요된다. 건물 매입에서 8억원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공인기준에 비해 2억7,000만원 이상 절감했다. 직영 영업 및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 4억3,600만원은 공인기준이 없으나 동문들이 발품을 팔아 봉사하여 매우 저렴하게 실행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10억원 이상 절감하면서 고품질 총동창회관을 완성하였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요인은 1,700여명의 정성어린 기부,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 장학재단의 비용 절감 노력, 60명에 이르는 동문의 시공 참여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으로 진단했다.

▲모교 80년사 편찬=박 총동창회장은 재경동창회의 단독추진 발표와 관련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모교사 편찬은 총동창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칙을 수정해 이를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자료에는 편찬위원회 조직(가안)까지 포함돼 있다.<관련 기사 1, 2면>

▲회칙 수정 및 추가=회칙 제1장 제4조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교 교육환경 확충, 장학증진 활성화, 모교 변천사 편찬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정했다. 또 제3장 12조(이사회 기능)에 '동창회 재산처분 사항 의결'을 추가했다.

▲경중 YS흉상 설치 및 경고 조형물 재배치=YS흉상 설치는 오는 8월 2일 하기로 작가와 합의했으며, 제막식은 이후 결정키로 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동창회보 제429호 23면에 게재돼 있다.

경고 조형물 재배치는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이전과 덕형관 원형복원 공사와 연관지어 실시하는 것이다. 심의위원 명단은 지난 동창회보 제428호 35면에 수록돼 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활성화 방안=박 총동창회장은 참가자들에게 주변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동창회보 제430호에 구독료 관련 특집 게재를 예고 했다.

이날 행사는 강당 내 도시락 식사 후 진행됐다. 시범적으로 실시된 도시락 식사는 여객기 좌석으로 배치된 강당 활용도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도시락은 KN식당에서 만들었다. 참가 동문들의 반응이 좋았다. 회의 종료 후 1층 KN카페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박청홍(17회) 남진현 이용흠(이상 19회) 김세준(20회) 김인구 박홍규(이상 24회) 여성조 허택(이상 25회) 이광태 이영학(이상 26회) 서정환(28회) 김대욱 박성철 안청홍 오덕현 이승호(이상 29회) 김현태 이원용(이상 30회) 류명석 서수교(이상 31회) 김태홍 이웅길 이종휘(이상 32회) 류장근 주기훈(이상 33회) 옥재명(34회) 양호진 이학수 정윤희(이상 36회) 조용철(38회) 전삼록(41회) 박승삼(43회) 김백권(46회) 성상용(47회) 김현진(52회) 최동환(53회) 김영빈(54회) 외 사무국팀.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7월 7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동창회관 건물 관리 네트워크 구축

공사 참여 동문, '내 집'처럼 돌보기로

'명품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지난 6월 18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동문들이 모였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마침 경남중고 출신으로 건축·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들로 구성된 용건회 정기모임이 이곳 식당에서 열리기 직전이라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 안정적이며, 영속적인 건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게 목적이었다.

총동창회관 건물은 30년 된 건물이지만 골격은 탄탄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골조를 제외한 사실상 재건축이라 할 정도로 건물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작업이었다. 작업 과정에서 전문분야별로 많은 동문들이 '내 집 짓기'라는 생각으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다. 모금에서부터 리모델링 공사 완공까지 요소요소에 동문애가 절절했고, 이는 곧 명품회관을 탄생 시킨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회관 개관 이후 건물 관리 역시 공사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동문 사업체가 '내 집 관리한다'는 심정으로 적극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물 소유주가 장학회인 만큼 건물 관리의 전문성과 강도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동문들 네트워크를 구축,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은 "멋진 회관을 만들어내 감사하다. 앞으로 회관 건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회관 건물은 (공정별 전문분야 참여 동문) 여러분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담아 동문생활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면서 리모델링에서 설계감리를 맡은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을 필두로 '동창회관 AS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용건회 회장은 "네트워크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 조직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중 YS흉상, 8월 15일 제막식

좌대 제작 완료 안치…동문 화합·단결 계기로

경남중 교정에 안치될 거산(巨山) 김영삼(YS·3회) 전 대통령 흉상 제막식이 오는 8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흉상 설치에 앞서 경남중 본관 1층 스마트실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흉상과 좌대 안치작업은 지난 8월 2일 완료된 상태이다. 지난 5월말 안치장소 선정을 결정하고 두 달 만에 작업을 끝낸 셈이다(동창회보 제429호 23면 참조).

이제 '민주화의 영웅' YS흉상이 경남고에 이어 경남중 교정에도 안치됨으로써 그동안 경남중만 졸업한 동문들 가슴 한 켠에 놓여 있던 섭섭한 감정이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총동창회관 개관과 이어서 열리는 YS흉상 제막식은 동문 화합과 단결을 더욱 공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총동창회는 이번 제막식에 YS부인 손명순 여사, 아들 김현철 씨 등 가족과 문정수(12회) 전 부산시장, 김무성(24회) 전 국회의원,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을 비롯, 정·관계 및 경제계의 유력 동문들을 초청했다.

경남중에 안치될 YS흉상은 경남고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좌대는 경남고의 사각기둥형과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부드러움을 가미했다. 보다 예술적 감각을 살렸다는 평가이다. 흉상 제작자인 박희규(29회 명예동문) 작가의 주장이 반영됐다. 좌대 제작을 맡은 정희욱 작가는 "흉상과 안치 장소 등 공간적 특성을 감안, 명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흉상은 브론즈로 제작됐으며 가로 630×세로 340×높이 800㎜ 크기이다. 좌대 윗부분은 붉은 화강석으로 크기는 가로 480×세로 440×높이 960㎜이다. 좌대 아랫부분은 흰색 화강석으로 가로 800×세로 660×높이 130㎜이다. 전체 크기는 가로 800×세로 660×높이 1,890㎜이다. 흉상이 190㎝ 키 높이 만하다는 것이다.

제막식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흉상.

"덕형관, 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복원"

총동창회 주도 원형복원 자문위원회 첫 회의

경남중고 총동창회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총동창회 주도의 이번 자문위원회는 덕형관 원형복원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 덕형관이 오롯이 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자는데 구성 목적을 두고 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내 미니역사관을 만들면서 자료와 기록물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덕형관을 어떻게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플랜을 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덕형관이 역사박물관으로 재창조 되도록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자문위원회는 덕형관이 단순히 과거 회귀식의 복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덕형관 활용 방안 △복원 방향 △내진 보강 △소방시설 △주변환경 정비 방안 등 모두 11가지의 보완 요청 사항을 경남고와 설계용역업체에 보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2022년 3월 원형복원 사업 완료 시까지 존속한다. 이날 회의에는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이 참관했다.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 명단=△위원장:류종우(18회) 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위원:장상진(16회) 전 건축가협회 부산지회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김정신(24회)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영학(26회) 부산서구건축위원회 위원, 박종기(28회) 전 대우조선해양 홍보실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인수(41회) 전기·소방시설 전문가, 강인호(42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동창회관 개관 기여 동문 초청 '번개'

박 총동창회장, 자택 소연회

리모델링 공사 참여, 기증, 개관식 진행요원 봉사 등 총동창회관 개관에 한몫 기여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답례인사를 겸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지난 7월 4일 오후 이들을 용호동 자택으로 초청, 소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 참석자는 박 총동창회장을 제외하고 26명. 박 총동창회장은 식사 후 가진 소회에서 "동창회관 개관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 좋은 작품이 나왔다. (신축이 아니면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멋지게 짓기 어렵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어서 "회관 문제 이후의 과제는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제고이다. 동창회관 미니역사관 자료들은 동창회보에서 초록한 것이다. 그만큼 역사 기록면에서 동창회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독료가 잘 거둬지지 않으면 제작비 문제로 면수가 줄게 되고, 동문들의 활동이 제대로 실리지 않게 된다. 현재 동문들의 활동상이 역사에 남고 미래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80년사 발간 계획도 설명하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총동창회관 개관에 기여한 동문 초청 번개모임이 지난 7월 4일 용호동 박종찬 총동창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술에 관한 폭넓은 소양을 갖춘 박 회장은 이날도 여러 종류의 술(양주)을 내놓고 '특강'을 펼쳤다. 술과 사업에 얽힌 에피소드 소개는 사업가 동문들에게 산교육이 되었다.

◇참석자=이영학(26회·용건회 회장) 김종명(29회·동창회보 편집주간) 정순길(30회·조명) 박철웅(34회·철거) 김태호(38회·진행) 백기현(보안) 윤원욱(영상편집위원) 이원영(드라이비트·이상 39회) 김영철(차기 동기회장) 여근섭(그림 기증) 이양걸(인테리어) 전삼록(인테리어) 황정후(용역·이상 41회) 김진수(차양) 권우일(간판) 조청래(타일·이상 45회) 김백권(강당의자 기부) 양수성(고서적 전문) 이태환(전기공사·이상 46회) 감기환(진행요원) 이승택(진행요원·이상 47회) 이상구(인테리어 보조·50회) 김현진(진행요원·52회) 고지현(진행요원) 남승태(방화문) 조중완(진행요원·이상 54회).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동창회와 '끈' 닿은 동문 9천명, 그 절반이라도 구독료 납부를"

동창회보 구독료 기수별 납부 현황 표물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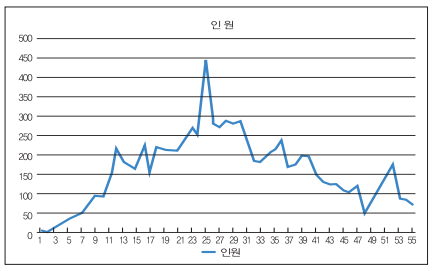
경남중고 동문회와 어떤 형식이로든 연결되거나 관심을 가진 동문을 파악하여 동창회보 구독과 관련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총동창회 사무국용 명부에다 동창회보(용마회보 포함)와 총동창회밴드를 통해 거명되어 파악된 동문들의 명단(25회와 48회는 예외)을 추가해서 아래 표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수집해서 정리한 자료이나 누락된 동문도 있을 것이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명단에 빠진 동문은 사무국(051-253-7788)으로 연락주시면 보관 명단에 등록하겠습니다.

9천명의 동문이 담긴 이 표물에서 기수별 분포도가 주는 의미(그래프 참조)를 새겨 어느 기수가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앞으로 동문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9천명의 인프라는 우리 동문회가 막강한 조직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지만 동기생 간의 수평적 조직은 40회 이전까지는 양호하지만 41회에서 49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41회가 20주년 홈커밍데이로 동문회에 합류한 13년 전부터 선후배간 수직적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끄는 수직적 조직의 강화는 수평적 조직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선후배간의 교류는 후배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무관심은 후배들의 단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총동창회관의 개관은 선배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배들에게는 자부심과 더불어 동문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 준 것입니다.

구독료 납부자 기수별 분포도



이제 후배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찬란한 역사를 기록으로 이어가는 동창회보의 활성화입니다. 경중·경고 졸업생 총원은 대략 6만 8천여명이고, 경남중·고를 동시에 졸업한 동문을 25%로 추정하면 실제 동문 숫자는 약 5만여명입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을 10%로 간주하면 4만5천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등록된 9천명은 그 20%입니다. 졸업생의 20%가 직·간접적으로 동문회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 절반만이라도 동문회를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보 유료 구독자 수가 4천명이 가능한 배경 논리입니다. 단합하고 깨어나는 41회 이후 후배들에게 6천명을 향해 나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구 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1	3	0		2	박상필 엄태현	1	최성근(미)
2	1	0		1	박기화	0	
3	11	6	노관택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	김용해 김인조 문병집 백영학	1	윤조웅
4	20	7	김경식 김희수 박홍기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11	고채환 김기홍 김길환 김옥윤 김홍숙 송호길 신상대 윤옥경 이남규 조성일 황갑생	2	김병록 박복근(미)
5	33	10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16	김석호 김영복 김은규 김형대 박명호 박병인 박종구 박충규 배종태 백승주 우명수 임외택 최영철 최원구 허명화 홍관식	7	김광수(미) 김기수 민의식(미) 심재만(미) 이윤기 이형석(미) 추영태(미)
6	40	18	김상엽 김종철 김태환 박기복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18	강동숙 강진형 김용택 나오연 문교순 문헌순 배상한 염희성 이선환 이윤길 이해훈 정봉락 조관승 조윤승 조재형 최상해 최석원 최인갑	4	김창길(미) 박명(미) 박영대 이상기
7	50	19	강병희 김갑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진홍 김호용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이동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27	고석수 구택용 김덕재 김사룡 김종순 김중경 김태배 김희도 노해규 박동순 박재봉 배건식 변수근 소진은 양종완 원용부 이도환 이민희 이상주 이진호 이태림 이효명 정보영 정운직 하석준 허범 홍성완	4	김종구 박백수 이원기 정재두
8	75	24	김동훈 김봉길 김상식 김영철 김영환 문창화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양 이상목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춘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32	강성태 구본섭 김시경 김영길 김재범 김정곤 김진석 김태규(경) 김태규(서) 문동현 박우상 배기현 배주원 백낙오 서연수 서진근 손세일 심재두 윤창석 이동근 이양희 이유환 이윤조 이정윤 이창근 이희옥 정진수 조봉석 조성래 조윤제 최경태 최윤식	19	강돈수 구무옥(미) 권순걸 김동순 김동훈 김세곤 김수련(미) 김영기 김재철(미) 김해준 노재복 박상재 박성재 서영욱 윤태영 임영택 장영석 정형수 최대영
9	64	21	김경희 김기관 김영국 김청 박남수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윤일명 이영구 장동근 전인규 정록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33	권영대 김기학 김동용 김이도 김종호 김지연 김철규 김태영 박춘경 성백규 신석현 안병환 양우석 이기주 이대규 이동현 이재헌 이주한 이흥수 정민주 정일효 정해돈 정행권 조석무 조용길 주성호 차상구 최위철 최한성 허남수 홍기표 홍순대 황호승	10	강용석(미) 김기준 김태준(미) 박성조(독) 윤종대(미) 장세길(미) 조동훈(미) 주재헌(미) 최성학 탁영채(미)
10	92	35	강희윤 김기호 김상규 김상태 김성규 김정학 김창덕 김평순 박재경 박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종만 정훈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강 최병도 최해만 최형백 하영수	47	고광수 고석명 고용재 김동민 김문희 김선동 김시열 김연수 김영대 김영덕 김용원 김재곤 김종해 김태조 박가수 박경수 박광식 박주환 서정철 손영소 송남진 신대수 안우만 안조만 오기봉 윤부환 윤영태 윤재모 이상화 이언희 이원홍 이지홍 이창복 이현수 장병태 정기철 정상수 조재경 천진욱 최성열 최순진 하병용 한흥석 허영백 허영오 홍청일 황정조	9	고석진 김달현 김만욱(미) 김종팔(미) 박세록(미) 이민섭 차동렬 최명국(미) 황효동
11	134	60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곽태엽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남호현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유홍종 유흥수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성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옥 하종선	61	강점석 고한준 김경탁 김선길 김영식 김재곤 김재환 김정수 김종수 김중하 김태원 김태홍 김평득 문량 박성춘 박승우 박영복 박종술 배상천 배일규 백금덕 백연균 백우청 서진갑 성기득 손봉길 송인석 신유기 신윤업 신현석 신홍성 심재홍 양항두 염한호 오완수 오종석 윤재관 윤태원 이동휘 이명 이상석 이상학 이성우 이윤우 이종범 이종주 임근호 장대철 장병수 장영천 정광웅 정병수 정연순 정주식 조현도 채기권 최영태 최우형 최태원 하영득 홍순문	13	고대식 권보 김석홍(미) 김지영(캐) 박병호(미) 배준한(미) 백우정 신우영(미) 옥일윤(미) 이동근(미) 이학은(미) 정영철(미) 조동준(미)
12	216	71	강본순 강수헌 강창수 구진웅 구창회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곤 김선일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종련 김종일	84	고재경 곽진영 곽한기 권언호 길철종 김광수 김두수 김병룡 김병철 김봉근 김봉성 김석주 김성찬 김영록 김영보 김용관 김용호 김원경 김익도 김일준 김재덕	61	고광석 고규일 권봉헌 권영술 권홍수 김구화 김대은 김동진(미) 김민철 김석일 김성도 김성백 김성운 김준기 김택곤 박경백 박기환(미) 박명식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 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김지회 김현주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윤 박정윤 박종정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재원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장동석 장일곤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김정현 김제엽 김종성 김종원 김종협 김진갑 김진호 김현찬 김홍래 김희련 남기용 류영철 문정수 박미원 박보국 박삼갑 박상도B 박세종 박영환 박용운 박인영 박조원 박찬종 박창 박창수 백승균 서상현 신현효 양학규 오수봉 오용환 왕한균 이병태 이수귀 이승문 이승훈 이영길 이영우 이영한 이응숙 이일쇄 이창원 임상원 임창완 장승재 장지흡 정광삼 정성수 정성영 정영철 정외철 정태복 조병탁 조영건 조은수 최성환 최수행 탁혜정 하일민 한형수 허정욱 홍용하 황태영		박보국(미) 박영한 박정일 박진길 박헌준 박희선 배계수 변무섭 변재용 서영태 서진홍 송세문 신영철(미) 안영일(미) 양성명 옥태윤 유성희(미) 이계우(미) 이근보(미) 이봉오 이상길 이상현 이수귀 장태성 정기영 정기정 정시전 정영화 정팔도 정해문 조명호 조상현 조윤제(미) 진병문(미) 차수명 최건성 최광능(미) 허남석(미) 허재순 허창운 홍영석(미) 화양남 황봉운
13	180	81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권영계 권영채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송신의 신동배 신명 신민철 신하근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응재 이종달 이종영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문화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훈 황일인 황정대	77	강영주 강정문 강종원 구문굉 권영환 권오덕 김간웅 김광수 김규현 김기태 김민철 김부조 김상치 김성대 김소웅 김승기 김승언 김영문 김정성 김종박 김형태 김홍수 김홍철 나준남 남방율 노경규 문기찬 문형재 박건일 박정일 박청부 박홍일 백길오 변윤식 서대희 서재룡 성영환 성정호 성태경 손인현 손진익 송문일 심영수 안흥석 오광희 오한수 옥종한 윤정의 윤조웅 이경준 이범경 이병한 이병화 이상택 이유경 이일희 이정명 이중광 이태남 이학수 이행부 임국진 임홍조 장용웅 전중신 정삼영 정순착 정연호 정영호 조달곤 조동구 조성호 최번영 최부웅 최장우 최혁 한관수	22	강원중(미) 김기성 김두태(미) 김무영(미) 김성제(미) 김정부 김종의 문정의 문현길 박상수 박성규(뉴) 박원길 성왕표(미) 손갑수(미) 이영복 이종일 이채욱 이해종 장창 지영기 지인수(미) 최동영(미)
14	169	59	강주신 권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용호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충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총일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청홍 박효건 배종현 백태우 손영목 신기석 신용진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헌영 이환균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허증 황원재 황준성	75	강민제 강수헌 강통삼 구자신 권정혁 김건호 김공 김동규 김무웅 김봉관 김성부 김수웅 김영대 김영우 김영치 김용균 김용후 김원곤 김일암 김종범 김종석 김종수 김준우 김창효 김치환 김태희 김홍준 남기우 남우준 노방현 박만인 박조명 박해동 반성호 반태호 서정환 성이경 손광웅 송성달 송재헌 신준호 오종철 유인곤 윤승홍 윤정남 이광우 이동식 이동영 이상동 이안부 이은우 이재인 이종민 이진우 이철용 전상배 전재수 전재원 정문건 정선언 정용마 정현구 정훤 조상원 진선대 최건차 최경열 최무 최봉현 최태만 하광진 하찬봉 한수길 황수길 황원규	34	강호준(미) 강휘주 고만수 고석문(미) 김광남(미) 김금일 김명정 김성태 김인환 김재준(미) 김중수 김창모(미) 김철규(미) 김택원 김향 박기정(미) 박순봉 반미태 배대웅(미) 배정현(미) 서충원(미) 신길송(미) 옥공윤(미) 이정남(미) 이종구(미) 이태영(미) 장한교(미) 전영성(미) 정조웅(미) 조갑제(미) 최남천(미) 하승모(미) 한수봉(미) 황정숙(미)
15	160	66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헌 김송평 김쌍열 김염훈 김옥규 김완식 김종태 김종한 김준군 김중광 김충식 김판열 김학현 남기주 남암순 문옥륜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성훈 배훈 서병길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윤휘정 이승남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정석우 조규증 조영일 최광웅 최병우 최욱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73	강부남 강수창 강정남 고태언 구명준 권대식 김경희 김길영 김뇌명 김대석 김대영 김명배 김삼곤 김상차 김양일 김양정 김웅세 김정규 김정길 김정환 김중기 김황영 나정연 노기수 명호근 박복만 박세갑 박소남 박영길 박종복 박준철 박철양 박호문 배박 백승진 신이술 신철호 원성용 이건 이동근 이동원 이상호 이선공 이성근 이수명 이은수 이종일 이칠성 이태창 이필언 임병철 임상택 장청길 장호조 전동석 정길수 정동포 정영부 정창환 정행남 조상호 조일랑 조진환 주정중 천신일 최무길 최병곤 최빙 최의수 최진모 최창석 최태치 한도근	21	구일옥 김명수(미) 김삼용 김영민(미) 김종휴 김훈 도광사(미) 마동명(미) 성광수(미) 이상경 이상모(미) 이승우 이의호 이충남(미) 인수창(미) 전승일(미) 정강홍(뉴) 조부경(미) 최상룡(미) 최은호 한수부
16	225	81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응 김박일 김상웅 김상효 김성극 김양원 김응진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조 김종덕 김창희 김형석 김휘부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홍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안인환 양휘부 엄종원 여성국 예광해 오형칠 옥무웅 유영명 윤효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A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륭 이종철 이청원 임승언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17	강양수 강원경 강인근 권석동 권의강 금성구 김길정 김덕찬 김무광 김미륵 김봉구 김성수 김양화 김연호 김영부 김영우 김영웅 김영일 김용환 김인국 김임득 김정갑 김정균 김정부 김찬문 김철곤 김충길 김태일 김판규 노상현 노승탁 노현덕 박광작 박기용 박민소 박상기 박상우 박소웅 박수면 박수명 박원호 박정욱 박종덕 박종영 박진형 배철호 배청 백헌철 서고명 서대인 서병웅 서정호 서효조 손경식 손한조 송태남 신무웅 신은조 신준삼 신평양 오광치 오정일 옥시영 옥윤석 윤세진 이겸일 이경재 이계술 이광빈 이규방 이균오 이맹립 이명수B 이병숙 이상대 이상철 이선규 이성인 이영일 이우재 이정성 이종득 이종승 이채언 이철수 이한종 이현규 이효일 이훈민 임웅생 장사충 전도봉 전무갑 전종식 정광 정신극 정영일 조금일 조성휘 조창국 조흥제 진병일 차광원 천경 최수웅 최안홍 최양주 최영욱 최윤철 최휘웅 추성곤 하청연 하홍근 한이헌 홍정길 황규정 황태우	27	김경삼(미) 김명홍(미) 김무정(미) 김선영(미) 김성일 김승호 김영일(미) 김종묵(미) 김진엽 박원철(미) 박정수 손석식 유정호(미) 윤장조(미) 이무종(미) 이범용 이소웅 이원식(미) 장상진 정연웅(미) 조자영(미) 차재익 최기석(미) 최춘식(미) 허곤 허종욱 홍용찬
17	154	60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부근 김성락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찬 박흥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종 신홍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응석 장호남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차성철 천융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행	71	강무웅 강주수 강현진 고배식 구원흠 권철신 김무상 김무원 김상천 김승문 김승현 김영환(경) 김영환(부) 김원일 김인곤 김재봉 김정남 김조일 김종영 김충겸 김홍규 김효남 노경석 노동섭 노재윤 박건양 박영호 박종구 박청홍 박홍이 배재욱 백철균 서창석 송부웅 송상훈 송승구 심문섭 양상진 여성국 오진식 오태식 우기남 이겸일 이광석 이국남 이봉암 이상수 이선형 이의종 이재형 이종혁 이주봉 이형우 임웅철 장승구 전경명 정기태 정동길 정태일 정해표 정형근 제양성 조증언 조진웅 최만식 최용묵 최홍배 허원기 홍동표 황상덕 황성진	23	강병문 고영길 김광진 김기도 김동윤 김연일 김현철 명철공(미) 박영원(미) 박철우 방교윤 손의정 안성용 안준철(미) 이유진 이의철(미) 이학근 장우근 정영화 정충언 조만철(미) 최순현(미) 홍정건(미)
18	219	73	갈영수 강대원 강덕융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헌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길출 김사권 김석 김성건 김재창 김정래 김종금	125	강만수 강성태 강승무 고창헌 곽병태 구영곤 권병우 권영대 김기성 김대욱 김동선 김동회 김두환 김만근 김만수 김병대 김병호 김상균 김석구 김성수 김순곤	21	강수성 김두용(호) 김문현 김옥길 김윤식 김정국(미) 김정기 김중조 김창호(미) 박광(캐) 윤상문(미) 이동형(중) 이석기(미) 장형석(미)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 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김종철 김지호 김홍대 류종우 문희억 박건태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문 박준성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설현기 손찬규 안창범 우원호 윤봉수 이긍희 이영호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장기영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조성재 차명석 최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김영국 김영식 김영옥 김영일 김영철 김용기 김용이 김원태 김재환 김정오 김종문 김종상 김준길 김채준 김태균 김형윤 김홍국 김희중 남두진 노성현 노재근 노정규 노준건 노현길 마종준 문재빈 문창열 박기주 박기환 박대웅 박민학 박성철 박수원 박원태 박정남 박정옥 박종만 박중수 박현태 박호성 배공내 배세원 배인한 백승래 변호인 부창구 손무열 손영종 송상일 송수일 송실 신영철 신인환 안원철 양동건 양세수 예월수 오수명 오수환 유영석 이강인 이근배 이대운 이덕수 이동한 이상민 이승춘 이영범 이은무 이일수 이재환 이종순 이충기 이태우 이태준 이택근 이향우 이호감 이호국 이흥수 임영섭 장통무 전기준 전상구 전영철 정우용 정태섭 정홍 좌경용 주상섭 지문석 진상영 채부영 채수일 천두갑 한광수 한동욱 허도행 허종 허태열 홍정표 홍종수 홍종필 홍창우		전남규(미) 조종락 최동주 최인인 최종림 허순배 홍순배
19	214	87	강동완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중) 김순호 김영우 김영태 김용엽 김인선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남진현 노덕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배영구 서승성 석무관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재구 안정모 오일환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복춘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흠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춘만 임영수 임채원 임태석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윤영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상대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96	강국상 강도상 강영범 강재옥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공영섭 권정덕 김국남 김규옥 김근수 김동규 김문기 김부환 김삼도 김석구 김성봉 김성욱 김성희 김수권 김양규 김영묵 김영진 김영탁 김윤기 김익건 김일천 김정국 김정대 김찬균 김행복 김현 남기진 남병근 노은영 문무영 박근실 박성근 박성주 박수적 박원재 박재걸 박종화 박준우 백용환 백종무 서세복 성기혁 신광수 신필열 심영섭 안보영 양학기 옥인영 우정복 우치수 유동구 이강용 이선행 이수천 이용만 이용우 이윤홍 이인철 이재길 이종선 이창현 이창흠 임우근 임장주 임춘섭 장조훈 정규영 정기영 정덕한 정두혁 정수남 정승수 정영택 정용식 정원찬 정태유 조경래 최경석 최광우 최병수 최상원 최연근 최정학 최화익 탁준식 한원주 한종환 홍성봉 황호균	31	계응찬 공정봉 권철현 김광욱 김광준 김동주 김성진(중) 김승환(미) 김인수(미) 김종운(미) 김태진(미) 박진철(미) 배재용 석용태(캐) 선우일남 손태원(미) 안방호(미) 양국서(미) 양승수 이만호(미) 이창근 이철원 이호남(미) 임영일(미) 임재호(미) 정봉환(미) 최정수 최흥표 한태수(미) 허만정 황성진
20	211	54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김대업 김두영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흥 김일석 김조동 김종민 김한원 김형오 김화식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준 박지오 박형준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오경석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영오 이천규 임세호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윤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홍순태	113	강병천 강성택 강영환 강위수 강현진 고세훈 고재식 구본홍 구영남 금석주 김갑수 김두환 김만섭 김명표 김성룡 김성환 김영창 김영호 김원갑 김원율 김윤태 김재민 김정환 김주경 김진환 김찬만 김철영 김태선 김태영 김향곤 김현태 김형기 김희중 남경열 노기태 문광은 민영기 민형기 박기상 박병천 박옥양 박재봉 박종락 박종화 박태수 박현수 배서호 배정호 배준태 백승만 서경석 서덕웅 서상희 서재홍 석광덕 설창환 손순룡 손영철 송상윤 송상헌 송영주 신기한 신용완 신태균 심원섭 양승태 양태윤 여정호 우철성 유장열 윤봉태 이갑현 이계명 이권기 이맹기 이명환 이범추 이봉구 이상익(부) 이상익(서) 이세형 이실근 이우종 이응천 이정식 이종열 이종찬 이화춘 임성춘 장병두 장상배 장영훈 장재성 전우식 정동석 정상구 정용환 정을호 주창웅 진익성 진주환 차상곤 채경석 최균재 최상인 최성배 최인덕 최인섭 최철 한개정 허규판 홍삼선 황명환	43	강두상 김광수(미) 김길우(캐) 김길웅(미) 김성일(미) 김성진 김영중(미) 김옥석(미) 김종화 김준연(미) 김중한(미) 김형수(미) 노상길(미) 노영철 박병철(미) 박봉식 박승현 박영준(미) 박철완(베) 박춘호(미) 박헌렬 서정준 손승기 심영욱 옥영석 윤병조 윤영걸(미) 윤재일 윤종량 이기만 이기복 이두선 이영오 이영진 이응직 이종구(미) 전유태 정국론 정지석(미) 조준섭 차상목 최인영 최재완
21	213	90	강민우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상덕 김영삼 김완일 김용화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기 박성렬 박인협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박지환 배영일 배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정근 송원경 신태윤 심광섭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익희 오태규 우성건 육화원 이문수 이상기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윤성 황활웅	93	강삼태 강수경 강태순 강화중 권오웅 권용효 김귀경 김길서 김남규 김문건 김문성 김병협 김부곤 김상하 김성록 김성수 김순일 김영철 김윤철 김일곤 김재수 김정주 김진경 김창수 김현기 김형우 김홍배 박봉흠 박상주 박순양 박영석 박일송 박재명 박종응 박찬영 박형성 방효상 성상철 손원조 송재영 신남석 심상진 오거돈 우종득 유일건 윤대희 윤상철 윤승근 이강남 이길준 이동채 이명환 이성희 이세형 이영상 이영철 이영훈 이임덕 이재홍 이재화 이재흠 이종규 이종상 이철의 이한석 이호수 임정기 장호 전재호 정대원 정순화 정영천 정정화 정채돈 정한주 조덕준 조병규 조용석 조중생 조현영 조희부 진영춘 진윤구 최규용 최기호 최창희 한광수 한승헌 한준수 홍순길 황동규 황병구 황영실	27	김경덕(미) 김동훈(미) 김수라(미) 김청(미) 김한성 김호영(캐) 도건효(캐) 박동철(미) 박원직(미) 박종원(미) 박현수 배종관 배종덕 양경현(미) 윤종화 이상걸(미) 이윤남(미) 이정규(미) 이종배 정갑식(미) 조진호 진명길(미) 천병규(미) 최은영 탁문근 하병래(미) 하재청(미)
22	236	85	강호일 고인준 곽대홍 구자룡 김광국 김도살 김동옥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A 김승규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종달 김진철 김철헌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류명윤 박규묘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행천 박호병 박흥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향용 손연모 손용섭 심재복 안영수 안진환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유재진 윤성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협 이성모 이웅규 이윤제 이춘식 이홍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대섭 정진식 정해진 조장현 조홍기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99	감준홍 강경관 강봉기 강상대 강성봉 고병호 권성술 금명환 김광무 김대욱 김동명 김동진 김명준 김명효 김무술 김문관 김수열B 김순협 김영진 김정민 김정세 김종인 김찬수 김창두 김창해 김창호 김형경 노진두 문성철 문원경 문춘열 문태용 박문화 박봉석 박상갑 박석주 박의근 박준호 박창섭 박철민 반병일 방영수 배성안 배수봉 배호원 배훈영 변철규 서경덕 손학권 송갑영 송승훈 송현준 신윤근 신일규 신종수 안계환 안동진 양한식 엄남기 여상규 여찬기 오태효 우덕현 유명윤 윤기헌 윤동원 윤한복 이동열 이상백 이승휘 이영화 이인규 이정식 이철응 이치백 임동민 임종대 장광훈 장상규 전길홍 전민수 정동철 정상수 조동룡 조봉국 조순태 조원호 조윤재 주성민 주우실 최광욱 최영택 최완식 최일용 최호림 최효 한창길 허남명 황영환	52	강성숙 권영태 김공립 김기공(미) 김동환(미) 김문무 김석영 김성연 김수창 김영철A 김영철B 김인균(호) 김정수(미) 김종암 김준연 김치호(미) 김현길(미) 김형국 김희봉(미) 박병엽 박순성 박을규(미) 박의규 박찬명 부근시 송기영 송하중(미) 안정환 안홍철 옥인덕(미) 이동진(미) 이상운 이서희(미) 이우경 이원정 이익수(호) 이재호 이주성 이충권(미) 이현경 장호수 전창호 정병국 조민제(미) 조정규 차한열(미) 채석천(호) 최태식 허온 홍기태(미) 홍태구 황선호(미)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 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23	270	80	감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곽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영 김상태 김석헌 김영기 김영철(부) 김익곤 김정록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창호 박영호 박인권 박재호 배종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송영춘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언극 안경섭 안범두 안병율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승구 이승호 이영재 이윤석 이일원 이준석 이충호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융성 채행윤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136	강동우 강상대 권오종 김경섭 김길수 김대영 김동옥 김동욱 김문상 김상현 김상호 김성덕 김성주 김성호 김영철(서) 김영해 김영훈 김용기 김원정 김윤관 김장섭 김재봉 김정한 김종배 김지태 김태정 남기윤 남상률 노영배 류재호 류종윤 문규철 문명옥 문영신 박광규 박기욱 박기흥 박대동 박동현 박무열 박석관 박수갑 박완수 박재완 박종만 박종현 박종환 박창수 방경부 배세홍 백해동 변상식 서영수 손군식 송은재 송재섭 신만동 신상희 신원종 신해철 심수병 안병관 안병화 안성민 안피진 안호창 양희택 오만석 원인건 유동현 유봉희 육병천 윤순현 윤일한 윤종관 이강식 이덕일 이동성 이문희 이병구 이병용 이상운 이성기 이성환 이순 이승현 이영민 이영흔 이원희 이인택 이재동 이정욱 이종율 이종헌 이충덕 임봉학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병규 장찬규 전영찬 전원익 정갑윤 정규봉 정기웅 정기태 정순구 정연철 정재식 정희원 조규직 조맹제 조민제 조완제 조윤종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조효근 최대일 최동하 최승 최인표 최춘흠 최호덕 하승윤 하영호 하종기 한윤길 허거훈 허근창 허대몽 허연욱 홍영희 홍종기	54	강기표 강순구 강실근 고효영 구춘옥 권세웅(미) 김경선(미) 김교철(캐) 김영목 김정용 김종택 김태성 김택수 김팔만 나윤천(미) 노수환 목대관 박영진 박철병 방기준(미) 배기주 서명용(미) 서상병 손우식 송준호 신원석(미) 심병헌 유재호 윤영채 이경우 이규봉 이문상 이영재 이영창 이정우 이주홍 이창우 이학년 전무수 정기문 정인근 정행득 조봉래(미) 조선익 조용하 주창경 최대은 최철호 한기원(미) 한일(미) 한준영(미) 허갑진 홍성표 황종원
24	256	101	강동우 강청흠 곽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상철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승탁 김영만 김영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군 김헌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섭제 문휘영 박극제 박맹렬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상욱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성충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헌 전용우 정광윤 정동화 정명근 정무열 정수민 정수철 정영석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동렬 차한영 최동우 최연호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욱 하재갑 한상렬 황성동 황성훈	131	강기중 강만식 강명득 강영창 강용중 강정원 강종문 공문수 공성칠 곽재용 구본준 권영기 김경석 김규철 김기준 김덕용A 김덕용B 김동진 김병수 김상영 김성권 김수용 김영건 김영민 김영수 김영식 김용식 김용후 김운섭 김유신 김인철 김정안 김종석 김종환 김준기 김중섭 김진윤 김태홍 김해룡 김현덕 김호기 김효근 노동용 노흥덕 박규식 박만기 박성표 박영곤 박요한 박인호 박창종 박창호 박태식 박해성 배석규 백성제 백운룡 변정규 변창구 서기홍 서손상 석문식 성경수 손종식 손찬호 송민호 송수건 송태근 신병현 안명수 안태인 안형모 안홍모 양무도 양순권 양희복 여옥주 오덕호 오성환 오수복 우흥하 원봉준 윤재인 윤종철 윤지현 이광호 이대영 이동희 이명규 이상룡 이석우 이승억 이정회 이종구 이한영 이효구 이희성 임성근 임철호 장성기 장수현 장인복 장일형 전상헌 정기호 정동수 정명동 정봉화 정영덕 정영학 정용호 정철화 조규근 조백인 조병제 조영수 조용건 주정규 지인덕 최석구 최승국 최중식 하성기 하진태 하희조 한승철 한태윤 허걸 허구연 홍용기 황규선	24	권영기 김도명(미) 김성환(미) 김영일 김재홍 김학주 박정문 손인수 안별철 양복민 오기봉 이방우 이영태 임희택(미) 장한종 전용빈(미) 정기춘 조윤제 지순호(미) 진호성(미) 최영호 최우림 하영봉 황영규
25	442	168	강수명 고명식 곽동원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헌 김동진 김문국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연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용수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장형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종윤 김종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김청수 김태선 노태호 문재인 문창진 박거환 박건수 박경립 박굉용 박동건 박맹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박창훈 박홍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손국영 손기천 송기현 송동준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송정규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양시욱 여성조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병한 윤순기 윤영순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계성 이근만 이길헌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화 이승욱 이신호 이신화 이우석 이인구 이종호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홍성 임상택 임영대 임창운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전상태 전섭태 정길영 정동운 정수성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최광수 최신철 최재환 최정웅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한헌교 허만탁 허영형 허택 황곤태 황호선 황호연	184	감경찬 강석철 강용주 강재태 강진섭 고현진 권수갑 김경섭 김경환 김광배 김국진 김규진 김대우 김대환 김덕우 김동령 김동재 김령 김무성 김상덕 김석태 김성수 김성환 김승기 김열회 김엽 김원욱 김윤겸 김윤수 김은주 김인 김인섭 김일영 김재홍 김종택 김종훈 김준호 김진영 김찬규 김창성 김철수 김충재 김형근 김홍식 남영철 노영찬 노태선 노태욱 도재문 문익근 문창준 문태길 민의기 박덕배 박문갑 박성길 박영삼 박영수 박영윤 박인국 박일동 박일호 박종근 박종웅 박창준 박철성 박춘식 박헌구 박호철 배성한 배종오 배종주 백광목 서국원 서보민 서현식 석창재 성경출 성대기 손병두 손원 손의식 손지용 손찬헌 송무룡 송유중 승효상 신성우 신수영 신중모 신태식 신현대 심영재 안대상 안용운 안중권 안태길 양맹준 양재삼 엄수훈 왕경립 우경욱 우상조 윤길유 윤문용 윤봉한 윤성대 윤성부 윤종근 윤진호 윤태환 이기상 이기종 이상남 이상범 이상식 이상영 이상훈 이석호 이석희 이성웅 이성호(부) 이성호(서) 이수영 이수원 이순철 이승원 이영기 이재욱 이재화 이재환 이평호 이해룡 이홍익 이환기 임무홍 임용택 장승엽 장재화 장지수 장흥석 전동근 전시영 전영주 전용태 전원배 정무동 정성호 정윤철 정종식 정철화 정호성 조경규 조광도 조양일 조양제 조용래 조인래 조재영 주기동 진익철 차인재 차인환 최경호 최동하 최무용 최병주 최수봉 최영식 최은홍 최일태 최종덕 최철국 최현림(부) 최현림(서) 탁관로 하대중 하만진 한기영 한봉재 한영근 허우성 황기철 황철	90	강성호 강운용 강운중(미) 강진영 강창익 강행철 곽광식 구현철 권태진 김동식 김동철 김무성(미) 김연신 김영국 김영택 김영표 김욱태 김의식 김정태 김정필(미) 김종업 김종태 김중기 김진규 김찬수 김철석 김효태 노규환 문광섭 박건욱 박문준 박성찬 박세영 박순철 박신홍 박영안 박점용 배석천 성백희 송인배 신휘재(미) 심상모 심인보 안병무 예해덕(미) 오규현 오수영 오태관(미) 우봉구 우상룡 유승호 유학렬 윤희대 이도진 이동호 이명 이병근 이상흡 이상희 이승엽 이영호 이용우 이윤택 이재신 이창우 장성호 전영훈 정경곤(미) 정봉민 정상모 정연수 조동진 지경환 천석수 최영관 최원태 최윤성 최차호 최천성 최한석 하동문 한명호 한창훈 함건주 허경 허실권 허전 허철구 홍승기 황윤식(캐)
26	284	90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강의규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섭권 김영섭 김원정 김일광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종우 김채영 김태년 김태용 김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미) 박군석 박권병 박두식 박상호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박효대 서치호 서헌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동춘 심덕수 심송택 왕정일 왕효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유상 이재봉 이정곤 이종욱 이주형	135	강도식 강맹원 강성구 강용수 고경환 고후영 곽동기 권영인 김경이 김경철 김광대 김기성 김기현 김대규 김만석 김사식 김상현 김석 김석근 김성일 김수민 김영율 김영훈 김용찬 김원철 김윤철 김재수 김재훈 김종배 김종수 김주병 김창호 김철원 김태규 김택영 김학래 김형국 김흥식 김희국 남영걸 남인희 노영석 민성욱 박능출 박대철 박동조 박복수 박봉희 박영재 박오옥 박인섭 박장현 박재우 박점근 박종국 박중호 박태룡 박판기 배갑상 배용호 배흥규 백문현 서기석	59	고광민 고병수 구재오 권종욱 김경익 김도형 김성중(미) 김성철 김영수 김우갑(미) 김우성 김일상 김종석 김진선(미) 김치갑(미) 김태권 김현용 노경빈 박문구 박상용 박성주 박용석 박재창 서진학 성승모 송제명 송진성 신성인 신용봉 양희권 예종석 오성익 왕효석 육승주(미) 윤일중 이광수 이동익 이상배 이영호 이종화 이증훈 이창훈 이충식 이학기 이헌곤 장덕 전상섭 정수진 정윤철 조재관(미) 조해금 조현군 진삼도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동창회보 주소록을 통한 동문 지역분포 통계(미납자 기준) 2020.6.30.일자

지역	졸업기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강원	-	-	-	-	-	-	-	4	-	2	2	-	1	1	-	2	1	2	1	-	1	-	-	-	1
경기	5	5	9	11	9	8	15	18	17	21	18	22	20	26	21	22	16	15	14	17	39	16	28	9	11
경남	1	-	4	4	4	7	2	6	3	4	6	12	5	11	8	8	6	7	14	6	23	9	8	13	17
경북	-	-	-	-	-	-	1	2	3	1	1	3	-	1	-	-	1	-	1	-	2	-	2	1	2
대구	-	-	-	-	1	-	-	1	1	-	-	2	-	3	1	1	1	-	-	1	-	2	-	1	-
대전	-	-	-	-	-	-	1	-	-	-	-	-	-	1	-	2	3	-	-	-	1	3	5	2	2
부산	12	10	8	13	13	20	27	31	36	26	32	52	29	46	45	39	37	40	54	45	76	64	39	51	54
서울	11	3	8	6	8	16	11	26	21	28	21	25	20	36	26	38	39	41	53	55	67	41	46	38	37
세종	-	-	-	-	-	-	-	-	-	-	-	-	-	-	-	-	-	-	-	1	1	-	1	-	-
울산	4	-	-	2	-	-	1	2	-	-	1	-	1	4	4	3	4	1	4	4	2	4	4	6	3
인천	-	-	-	2	-	-	3	1	1	1	1	2	-	2	1	1	-	1	2	3	1	4	3	1	3
전남	-	-	-	-	-	-	2	1	1	-	-	-	-	-	-	-	-	-	-	-	-	1	-	-	-
전북	-	-	-	-	-	-	-	-	-	-	-	-	-	-	-	-	-	1	-	1	1	-	-	1	-
제주	-	-	-	-	-	-	-	-	2	-	1	-	-	-	-	1	-	1	-	-	2	1	-	2	1
충남	1	-	-	-	-	-	-	1	-	-	1	1	1	-	-	1	-	2	-	2	-	1	2	1	2
충북	-	-	-	-	-	-	-	-	-	1	1	1	-	-	-	-	1	-	-	1	3	-	-	-	2
기수별 총원	34	18	29	38	35	51	63	93	85	84	85	120	77	131	106	118	109	111	143	136	219	146	138	126	135

동창회보 주소록을 통한 동문 지역분포 통계(구독료 입금자 기준) 2020.6.30일자

	졸업기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경중졸업	763	209	324	289	377	396	489	609	601	625	552	534	578	605	658	658	540	540	552	545	574	580	547	603	623
경고졸업					340	353	436	521	465	571	539	536	574	520	537	491	512	494	496	482	483	487	486	555	549
총졸업자	763	209	324	289	717	749	925	1,130	1,066	1,196	1,091	1,070	1,152	1,125	1,195	1,149	1,052	1,034	1,048	1,027	1,057	1,067	1,033	1,158	1,172
강원	-	-	-	-	1	-	1	-	1	-	-	-	1	-	-	-	-	-	-	-	-	-	-	1	1
경기	5	3	3	7	2	8	13	11	6	7	6	9	3	8	8	7	6	1	10	6	17	7	4	2	4
경남	3	1	3	-	6	2	3	5	12	3	4	11	3	7	8	4	9	9	8	8	8	10	7	7	5
경북	-	-	-	-	-	-	-	1	1	1	-	2	-	-	1	-	1	1	1	3	3	2	1	1	3
대구	-	1	1	-	-	-	-	-	1	-	2	2	-	-	-	-	-	-	-	2	1	-	2	-	-
대전	2	-	-	-	-	-	-	-	-	-	-	-	-	-	1	-	1	-	-	-	1	1	-	1	1
부산	10	10	6	8	4	12	21	25	33	24	26	40	29	29	41	24	42	40	36	54	68	33	33	50	55
서울	3	3	5	4	5	10	17	19	19	13	13	12	13	20	16	14	13	16	17	16	27	19	12	4	16
세종	-	-	-	-	-	-	-	-	-	-	-	-	-	-	-	-	-	-	-	-	-	2	-	-	-
울산	-	-	1	-	1	1	-	-	1	-	-	1	3	3	-	-	-	6	2	2	6	2	2	2	5
인천	-	-	-	-	-	-	1	1	1	-	2	-	-	-	1	-	-	-	-	1	2	-	2	-	-
전남	-	-	-	-	-	-	-	1	-	-	-	-	-	-	-	-	1	-	-	1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1	-	-	-	-	-	-	-	-	-	1	-	-	-	-	1	-	-	-
충남	-	-	-	-	-	-	-	1	-	1	-	-	1	-	1	-	-	-	-	-	-	-	1	-	2
충북	-	-	-	-	-	-	1	-	-	-	-	-	1	-	-	-	-	-	-	2	-	-	1	2	-
기수별 총원	23	18	19	19	19	33	58	64	75	49	53	77	54	67	77	49	74	73	74	95	133	77	65	70	92
참여%(경고기준)																					28%	16%	13%	13%	17%

구 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장인철 정국근 정영륜 정익교 정태헌 정현준 조만석 지용섭 최낙준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허진호 홍순하 홍청곤 홍형택 황광수		서대영 서준희 설광룡 신기용 신대철 신형진 안길효 안수정 양승림 양준영 양지영(부) 양지영(부) 양희권 오영표 유평진 윤주호 윤흥석 이경국 이광태 이기주 이동일 이동희 이상돈 이성구 이성근 이성만 이승무 이영덕 이용희 이임섭 이재철 이재학 이정석 이정일 이종진 이종형 이현섭 임석주 임정호 임형규 장기주 장덕 장성지 장원용 장희석 전광일 정대근 정문기 정승규 정재영 정종기 정종훈 정한경 조민규 조영석 조일제 차인식 최병무 최영선 최영수 최응덕 최정환 최창호 최현 추기복 한원우 한창학 허갑석 허성덕 허현 현동우 황백		차정대 최윤림 최훈 피종호 하우봉 한창남(미)
27	273	72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경진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옥 김병철 김상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종도 김종욱 김종하 김지언 김진명 김학희 김호균 김황열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영빈 박종국 박찬석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용도 신한원 양태종 유영호 윤석건 윤정환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양헌 이재덕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헌 장인철 장창조 전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천우태 최석진 최인성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126	강문중 강봉호 강영건 강용병 강주훈 공민배 김경수 김광익 김병열 김병추 김상용 김석운 김성문 김연식 김용섭 김용태 김원보 김일리 김재민 김정희 김준기 김진회 김철 김철수 김춘영 김태공 김태우 김태운 김형철 김홍근 김훈탁 김흥호 나찬희 남용희 노광배 도재원 모지현 문규상 박경효 박병주 박상국 박승준 박영종 박완기 박원구 박인석 박정민 박현호 박홍식 박효근 방성근 배용한 배인환 성병철 성영표 손정식 신동원 안병준 안종택 양재균 양창근 오봉인 오용환 옥충석 유성모 유영상 윤대수 윤동명 윤모성 윤문태 윤일근 윤종묵 윤지한 이광호 이길학 이동현 이상용 이상훈 이순걸 이영수 이영우 이영환 이요섭 이원철 이원호 이인규 이정원 이종린 이종엽 이찬홍 이형복 이홍걸 이훈규 임기대 임승여 임차영 장기남 장성철 장원규 장재우 장해성 전태원 정광모 정민화 정상곤 정우영 정원재 정정길 정철길 정형근 조민제 조우영 조인용 조진남 지용조 천석우 최근수 최명권 최성하 최영호 최용수 최용호 추재희 탁승주 태종국 하영제	73	강기철 강성보 강용병 강위정 강창률 강형구 고병수 구용욱(미) 권성건 김건국 김경국 김경민 김경인(미) 김경종 김광호 김만용(미) 김민기 김병용(중) 김성걸 김용수(미) 김의철(미) 김인석(미) 김재섭 김중철 김혜중 김홍조 김홍채 남세규 노영수 류용호 문기영 박득송 박이달(미) 박재원(미) 박찬용 배후근 백성래 백일승 서상철 서상호 성욱조 안병찬 오영두 오정환 오중환 이광남 이기봉 이석재 이승준 이승훈(미) 이영욱 이원익(미) 이종윤 이흥재 이희수 장대원(미) 장성효 전경진 정강민(미) 정세영(호) 정인철 정진모 정차식 조형선(미) 지흥석(미) 차성주(미) 차승일 최극림 최대영(미) 최두진 최용일 홍상주 홍종만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동창회보 주소록을 통한 동문 지역분포 통계(미납자 기준) 2020.6.30일자

졸업기수																									지역별 총원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4	-	-	-	-	-	-	-	-	-	1	1	-	-	-	-	-	-	-	-	-	1	-	-	-	-	25
19	5	4	4	4	13	10	3	1	8	10	4	3	2	5	1	2	1	1	5	2	7	7	-	1	2	536
9	5	6	12	8	11	6	7	9	5	10	6	3	7	4	3	5	2	-	3	6	13	10	7	3	2	350
4	1	3	3	2	2	-	-	1	2	1	-	-	1	1	-	-	-	-	-	-	1	2	-	-	-	45
-	1	-	-	1	-	-	-	1	-	1	-	1	-	-	-	-	-	-	-	1	1	2	-	-	-	24
3	1	1	3	-	-	-	-	-	1	1	-	-	-	-	-	-	-	-	1	-	2	-	-	-	1	34
73	39	47	44	51	45	51	28	38	49	43	33	21	35	31	5	11	28	5	29	33	61	76	16	31	16	1,838
44	4	16	8	-	15	13	10	2	9	12	5	6	8	6	6	5	4	1	10	-	19	11	2	1	17	955
-	-	-	-	-	-	-	-	-	1	-	1	-	-	-	-	-	-	-	-	-	-	-	-	-	-	5
5	1	4	5	3	2	3	1	3	1	1	2	-	2	3	-	1	1	-	1	3	2	5	-	2	3	108
-	-	-	2	1	-	1	-	-	-	1	-	2	1	-	-	-	-	-	-	-	2	-	-	-	-	43
-	-	1	-	-	1	-	-	-	1	-	-	-	1	1	-	-	-	-	-	-	1	-	-	1	-	12
-	-	-	-	-	-	-	-	-	-	1	-	-	-	-	-	-	-	-	-	-	-	1	-	-	-	6
2	-	-	-	1	-	1	-	1	-	-	-	-	-	1	-	-	-	-	-	-	-	-	-	-	-	17
2	-	-	-	-	-	-	-	-	-	-	-	-	-	-	1	-	-	-	-	1	-	-	-	-	-	20
1	-	-	-	-	1	1	-	-	-	1	-	1	-	-	-	-	-	-	1	-	-	-	-	-	-	16
166	57	82	81	71	90	86	49	56	77	83	52	37	57	52	16	24	36	7	50	46	110	114	25	39	41	4,034

동창회보 주소록을 통한 동문 지역분포 통계(구독료 입금자 기준) 2020.6.30일자

졸업기수																										지역별 총원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633	587	617	671	657	654	644	622	643	692	815	1021	645	840	838	633	667	654	551	546	596	495	721	578	527		
627	571	588	599	593	586	588	573	583	582	700	699	691	685	483	676	625	607	590	562	574	566	608	623	629		
1,260	1,158	1,205	1,270	1,250	1,240	1,232	1,195	1,226	1,274	1,515	1,720	1,336	1,525	1,321	1,309	1,292	1,261	1,141	1,108	1,170	1,061	1,329	1,201	1,156		
-	-	-	-	-	-	-	-	-	-	-	-	-	-	-	-	-	-	-	-	-	-	-	1	-	-	7
5	2	3	1	-	1	1	1	-	-	2	1	-	1	-	1	-	-	-	-	1	-	-	1	-	-	184
7	8	4	9	2	3	6	7	1	4	6	1	-	2	1	2	5	1	1	-	3	1	3	-	3	-	226
1	2	-	-	-	-	1	-	1	-	1	1	-	-	1	1	-	-	1	-	-	-	1	1	-	-	34
-	1	1	-	-	-	1	-	-	1	-	-	-	-	-	-	-	-	-	-	-	-	-	-	-	-	16
2	1	-	-	-	-	-	-	-	-	-	1	-	-	-	-	-	-	-	-	-	-	-	-	-	-	12
41	47	25	34	18	23	32	22	33	28	20	33	11	16	15	36	24	22	1	7	16	9	27	16	11	8	1,328
7	4	2	3	1	3	4	1	-	2	1	-	4	1	-	1	1	1	2	1	-	-	3	1	-	2	371
-	-	-	-	-	-	-	-	-	1	-	-	-	-	-	-	-	-	-	-	-	-	1	-	-	-	4
6	2	1	4	1	5	4	-	-	1	-	-	-	3	2	-	1	1	-	-	-	-	-	-	1	-	70
1	-	-	-	1	1	-	-	-	-	-	-	-	-	-	-	-	-	-	-	-	-	-	-	-	-	14
-	-	-	1	1	-	-	-	-	-	-	-	-	-	-	-	-	-	1	-	-	-	-	-	-	-	6
-	-	-	-	-	-	-	-	-	-	1	-	-	-	-	-	-	-	-	-	-	1	-	-	-	1	3
-	-	-	1	-	-	-	-	-	1	-	-	-	-	-	-	-	-	-	-	-	-	-	-	-	-	5
1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	-	-	1	-	-	-	-	-	-	-	-	-	-	-	-	-	-	-	-	-	-	1	-	-	10
72	67	36	53	25	36	49	31	35	38	31	37	15	23	19	41	31	25	6	8	20	11	35	21	15	11	2,298
11%	12%	6%	9%	4%	6%	8%	5%	6%	7%	4%	5%	2%	3%	4%	6%	5%	4%	1%	1%	3%	2%	6%	3%	2%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28	287	77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대생 김만종 김명철 김부윤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원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정유 김준연 김창준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오효석 옥상곤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용남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철행 이흥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남실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허남식 황장두	119	강병두 강용수 강태욱 강현안 고성환 고창준 권태세 권태진 김덕수 김동수 김상정 김성태 김순신 김시영 김영철 김영출 김용섭 김종기 김종배 김종성 김주식 김준배 김창수 김철수 김태훈 김형진 김홍식 김흥국 남문경 노상천 문성룡 박석환 박세혁 박영기 박영제 박원규 박윤철 박일경 박임철 박재훈 박진국 박진주 박효성 배명철 백선용 빈재석 서영대 석안식 성락문 손광락 송명석 송치영 신영수 신효철 안병직 안상원 엄호성 오민석 오현석 유태환 윤대주 윤덕승 윤명수 윤명일 윤일희 윤종건 윤철상 이경포 이대권 이대식 이만재 이명학 이범수 이병호 이상진 이승열 이승하 이양훈 이원표 이윤규 이인수 이인재 이정권 이정철 이종태 이준상 이창순 이춘성 임광수 임영식 임영태 장기남 전병철 전재만 전충원 전학명 정근재 정성목 정성태 정연재 정영주 정현수 조대현 조병현 주종목 천병조 천윤철 최경해 최종철 최태열 최홍민 탁충배 한봉석 한수범 한영호 허명근 허영철 황인업 황훈성	91	강순규 강재화 강태길 공도성 구자원 권혁우 김경수 김광태 김극수 김기태 김동규 김명보 김무홍 김민규 김병수 김성규 김승덕(미) 김옥성 김이청 김인진 김재덕 김재주 김정환 김종섭 김종인 김태영 김평일 김한규 김헌수 김형교 김홍종 남시규 남택희 노문호 노현상 박광순 박돈 박래섭 박용수 박종근 박창수 박철원 방순영 백진수 서명수 소유남 손범석(미) 손상범(미) 손영수 송봉헌 신영준 양승목 예영일 오세순 욱준원 유영식 유태준 이명재 이상부 이승보 이승준 이시우(미) 이영희 이우사 이정한 이진희 이해룡 임창윤(미) 임한태 전상원 정대화 정법동 조병선(미) 조재명 주광식 주용계 차정원 차정인 차주재 천창호 최병주(미) 최봉락 최성덕 추연성 한승완 한충민 허남진 허대석 허진호 황치중 황태봉
29	284	102	강대용 강성훈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부) 김기수(서)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상규 김석윤 김성률 김영훈 김영휘 김용채 김용환 김인술 김재헌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명 김태완 김호성 문명환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혁 박동흠 박명섭 박병률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균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배현호 백성욱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손태권 손홍근 송희태 신현수 안청홍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126	강병철 강희철 권용대 김광우 김규찬 김기민 김기원 김문수 김병욱 김성문 김세원 김영 김영준 김영찬 김용식 김윤영 김인준 김재우 김정규 김정렬 김종운 김진영 김철배 김하원 김한근 김한수 김형일 김홍국 김홍기 남기평 노동욱 류광현 류영광 류왕성 문백섭 문창견 민동식 박경환 박광수 박문규 박병준 박봉구 박장철 박정환 박준모 박창수 박철환 박효근 배성호 배진영 백경돈 변종만 서붕교 서석희 설동일 손용택 송경문 송철호 신영기 신용인 신필균 신호범 신홍기 안동욱 안종주 양길용 양석모 양승룡 양정복 염명배	56	강인원 고경우 고용남 김광근 김광집(미) 김대진 김성민 김영화 김인수 김종진 김태환(미) 김형태 박경배(미) 박순배 박영기 박용수 박용준(미) 박정태 박종호 배호경 안근식(미) 양승철 엄수돈 오덕현 유영이 윤석천 윤형근 이관선 이동식 이상운 이석근 이선유 이성욱 이성준 이양호 이왕봉(뉴) 이헌률 임채병 장강태 장경모 전목환(미) 정동배 정동원 정방호 정연철 정영식 정영주 정진수 조성규(미) 조인호 주정호 최명룡 추연철 한종경(미) 허현도 황유성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이상진 이석조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이진욱 이충원 임광열 임무택 임상흔 장강태 장만 장현경 전장화 전현수 정길 정대현 정란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황유명		오경호 윤종경 이병우 이복남 이상용 이성열 이세용 이수돈 이승우A 이승우B 이승호 이영우 이영태 이우신 이윤상 이재성 이제한 이종포 이효근 임문홍 임봉성 임신관 임용호 임진홍 임채병 장휘열 전영상 전정국 정기조 정세영 정윤수 정종기 정진환 제영권 제영묘 제철수 조상훈 조성진 주재휘 차동열 최명룡 최범수 최상호 최원락 최원형 최인규 최종수 최종열 최진범 추영배 표광민 하창환 한휘철 현응렬 황맹균 황성호		
30	290	83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규성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상직 김성복 김순구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유기 김재일 김재철 김종진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신교선 신구균 신윤원 심풍수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종순 이기환 이명건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태봉 이한수 이호준 인준승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대열 정경목 정기룡 정병효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조경제 조재성 채영재 최병철 최영규 최우철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하재명 황철민	157	고영준 구교익 구의본 구형건 권오붕 권택술 김경남 김경섭 김계형 김관일 김국렬 김도선 김동효 김백수 김병기 김병순 김성은 김승범 김영옥 김영주 김영훈 김용한 김우삼 김욱성 김운철 김인섭 김재수 김재현 김정웅 김정태 김종곤 김종팔 김종휘 김진권 김진영 김창근 김철광 김치영 류구현 박동욱 박모철 박상국 박수송 박웅석 박은수 박인달 박진명 박찬민 박춘욱 박형구 박흥식 방문수 배경조 배기경 배승한 배영수 배종민 백기언 서복현 서하수 서헌덕 석대식 석희원 성낙도 손승락 손홍익 송철수 송한식 신광배 신도현 신영주 신인기 양웅식 오경일 오광태 오섬훈 오충조 왕순모 우홍제 유대현 유영록 유정동 유현덕 윤기송 윤두홍 윤성덕 윤영학 윤용규 윤인태 은창용 은현수 이경우 이광희 이균우 이동근 이동대 이병구 이상구 이상필 이선광 이수석 이영준 이인호 이재봉 이정열 이종천 이종훈 이준성 이진걸 이철호 이학수 이해정 이호걸 이환기 임규영 장봉규 전경재 전동균 전은석 전준호 정광 정광덕 정용하 정우정 정재균 정재동 정정흥 정채화 정해도 조동호 조병훈 조봉제 조순영 조승환 조용업 조재우 조현구 진인태 차상윤 차원주 최거훈 최규정 최병태 최상호 최영식 최욱 최윤성 최인근 최재봉 최정윤 하영동 한효용 허선행 허영재 허유 허준 홍인기	50	강문철(호) 강창순 권영인 권영재 김기홍(미) 김동욱 김동준 김성관 김영태 김영훈 김우현 김진홍 김해균 김홍수 마승호(호) 박관식 박광호 박동헌 박성중 박영홍 박일기 서국태 서병관 손신 심봉석 양석모 엄광혜 오정균 유인태 윤광식 이덕원 이성림(미) 이영생 이창훈 장무상 장석식 장정찬 정경석 정덕찬 정도현 정진국 조일래(베) 조현수(중) 조형수 차민영(미) 차정환(미) 최원수 추태명(미) 한병권 허정택(미)
31	231	84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병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A 김태근 김헌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노성현 류명석 마병진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종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수교 서정호 서태교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임종태 장건호 장재훈 장청철 전병구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부영 최상규 최상웅 최인목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한영오 허일헌 홍구 홍성수	50	강대석 강도진 강승남 고영호 권문선 김경영 김만 김명우 김영완 김원태 김의석 김재술 김정택 김종호B 김태주 김판덕 김학현 남철우 박덕종 박용관 박종규 박준석 서동균 성낙형 성락순 성보경 신구철 심재구 심재현 안용모 여상찬 옥봉균 원종인 윤정수 이광태 이상률 이상일 이성식 이승진 이원장 이홍규 장평우 정주영 정창규 조봉우 조종철 최경우 최문삼 최재선 홍철민	97	강부원 공광욱 곽종철 구상찬 구영상 기창원 김기열 김대식 김득선 김문기 김부영 김상수 김석기 김성수 김성원 김수득 김시현 김영수 김재동 김정관 김준영 김진국 김진율(미) 김창환 김태영(미) 김학성 김헌율 김홍두 남경우 노용환 문성환 문춘식 박무철 박석기 박영석 박영주 박정호 박종건 박종엽 박호건 서상천 서호정 성오용 성준경 소순호 손정수 심규열 심재홍 안민 안우현 왕정홍 유봉학 유영준 윤병호 이경배 이경희 이석우 이성훈 이영두 이용호 이정근 이채웅 이태욱 이훈 이희준 장석재 장성모 장성수 장성호 장재민 장태영(미) 전종욱 전희수 정대열 정문 정복재 정용재 정인화 정정남 조성제 조정제 조현수 주정욱 지헌철 차인용 채경수 최경침 최동식 최봉근 최일진 추헌성 하광우 한광규 한형조 홍기수 홍정표 황성철
32	184	40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송기수 신국선 신명환 신한국 양문성 엄효선 우득현 윤병조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수 정용운 정의주 최승찬 최종호 최춘호 최호영 허정 황성범	82	고병재 권학률 김규원 김대욱 김동균 김성환 김영성 김욱 김원근 김재학 김종성 김종식 김종주 김태홍 김해재 김형수 류성대 류성렬 류현희 마승철 문계성 문사호 문창진 박기노 박성구 박종우 박종호 박희철 백호동 변문성 변시환 설원실 손병철 송승익 신종형 신철호 안병철 안병헌 안영호 안원철 안태원 양성기 양한광 오경명 오정국 유기준 윤성수 이관우 이남규 이명환 이민재 이병준 이상봉 이성호 이원천 이인광 이종수 이진규 이환용 임형택 장문석 장영택 전성황 전용태 정성범 정성수 정욱현 정재종 정현상 정희찬 조준현 조춘식 지성호 최영훈 최재영 최해철 추규환 팽현준 허수철 현태명 황문성 황문찬	62	곽동훈 권건오(미) 김대식 김부식 김상권 김소용 김수득 김영도 김종일 김준곤 문우식 민길식 박법규 박상호 박영욱 박원곤 박종석 박종주 박철민 백영태 서동범 서태원 설옥일 오범용 왕인 유성대 윤성열 윤종걸 윤종열 이동영 이득우 이민희(미) 이상헌 이승건 이옥규 이웅길 이정돈 이주혁 이진호 이칠영 이태운 전성호 전영태 정덕규 정의주 정인영 정정만 정준환 정현옥 조봉래 조해영 차경남 차주일 최규열 최종호 최춘호 최호영 허규 허상영 허재창 허정 홍순문
33	181	56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종인 김종현 김철 김태훈 김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민병현 박명진 박성병 박창완 박태종 배성수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종헌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근 이호인 장정석 정아존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홍원 최환호 홍주성 황경원 황규태	79	계동원 구본인 김계주 김광경 김근수 김길우 김동환 김병윤 김상수 김일 김재도 김재익 김춘복 김충일 김태균 김학성 김학철 김한호 김호진 김홍균 류종남 류홍영 박명제 박민준 박영배 박용득 박종운 박진우 박태우 박태원 방만준 방영모 배성만 배종현 백수현 백홍문 성두대 송재봉 신동천 신종구 심희찬 양승국 양승훈 여민상 오상기 옥숙한 원광우 유희철 윤상현 윤성국 윤태웅 이건 이광호 이상규 이순환 이정호 이지홍 이진우 이태수 이해승 이형규 이훈 임명제 임석빈 장남국 장성욱 정영석 정영진 정한우 조세종 주우열 최동호 최성현 최태준 최호경 하지수 한성일 황용수 황종순	46	강주태 공진우 김동욱 김상욱 김성준(베) 김윤제 김철홍 김충권(미) 노경보 노상식 마승훈 박근보 박봉수(뉴) 박상국 박영태 박일 박진홍 박태환 손영대 손종우 신봉섭 신용준 암은택 염경호 오남진 옥종훈(베) 윤태성 이상운 이재홍 이창호 임완영 임용성 정석환 정세영 정영학 정원규 정인실 정태성 최상진 최우태 최의열 한상봉 황영복 황철 황호용 황희남(미)
34	200	28	강승기 곽수균 김두섭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오송대 옥재명 이강희 이상운 이성엽 이용희 이재완	71	강동석 강찬익 구동회 권병웅 김민근 김범석 김상환 김성중 김신중 김용백 김인철 김종식 김종염 김주섭	101	강규훈 강문실 강윤모 강호상 구본철 권대식 권장우(중) 김교민 김국식 김규혁 김남규 김동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김중근 김창영 김철민 김충환 김현범 김현용 김화봉 김회영 남현우 노태진 도영민 문형철 박기태 박기훈 박만득 박민수 박영관 박재욱 박재찬 박종수 박진영 박창표 박철호 배성산 배윤환 배의정 백운창 서영화 손병걸 송환성 양철용 오주흔 유승민 윤동섭 윤성부 윤태원 이상도 이상호 이성수 이재국 이재욱 장경원 장창명 정성근 정성문 정영선 정현욱 차영록 최광필 최대균 최봉근 최해협 한봉수 허진훈 현승복 황기윤 황호용		김명수(중) 김상균 김상진 김성일 김성하 김영태 김정문 김준섭 김지윤 김지준 김청현 김칠규 김태완 김한조 김호진 김화곤 김휘석 남해원 노승환 류승민 문종철 문창영 문치호 박영호 박재우 박종환 박창삼 박창수 박창주(중) 박철승 방성연(미) 방충근 배상열 배종문 변성수 석원혁 신동명 신용진 신정 염경호 염효기 오상민 우승표 유세진 윤동섭 윤병욱 윤성배 이경원 이문걸 이민수 이상구(미) 이성실 이성열 이성호 이재원 이종광 이채봉 이천식 임경찬 임영식 전영왕 전재병 전충수 정국이 정연일 정연호 정원일 정원철(중) 정종혁 정태영 정호철 정홍기 정희태 제태호 조자영 조현진 채선정 최승용 최태원 최호성(미) 태일산 하영제 한병권(미) 한원일 허동학 허윤모 홍순일 황인철 황종연
35	213	40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세정 김우경 마계성 박동렬 박창제 백현성 백현호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재수 송화철 안종엽 안종일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복근 이성환 이원우 이종찬 이창형 이춘기 이효성 임성배 임주택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민석 황용순	89	강정수 강현욱 구자민 김경환 김명환 김성용 김영재 김영철 김우신 김윤석 김인수 김정환 김주현 김충권 김호성 김홍곤 김환성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류철인 모재현 문흥근 박세종 박외병 박종수 박찬익 박창석 박희찬 배중환 변상돈 서상욱 서창하 성재영 성창용 손석우 손수범 손태섭 송진택 송호성 안병남 옥영희 유병노 유용욱 유재상 윤명관 이광련 이귀성 이남철 이동형 이병일 이영오 이용하 이재성 이종택 이창성 이철규 이현수 임경삼 임청 장병주 장우진 전상건 전성율 전해진 정문종 정성윤 정용경 정우철 정윤성 정인철 정지환 정해준 정희창 조상규 조흥섭 지태경 진호준 채인석 천현석 최근식 최기평 최동근 최상우 최석용 하승훈 허재영 홍규삼 홍성표	84	강남길 강정완 강창호 강호석(미) 강희주 구동성 권오율 권인근 김강학 김남수 김대영 김병수 김선경 김선택 김성수 김성환 김영수 김재성 김정수 김종주 김종태 김주호 김중철 김태균 김호남 김희성 남권효 남기균 도창호 문병화 문영선 문직섭 박규병 박윤섭 박정진 박종만 박진영 박퇴경 박평길(미) 박희창 배성제 서석 서성수 서장우 성정남 손경호 신동원 신송우 신영욱 신영훈 안성조 양걸 유용호 유일석 유철인 이근규(미) 이동욱 이명진 이병용 이상권 이인욱 이종호 이철희 이충고 이태원 임성빈 정범식 정지원 정충길 정한습 조규정 조필제 조효제 진성호 채인택 최금희 최성 최형돈 추병곤 한만두 한태영 허진 홍하종 황영식
36	232	52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병국 김병주 김용진(김) 김용진(부) 김정헌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박진용 박철종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신승렬 신용덕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윤희 정창규 제갈재환 지동섭 최상도 최승호 최태섭 한형식	79	강병주 강순복 강태원 곽상호 김덕주 김덕환 김동기 김동일 김막 김상백 김수진 김영일 김영훈 김원석 김재일 김재호 김주섭 김준안 김지헌 김칠환 김현호 류형우 맹경태 문상식 문용민 박경환 박명하 박수흥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용칠 박재영 박재운 박주석 박찬우 박호성 성귀호 송인국 송현옥 신기성 신상훈 신세도 안병룡 안재익 오병학 오정광 유화상 이규진 이정범 이종국 이주호 임영학 장상욱 장승민 장창용 전영목 정원삼 정인석 정헌준 정홍원 제명환 조경호 조철현 주승진 차대일 차동엽 최덕희 최성필 최운침 최원식 최청학 최필선 하성용 하재철 허만율 허준 홍의창 황태호	101	강성대 고철승 권영갑 권태익 권태휘 김경무 김경봉 김경찬 김경태(미) 김기웅 김도균 김동원 김동현 김명신(미) 김병화 김성복 김세철 김수용 김용식 김원규 김재범 김재영 김창수 김창헌 김철수 김태영 김현철 김호민 김호욱 남권효 남우진 명문장 박관우 박성만 박수흥 박영철 박해성 서세정 서주완 성병길 성상환 소기호 손광성 손수민 손영전 손진규 송준호 신용삼 신창우 신태원 심왕보 심종환 안병국 안진우 양덕희 오명재 오창일 우정동 우한주 유형욱 윤동원(미) 이동헌 이명헌 이상길 이선우 이성언 이송준 이재형 이종철 이중기 이진호 이필이 이호 임재현 임학수 장익성 장재웅 장정재 전학명 전현우 정병익 정영효 정진성 정희일 정희천 조명규(미) 조성영 조성우(미) 지흥준 채성태 천세종 최연호 최영수 최일호(미) 최장혁 최필조 한만준(중) 허성진 허용 황경식 황태호
37	168	35	강태우 김기덕 김기동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원범 김의렬 김종휘 김진영 김형권 김형기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미) 소수헌 송경철 유호섭 윤태훤 장원익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웅찬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47	강성옥 권기원 권희식 김동명 김민호 김성일 김영광 김영태 김정수 김준오 김지웅 김태중 김화종 남지현 노창훈 노태건 민재홍 박규배 박만규 박익관 박철우 서민표 석영태 성창수 손봉상 신우진 안명도 안용범 안지태 양귀수 이상백 이용한 이주홍 이충고 이한주 이호진 정경훈 정광율 정해창 조영규 조용철 주주경 최기영 최치곤 최환승 하승호 홍도용	86	강용하 강주영 공원국 권혁상 김계수 김광국 김길영 김대희 김도종 김동문 김동섭 김동욱 김동현 김동훈 김민호 김성태 김영문 김인평 김재헌 김정균 김종길 김진수 김찬원 김철민 김치언 남호승 문병호 박귀영 박종민 박종식 박철민(포) 배한석 백창헌 백희석 설동훈 성득용 송근호 송대양 송성철 송형환 신수룡 신승원 신영소 양거진 양순남 양태형 오수건 유선이 윤석호 이명도 이상우 이상현 이성언 이수환 이승렬 이정원 이종철 이찬명 이창훈 이춘우 임창근 장기성 장동환 전재열 정기섭 정성윤 정순용 정창남 조재원 조정민(베) 조정화 조현주 차동식 채일권 최규칠 최성은 최우인 최재식 최재용 최철호 하병갑(뉴) 하주용 허찬 홍상일 홍원석 황빈
38	174	38	강금성 곽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근홍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백승온 신동훈 심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한민득	55	강대식 강병균 구동주 권오진 김구도 김기현 김두호 김석구 김성철 김성현 김성호 김영길 김찬수 김호철 남기정 노재완 문귀상 박원 박인철 박정호 박준홍 박진권 박해도 박현수 백두만 서경형 서승헌 성영기 손태환 심재영 오종현 유관재 유호섭 윤병선 윤승준 이수호 이양배 이종명 이한국 이희수 정영석 조명래 조수용 주재훈 천병두 최성환 최철 최휴경 하주태 한경민 한재필 현동희 홍승의 황인국 황태일	81	강봉호 곽우섭 곽철우 구홍택 권오훈 김광중 김금열 김동원 김배혁 김삼남 김상훈 김선양 김언규 김영철 김원수 김을권 김재성 김중렬 김태균 김태성 김태원(베) 김판근 김한수 김효찬 노갑용 노석영 류지훈 박배희 박석희 박순환 박종한 배권희 배철호 변기열(베) 성열문 손공 손상용 송유석 송유섭 안성준 안진혁 염종기 옥정원 옥지성 우종완 윤광근 이경필 이동민 이동훈 이봉걸 이성동 이성훈 이수명 이수형 이진호 이태한 임다산 임성빈 임태홍 장광훈 장덕진 장철호 정성훈 정연태 정재경 정지원 정희태 제중모 조문철 조병철(미) 조현동 차정호 채주홍 최인식 최재신 하민근 한이현 한철환 허준 황광현 황은철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39	199	50	고봉정 곽기영 김대중 김영부 김윤홍 김정남 김종엽 김진형 김천술 김태우 김호석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원영 이태윤 장윤혁 정순환 정연설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지흥준 천용준 하성포 하순호 허종기 황영진	68	강인정 강주철 공영기 김경곤 김기원 김대용 김도경 김병기 김성완 김용태 김용화 김원범 김정락 김종호 김진호 김태호 김해수 김형보 김희삼 김희영 문병운 박수곤 박용한 박평오 배효민 서성복 서은식 성경진 손석호 송기정 송정재 신동준 양원정 엄일규 오민구 오민준 오충헌 우형철 원우광 윤상훈 이경호 이배근 이승현 이영수 이종욱 이종운 이진호 이창민 이철원 임성욱 장동수 장봉건 장영욱 장윤용 장훈 정도연 정영철 정용국 조금룡 조용성 조재찬 조재호 지준환 최경곤 최보식 최정현 한상훈 함충민	81	강경건 강경모 강상호 고광학 공남훈 곽도선 김경호 김계동 김기현 김덕준 김동현 김두영 김병완 김상조 김수진 김양우 김유찬 김장훈 김재정 김정대 김창백 김치화 김한수 김해성 김형순 김홍성 김환수 남상대 노종국 마삼민 박광수 박준민 박태준 박평오 백승광 서동규 성충일 손상녕 손인국 송진욱 신동관 신승우 양정교 양주석 여영모 윤동수 윤종식 이남규 이병효 이상기 이상화 이시재 이재훈 이종기 이준영 이진근 이창화(중) 임용찬 임채성 장민훈 장영욱 정명섭 정문호 정성윤 정승교 정재원 정종삼 정진훈(베) 정호현 조용섭 조용수 진조석 최계정 최광국 최영호 한성호 한영구 한재복 허상욱 현상호 황선민
40	197	35	강창지 고승성 권귀동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창민 김춘강 박근성 박무성 박훈재 배병훈 서정민 손균효 심철 안경진 염점철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기 이기옥 이병완 이상백 이영철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81	강문성 강순석 공정욱 권병서 김경환 김기수 김대영 김동하 김동현 김민홍 김병기 김상윤 김석용 김성진 김성환 김영진 김용철 김원주 김재영 김정일 김정현 김종철 김종환 김철홍 김호철 김희성 김희중 나수민 노원표 노창수 문태영 문형욱 박근표 박대영 박민규 박상범 박상진 박승준 박양곤 박영권 박재현 박제생 박효석 배영진 배윤성 배진수 서재원 서주현 송성종 신상룡 신정업 심재혁 예진원 윤경학 윤성용 이기록 이남주 이대선 이동헌 이상철 이성대 이승배 이종인 이창진 이홍기 조경태 지창근 차정호 최경진 최민한 최석우 최영 최영호 최태훈 한승엽 한시용 현정호 홍순호 황성현 황일도 황창수	81	강강국 강덕영 강장국 고영민 구도윤 권병욱 금대하 김낙원 김대우 김동우 김동호 김봉철 김석주 김성대 김성필 김승환 김영수(베) 김용석 김원태 김일구 김재혁 김종길 김종률 김진 김진우 김태한 김현석 김형훈 남기택 도상현 문기성 박광용 박기엽 박동성 박성철 박성훈 박송주 박용석 박웅 박종철 반광효 변종진 변태경 성봉진 성재영 성태진 손옥명 손희철 신영석 안성호 안용태 양대현 양림 양철희 오수환 유인두 유종아 유태문 이공환 이광 이기동 이남훈 이상재 이순호 이태근 이학순(미) 이호진 장정욱 전규열 전영복 정경두 정원칠 조상원 조찬우 지승렬 최대림 최동빈 최신일 하진호 허민 허재용
41	149	43	강병오 강석희 강훈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정태 김종균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정호 박철홍 백선민 백창봉 성종훈 성찬기 안광근 여근섭 원태용 윤성보 윤종진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이형석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붕 천성원 최영준 하범종 한정호 한창희 허종윤 홍석우 황정후	53	강구행 권태웅 김덕성 김득수 김범성 김성수(서) 김성수(울) 김승원 김영진 김인수 김태균 김태욱 김희식 문남진 민영철 박동규 박보환 박승창 박진형 방용규 배종덕 서백중 서상대 성상용 안영주 안영준 안장섭 안진모 양덕호 옥동길 원윤건 유수호 육욱성 윤광희 윤성한 윤영원 이상철 이수영 이윤서 이종민 이종우 정동만 정태호 조용락 조원주 주지영 천광환 최범호 최택용 추교용 하경은 허중회 허치회	53	김기영 김대영 김동한 김만석(중) 김무현 김병권 김상환 김성일 김정섭 김찬원(중) 김한수 남관희 문상현 문성홍 문태욱 방성운 백정훈 백홍성 변영호 송동훈 송인환 신동진 신창훈(베) 심동진 안병곤 안진태(미) 양성욱 양희동 왕정후 윤영록 윤형배 이경석 이문훈 이성기 이수기 이정상 이종인 이주하 이준석 이현철 이효만 임병호 임봉권 장익조 장재명 정봉기 정형기 조원호 최병호 최택용 최호열 홍동훈 홍창우
42	127	18	강인호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백영환 서분규 신동복 신봉준 윤영덕 이정택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35	고장석 곽창우 권영태 김도형 김병기 김수용 김순곤 김정민 김정언 김진호 김현오 김희찬 문두진 박기열 박일수 서정호 성창욱 손삼식 송지훈 신동호 신지식 오석주 유경상 윤영기 이동현 이영환 이재경 이재윤 장일천 장하은 정창한 제용환 최영제 한봉균 황승표	74	강경국 강승완 구용회 김동원 김병재 김상현 김성문 김성민 김성주 김성혁(뉴) 김세용 김승훈 김영관 김영주 김영태 김요석 김우진 김재홍 김지훈 김충모 김효건 김효신 노봉조 문두진 민성기 박광율 박기준 박영철(독) 박준상 반석진 서영석 서정호 손희삼 송성경 송승호 송유철 송정열 신동복 신동원 신일호 심철보 안용진 안정일 안종욱 양정규 여인환 오기석 오철민 옥동석 윤종득 이대희 이동기 이승훈 이영도 이영석 이윤근 이인호 이재원 이정섭(미) 임영규 정용주 정유철 정주섭 정준오 정현호(미) 조명준 조영민 조청래 진진우 채영한 최성길 최호재 한창형 홍탁선
43	128	26	강병규 강택용 김대영 김동헌 김성수 김신헌 김영휘 김종식 김희경 문영찬 박경곤 박영학 박형규 백정운 윤상원 이상현 이성춘 이용상 이정열 이진배 이호영 정영민 정효범 최용석 최한림 허재원	55	강상훈 강진만 구명진 김경훈 김남수 김대훈 김도형 김동민 김영선 김영재 김정남 김종술 김진수 문기덕 박경노 박남기 박상순 박승삼 박영조 방성수 배진국 백승엽 서원택 송대성 심문섭 엄홍국 여정섭 오일남 윤성욱 윤성진 윤종한 이강수 이강훈 이상민 이상필 이석민 이성훈 이승택 이재웅 이종탁 이중연 장시호 전세준 전순표 전재홍 정용훈 정찬홍 정창석 주용준 최동환 최원석 최홍엽 하영수 황만철 황준하	47	강승남 고양렬 구상본 권재광 김기봉 김명진 김상형 김수민 김준근 김진규 노현룡 동철이 류법권 류지영 마성준 문대은 신지식 심문섭 심헌섭 안재석 이경선 이동주 이승학 이영철 이영호 이창우 이학노 이현오 이현우 전홍도 정동수 정재욱 정진우 조민호 조봉문 조성호 최낙정 최병철(중) 최성필 최연경 최영동 최원철(중) 최이정 현병희 황귀동 황성재 황호건
44	127	24	김동욱 김성훈 김찬홍 김황 문형준 배봉건 안병규 안성만 우도균 이동렬 이부교 이승철 임정훈 장원준 전광렬 조영호 조청현 진성재 최현덕 탁정환 한수성 홍광호 황인주 황재훈	50	강경호 고강석 고봉진 김경조 김구 김성준 김정무 김종천 김학동 김해근 김형모 남경민 문영오 박민수 박석근 박정민 박종진 박주현 박찬익 배종세 서영민 손동철 송동근 윤상훈 윤승환 윤철홍 이군희 이대환 이동원 이병희 이상두 이창용 이현 이현규 임지훈 전영식 정도영 정성태 정영민 정의석 정종윤 정희정 제정완 조진현 조진협 조현우 최종혁 최헌 최현욱 허태욱	53	강상철 고영배 고준성 권상근 기대현 김경진 김부건 김수용 김영주 김정무 김정호 김지근 김희근 나윤환 박재권 박중현 박훈재 배용원 석상봉 설상욱 성기찬 손재성 신정훈 신진수 예상수 윤성필 이승택 이승훈(미) 이영기 이영준 이윤식 이은용 이종원 이창화 이호정 이홍섭 전성백 전성재 전은석 정영운 정영인 정용구 정철 정현덕 조경재 조상화 조수호 조창일 진명환(중) 차성민 최기영 최은용 최재덕
45	107	43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종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효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정일 정상희 정종훈 조청래 조태성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15	김병훈 김용주 김은수 박상화 박진홍 신상왕 심재훈 이상현 이수태 이재혁 이준호 장용모 전금홍 정효원 최윤석	49	강성철 김대영 김동완 김만규 김민석 김병근 김상일 김성관 김성민(뉴) 김성봉 김용성 김일동 김일헌 김정열 김주호 김태효 김학재 김한재 김형석 류존휘 박대원 박웅 박준오 박현승 배철성 서호성 선희창 손성훈 안상준 안형오 양재훈 옥찬석 윤효수 이동섭 이동진 이동희 이병진 이상구 이웅 이좌철 임석범 임재현 장성익 전준용 정행덕 조진욱(중) 진상영 추현상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하창욱
46	102	32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곤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23	강석빈 강성백 강진희 고대영 구경민 권태윤 김도욱 김철홍 김한국 김호진 노주현 류봉규 배동석 서용택 송상훈 송영주 이경돈 이동엽 이주용 최경근 최기원 최득림 허웅	47	권용진 김경수 김대욱 김대운 김도욱 김도일 김두일 김문희 김윤식 김인호(중) 김정철 김진우 나병관 문성욱 박수진 박순영(미) 박종희 박진수 박진우 박철우 박태일 방훈 백하인 서영준 서용택 양수성 오용승 오윤탁 유주상 유현정 육한수 윤서환 윤성환 윤종서 이기수 이원락 이진행 이태우 인명기 장형석 전은전 정대수 정상희 정수찬 정효영 하성기 한용건
47	120	28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성원 김응태(중) 김재성 박성제 배준수 서정민 성상용 손효준 송창은 옥재봉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이일 장순재 정민호 정신 정윤호 정준홍 정하윤 조덕만 차기혁 최경훈 최원창	36	강동훈 강호찬 권병우 권용진 김석현 김세원 김세준 김영진 김태우 김하윤 노준석 문한건 박정민 배시흥 백상화 손교영 심성현 양진혁 유영국 이경준 이동주 이민형 이준상 이준영 이현민 장문기 장형재 전성진 정기주 정상필 정영만 조성환 조송익 천영훈 최성은 허기호	55	강민규 강병국 고경현 곽정택 구재한 김갑동 김광양 김대영 김명진 김승범 김용태 김재범 김종문 김종석 김종운 김종훈 김진 김태효 김택형(중) 김해권 박갑동 박건우 박경용 박남수 박정욱 박천희 박홍민 배민호 설진석 송희진 윤동근 윤승률 윤필호 이기현 이도관 이선균 이성수 이수진 이욱재 이주용 이준재 이호정 장재형 장치권 전유수 정래권 정민수 정성훈 조성빈 진광남 최근호 최영수 하태경 한동훈 한인철
48	51	9	권태현 김종철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이재희 차원일	6	기봉재 박성준 이정준 이헌우 이형철 한병주	35	강필성 고경민 김상혁 김성은 김승준 김용태 김준영 김지형 김충우 김태호 문수영 박동주 박선용 부성 서민종 성재욱 손정우 신우영 유성한 윤민철 윤석권 윤호성 이동준 이상훈 이재욱 이충훈 이헌우 장원준 장희욱 정구석 조민수 천봉기 최우영(미) 피종태 홍경철
49	87	9	고용배 김종배 김진용 배승한 이충현 장민건 장형철 최유탄 최진영	51	강동준 강성민 고무원 김덕호 김민상 김성재 김성훈 김정욱 김태형 김태훈 김학균 김현우 김현중 노성욱 박시영 박시원 박재승 박재홍 배기용 백상훈 서인석 손성호A 손성호B 신종국 신택영 안명진 안진국 안형수 예병삼 윤정암 이석영 이성욱 이성형 이헌명 임기환 장재익 전선우 전성광 정우근 정일권 제민진 제정훈 조영철 조응래 조진호 최경필 하성우 하승필 홍민호 홍영근 황철하	27	고덕훈 공성경 구대서 김성철 박경호 박노찬 박덕주 박상준 박철민 안병진 옥창진 우영삼 윤호제 이경민 이동훈 이성업 이승일 이영환 장성우 장성욱 장용찬 전익덕 정기봉 정성훈 정준용 조용철 조재욱
50	112	43	강철 구경모 구민수 구원모 권기태 김동현 김문수 김상준 김석훈 김영환 김재웅 김재윤 김재호 김정현 김정희 남경협 박기태 박복열 박종현 백광선 서석진 신성진 안기범 안동운 오유준 유우진 윤종선 윤준호 이상구 이상준 이승헌 이종환 이주현 장태효 전세계 정재우 차승준 채현철 최용호 최정민 최종빈 하진일 한진우	29	강봉규 김경록 김기원 김봉규 김연태 김유진 김윤창 김정완 김주은 노재훈 박기수 박병규 박원로 박인창 박현욱 백승환 서영준 송승재 이기승 이인준 이종길 전익환 정희석 최진휘 최호진 하수성 허창호 홍광표 황국현	40	구원모 구형우 김병주 김성학 김영동 김중규(중) 김진서 김태영 김태욱 김현욱 남기홍 노치권 박길재 박대성 박태근 백상헌 백송현 송동진 송병우 양종규 양희승 옥재욱 우성근 윤동원 이경우 이기욱 정대현 정용균 정윤호 조기준 조봉철 조성윤 조영석 주정익 최석봉 최준기 황상욱 황승찬 황정석 황현후
51	144	14	감종현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박보순 반길호 신현식 오성진 이건영 정유석 정진우 최우영	108	감동익 강승호 고재일 구정무 권민상 권택윤 김광민 김남윤 김대성 김대우 김대욱 김도영 김동규 김동석 김동언 김동호 김범석 김병수 김성태 김세진 김영록 김영재 김영태 김용수 김은택 김지형 김현우 도희종 모상민 문경록 문성용 박기운 박대형 박성국 박성언 박성주 박승민 박재홍 박준성 박철홍 박치성 배지철 서성호 성기웅 성상원 손명준 손익선 손현직 송상민 송심곤 송옥종 신석진 신승환 신재욱 신종규 신혁휴 심제명 양익동 염권아 오세진 오준호 옥성진 우성우 우영진 유상일 윤경원 윤원주 이기수 이덕 이동헌 이병기 이봉재 이상석 이선호 이성근 이성호 이영진 이월봉 이재승 이재훈 이정명 이정우 이정헌 이창주 이해룡 이현승 임동현 임상영 정봉천 정성민 정성훈 정양재 정재용 제정남 조민제 조정호 조준호 최성만 최재원 최환석 하종건 한성인 한종철 허 광 홍기동 홍정균 황진혁 황현범	22	김건오 김영제 김재규 김정수 김지원 김희준 노태부 박수장 서석 신우승 안승훈 양민우 오건진 이명호 이시원 임용관 장동원 정경호 주원석(중) 진석진 최영진 하승환
52	179	38	강민호 강영철 강재식 공영수 구순모 김도훈 김민수 김민철 김상곤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류상원 박상현 박선종 박정규 변정환 성운용 심종배 양현승 이경원 이도경 이해곤 이호영 정길수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조영찬 조용수 최중연 최형주 한중현 허균형 허근영 허홍만	111	강민석 강석 강정오 강희원 고정희 곽동협 곽지철 구유성 구태영 권기환 권영춘 김경록 김기동 김기윤 김남곤 김동우(경) 김동우(부) 김두영 김명종 김범진 김성욱 김영철 김영호 김영훈 김오령 김용혁 김용회 김정민 김정학 김지훈 김진일 김학수 김해영 김형수 문성환 민삼석 민종기 박범기 박부일 박상수 박성욱 박성호 박영진 박우경 박지형 박찬용 박찬홍 박창배 박홍현 박희철 방성훈 배서준 백민철 백선명 백수인 변의현 서남동 석재식 성원섭 손효진 송원일 신균식 신민우 유동욱 윤세진 윤수진 이경용 이동현 이동휘 이승복 이신헌 이영민 이원영 이재훈 이종혁 이종호 이출희 이현석A 이현석B 이현황 임정무 장종진 장태원 정무준 정재혁 제정욱 제정철 조민성 조범래 지성천 지현철 차상원 채용민 천민녕 최문성 최범진 최병태 최상용 최석용 최영태 최정욱 최호현 추병철 하상윤 하정호 허승조 홍종철 홍지호 황대민 황상민 황창근	29	권기한 김광훈 김대장 김동현 김상민 김상조 김선욱 김준형 김태헌 박경한 박동식 박명순 박성근 성운용 이동승 이상은 이세벽 이영준 이정훈(베) 이지훈 이태호 이현수 임치형 정경호 정대욱 조동구 주정오 지제현 황진환
53	88	21	강덕천 곽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민걸 김상욱	25	강원석 김민철 김영혁 김재한 김정현 김효종 박창우	42	강이환 권기용 김두기 김성하 김영호 김이수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구분		동창회보 직접 발송 동문(6,387명)				주소 미확보 - 미발송 동문(2,603명) (해외동문 포함) 미국(미), 캐나다(캐), 호주(호), 뉴질랜드(뉴), 중국(중) 베트남(베)	
기수	총인원	구독료 납부자		구독료 미납부자			
			문희규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백홍상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최동환 한동인 황선경 황종민		서진억 선재원 성진우 손희성 송승준 안재영 유현석 이성우 이승중 이재홍 이창현 이천복 임경우 임동녘 장착한 하병오 황명수 황성진		김종균 김지훈 김진영 김태원 김현호 문상인 박세수 박영진 박정만 박정진 박창우 박현근 박희찬 백상훈 변용식 변창우 송호백 신경필 신민기 안영재 안태주 이기주 이상훈 이수봉 이응배 이정욱 장운성 전학수 정영삼 조성범 조정훈 주용호 최덕열 최석기 하태영 황귀환
54	86	16	고강인 고지현 권태호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민병철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39	강인구 강치범 김기수 김대진 김민석 김봉문 김상훈 김정우 김주랑 김진욱 김태용 남승태 류종혁 문철민 박경종 박경태 박민철 박상수 박태현 송종락 신동수 양현진 양형욱 염태환 이근주 이동하 이원률 이유진 이정운 이준일 이태호 전명진 정민성 조용수 최우영 최재영 하종수 한승호 한정환	31	강민영 강성윤 고훈 구선모 김경원 김규훈 김남훈 김대진 김성호 김현호 김형균 김홍민 류태용 박종호 박중원 박진용 송지홍 안병준 안진우 여윤석 오상철 오세빈 우장원 유성환 이동업 이동준 임창섭 조정우 조현일 주영 한동희
55	30	4	김태련 이향림 최범준 최성원	7	권세호 김대연 김동민 명종효 이대호 장우권 진성후	19	김동현 김민성 박정민 서상범 송경배 송철현 오치윤 유용석 이동규 이동훈 이상훈 이욱한 이인목 이종원 장지훈 정보경 정성헌 정재호 정진수
56	30	1	임재청	9	강동환 강정관 김근재 김희진 윤영서 이동철 이상준 이선엽 지원영	20	강지훈 김경진 김동진 김세진 김수원 서진석 손정현 신민강 심세준 양우경 우승수 유희상 이상목 이휘세 임윤섭 장성도 정현수 최정환 최효제 하성근
57	25	0		8	강창우 강태학 박용우 백명국 성재기 정구윤 정민철 조진욱	17	강경주 강영철 강현용 구본욱 김병희 김성호 김종진 김준영 김지훈 문용선 박주환 안상배 이장훈 천병철 형선우 황상민 황현용
58	10	1	김현윤	5	김태곤 정혁 최종빈 허기욱 허민	4	김주용 오용환 주재형 하남주
59	15	0		4	김귀훈 김민준 정재석 허재원	11	강석주(베) 김규원 김명준 김재민 류현희 박예흠 오정환 위성규 이원천 이준혁 조지훈
60	14	1	이명휘	5	김동진 김민영 김태환 김한범 이준수	8	고덕훈 김민혁 김수웅 김정기 민영진 박세근 박지홍 정덕환
61	8	0		1	임동규	7	김동훈 노의현 박상훈 서원기 정류환 최세진 하상원
62	12	0		0		12	곽명원 김남수 김주석 남경현 신본기 오정두 이상문 이재곤 이종재 최민석 추호형 한동민
63	8	0		0		8	김규선 김다슬 김성인 신주용 신하늘 이호열 정재호 한정현
64	5	0		0		5	김민성(베) 조현우 최영훈 최치곤 황지원
65	9	1	이정조	1	최성원	7	김재일 성다빈 이호규 진승찬 한영진 홍호택 황태호
66	11	2	김덕형 김시준	0		9	길준영 박가람 박창현 서지범 성범석 송민곤 장홍서 조민열 홍광희
67	17	1	황유광	0		16	고현석 곽종현 김동환 김재성 김준석 김태훈 김현우 배병찬 선준영 유남기 이동규 이상민 이승경 임서형 정지후 조창석
68	18	0		1	지우준	17	길현준 김려훈 김태우 방재원 배병찬 배성찬 배중현 백승준 서한길 성우영 심재호 오경준 유성준 육경수 이강운 조준형 채준형
69	11	1	정민기	0		10	고민철 김민재 김상욱 류영준 양재혁 육용우 윤웅재 임동건 전준영 황성윤
70	14	0		0		14	권혁일 김범준 김상범 김찬호 김현성 김휘재 박무성 박주영 엄윤성 유동진 이동현 이종윤 최광호 최재호
71	16	0		0		16	강동원 강동현 김남준 김동욱 김용훈 김정우 김정운 김정훈 박성빈 손주영 이동현 이승호 정태준 조상현 주원종 최지훈
72	19	0		0		19	강승우 고관호 김경남 김민우 김용민 김주영 김찬현 류건석 박선경 박준호 방찬혁 서지웅 양영혁 윤종빈 이희원 장문규 정성훈 최민식 한동희
73	17	0		0		17	강찬호 김기섭 김두원 김민섭 김호빈 노시환 박형빈 배승준 서민교 서준원 심형섭 윤원호 이준호 정원영 정찬영 최원영 홍민화
74	12	0		0		12	김도훈 김민규 김석범 노민재 박인호 백문서 손보성 이동은 이재민 이정우 정락원 최준용
75	2	0		0		2	박종두 최영환
76	0	0		0		0	
77	1	1	김건우	0		0	
미상	5	5	김영철 동창회보 바우맨코리아㈜ 조윤희 27회	0		0	
총인원	8,990	2,620		3,767		2,603	

기고문

"70에 해파랑길 770㎞ 걷기, 멋진 도전이었다"

총 27일 쏟아낸 땀방울, 내 삶 더 윤택하게 할 것
시리도록 푸른 동해바다 그리워져 또 길 위에 서

박홍규(24회) 동문, 완보 소감문

"70에 해파랑길 770㎞를 걷다."
박홍규(24회·㈔부산한일친선협회 회장) 총동창회 자문위원이 해파랑길 완보 소감을 보내오면서 내건 타이틀이다. 나이를 고려할 때 대단한 쾌거이다. 박 동문은 용마 동문들도 한번쯤 인생의 멋진 도전을 해보고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며 행복해지길 기원했다.

해파랑길 770㎞를 완보하고 일행과 인증샷을 찍는 박홍규(24회·왼쪽) 동문.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770㎞의 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동해, 강릉, 양양~속초, 고성의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색인 '파랑', '~와 함께'라는 '랑'을 조합한 합성어이다.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을 의미한다. 동해안의 좋은 길들을 하나의 길로 이은 것이다. 전체 길의 2/3는 해안과 어촌 길이지만 나머지 1/3은 내륙으로 들어간다. 해파랑길은 산과 들, 시골 마을들을 돌아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호미곶, 고불동, 추암 촛대바위, 영랑호를 거친 박홍규 동문과 일행.

코로나사태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뭔가를 해야 하겠다고 할 즈음 태기섭(27회) 후배에게서 안부전화가 와 "니 요즘 뭐 하노?" 하니 "코로나로 하던 일도 쉬고 해서 해파랑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며 "5코스까지 걷고 6코스 간다"고 해 쉽게 동행이 되었다.

박홍규(24회), 최진순(친구), 태기섭(27회) 3인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다(빠진 5개 코스는 쉬는 날 보충했다).

■3월17일 6코스 덕하역에서 태화강전망대(15.7㎞, 소요시간 6시간30분)

첫 시작부터 난이도 별 4개(많을수록 난이도 높음). 울산 해안길은 온산공단과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어 갈 수 없었고, 시내를 관통하는 산길 코스를 택했다. 수많은 계단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태화강가의 전망대에 도착하여 확인 스탬프를 찍고, 다음 코스의 출발점 태화강역(6㎞)까지 걸어 가 열차로 밤늦게 부산 도착. 첫날부터 정신없이 걸었던 길이었다.

그래도 첫 도전부터 힘든 코스를 하고나니 다음 코스는 쉽게 진행되었다.

지도상의 소요시간보다 대부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빨리 도착했다.

위로 갈수록 탄력이 붙어 하루에 2~3개 코스를 주파했다. 하루 40㎞ 이상씩 걷기도 했다. 몇 코스 걷고 내려와 그동안 밀린 일 처리하고 체력보강 후, 끝냈던 지점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 코스를 시작했다.

교통편은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1박, 2박, 3박을 여관, 텐트 등에서 해결하고, 식사는 취사, 매식을 했다. 30~40대 시절로 돌아가 모처럼 청춘을 즐겼다.

동해구간은 이틀에 6개 코스를 주파하기도 했다. 하루 2개 코스는 기본으로 걸었다. 코스 끝난 후 해가 남아 있으면 다음 코스를 어느 정도 걷고 어둑해지면 숙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속도로 진행하니 예상보다 빠른 기간에 완보를 할 수 있었다. 물론 도중에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시리도록 푸른 동해바다가 그리워져 또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었다.

코스 중간 중간 좋은 해변길을 두고 무리하게 산길로 돌려 지루한 코스도 있다. 한 두 구간은 코스를 보완해야 할 점도 보였다.

50코스 강원도 고성 통일안보공원에서 종착점 통일전망대(12.7㎞, 소요시간 3시간) 구간은 제진검문소(5.7㎞)까지만 걸을 수 있었다. 나머지 길(7㎞)은 민통선 안이라 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갈 수 없었다. 이곳에서 갈 수 있는 길이 갈 수 없는 길로 되어버린 것을 보고 분단의 현실을 실감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나머지 북녘 땅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3월17일 출발해서 6월13일 도착.(총 걸은 날 27일)

내가 걷기에 매료된 것은 7년 전 '21세기 조선통신사 한·일우정걷기 행사'(서울~일본 도쿄 1,158㎞, 격년 개최 2개월 연속걷기)에 참가했던 경험에 기인한다. 한국의 일부 구간을 일본 걷기회원들과 같이 걷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연령이 70대 중후반인데도 너무나 활기차게 잘 걸었다. 이를 보고 감명 받았다. 이어 일본 후지산 자락에서 조선통신사가 걸었던 옛길을 따라 도쿄(123㎞)까지 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걷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걷기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동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과 근력이 떨어져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는데 자연을 벗 삼아 걷는 것이 최고의 묘약이라고 생각한다.

내 70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해파랑길을 걸으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과 방식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돌이켜 성찰해 보고 다짐해 보았다. 길을 걸으며 많은 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길 위에 쏟아놓은 땀방울과 시간,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단단해진 건 사실이다.

이번 해파랑길 걷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 정말 극적으로 행해졌다. 절묘하게 시간과 날씨가 잘 받쳐줘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몰랐던 아름다운 곳을 발로 걸으며 느끼고 볼 수 있게, 곁에서 불평 없이 내조해 준 아내와, 특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온갖 궂은일을 다 하며 부족한 선배를 밀고 당겨준 태기섭 후배와 묵묵히 동행이 되어준 친구 최진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을 해냈다. 오륙도 앞에서 그날 막연히 출발했던 것이 아련한데, 오늘 갈 수 있는 길의 끝에 섰다. 770㎞ 그 먼 길에 뿌려놓은 내 땀방울들. 그 많은 땀방울들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내 삶은 훨씬 윤택해 질 것이 분명하다.

울진 후포항 바닷가에서 운명처럼 만난 신경림 시인의 시 '동해바다-후포에서'가 가슴에 울림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내 것'이 된 시를 되뇌고 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지난 6월 24일 열린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1주년 기념식 겸 정기모임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립 한 돌 떠오르는 '강서의 힘' 과시

강서지구동창회, 도약 위한 축배의 잔 들어

"떠오르는 강서의 힘을 한껏 표출한 행사였다."

지난 6월 24일 오후 강서구 명지동 쿠우쿠우뷔페에서 열린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1주년 기념식 겸 정기모임에 참가했던 동문들의 평가이다. 이날 강서지구동창회는 창립 1주년 기념식에 걸맞은 기획과 준비로 무르익은 결속과 우정을 확인하고, 도약을 위해 축배의 잔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서지구 회원 40명과 외부 인사 15명 등 55명이 참가했다.

김택영(26회) 강서지구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며 총동창회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부문에서 힘이 빠졌다. 건강에 유의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면서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강서지구가 회원 참여기수 폭이 커 전도양양한 지구가 되고 있다"면서 창립 1주년을 축하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총동창회관 개관의 의미를 설명하고, 회관 식당·카페 및 당구장 수익 증대에 동문들의 기여를 호소했다.

이 자리서 박성철 1수석부회장은 "동창회관 개관은 놀라운 쾌거였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하고 "조만간 강서시대가 도래한다. 집중적 발전이 예상된다. 이 같은 큰 기운을 받아 지구동창회와 총동창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진현(19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겸 총동창회관장은 "회관 운영 안착에 무한책임을 느낀다. 혼자서는 못 한다. 총동창회와 지구 및 지역동창회, 동기회 등의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기태(20회·강서구청장) 강서지구 고문은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고, 강서지구 창립 1주년에 즈음하여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강서지역 발전에 강서 동문들이 긍지를 느끼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김종규(31회) 강서지구 부회장의 긴급제의로 이뤄진 박 총동창회장 목말태우기 퍼포먼스였다. 건장한 후배기수들이 박 총동창회장을 받쳐들고 연회장을 한바퀴 돌았다. 총동창회관 개관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다.

1부 행사 끝으로 상기중(5회) 최고원로 동문은 건배사에서 총동창회관 건립과 강서지구 1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동문 모두의 건승을 기원했다.

2부 행사로 축하공연이 있었다. 김 부회장과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교련복 차림의 남학생과 여고 교복 차림의 여학생으로 각각 분장하고, 김 부회장의 차남 김경태 씨가 동문2세 자격으로 참가한 3인조 밴드공연이었다.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1주년 기념식 2부 축하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추억의 7080노래에 동문들은 무대로 나가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경품 추첨에 이어 교가 및 응원가 제창으로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기념선물로 고급 우산을 마련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참석자=△총동창회-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박성철(29회) 제1수석부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타지구동창회-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 조청래(45회) 〃 사무차장,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김경곤(38회) 〃 대외협력국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김병기(39회) 〃 사무국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 김태호(38회) 〃 사무국장 △강서지구 회원-김택영(26회·회장) 상기중 진도영(이상 5회) 노기태(20회·고문) 이동석 조병욱(이상 25회) 백영호(28회·부회장) 조광제 예영일(이상 28회) 김병기(부회장) 김종규(〃) 최주홍(이상 31회·〃) 김창범 이환용 이병훈(이상 32회·감사) 정세영 최성현(이상 33회) 정재형 이수관(이상 38회·사무국장) 배효민(39회) 김성준(44회) 박진수 이준호(이상 45회) 김백권 이진행(이상 46회) 최영수(47회) 윤호제(49회) 구민수(50회) 송상민 최우영 이정우 오건진 김영권(이상 51회) 정상중(52회) 이응배 우재준 황명수 문상인 박성영(이상 53회) 류태용(54회).

◇협찬=△총동창회 격려금 50만원 △박성철 제1수석부회장 20만원 △남진현 자문위원장 10만원 △남부산·동래금정·부산진연제·사하·해운대지구동창회 각 10만원·△강서지구-손부홍(15회·고문) 20만원, 김택영 30만원, 백영호 20만원, 김종규 10만원, 이병훈 10만원, 정재형 10만원, 이수관 10만원 △물품협찬-김성준 각티슈(6개입) 10개, 구민수 황성주 두유 3박스, 황명수 전복 2박스, 정상중 블루투스 탁상거울 2개.

강서지구 어울림행사 성료

강서지구동창회 어울림행사가 지난 7월 5일 낮 태종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택영(26회) 강서지구동창회장 내외를 비롯, 동문 14명과 가족 등 모두 32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9시 강서 오션시티 앞에 집결한 일행은 대형관광버스로 태종대로 이동하였다. 도착 후 사진촬영, 몸풀기 체조, 그늘 산행에 이어 태종사 수국 관람, 그리고 즐거운 해물 오찬 및 윷놀이와 시구콘테스트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 경품으로 최주홍(31회) 동문이 총 80만원 상당의 토르마린 침구 등을 협찬했다.

◇참가자(존칭 생략)=이동석(25회) 내외, 김택영(26회) 내외, 최주홍(31회) 산행대장 내외, 김종규(31회) 내외, 김병기(31회) 내외, 이병훈(32회) 감사, 이수관(38회) 내외, 박진수(45회) 내외+2남1녀, 이진행(46회) 내외+1남, 김백권(46회) 내외+남2녀, 구민수(50회), 최우영(51회)+1녀, 정상중(52회)+1남, 류태용(54회).

강서지구동창회 어울림행사가 지난 7월 5일 낮 태종대 일원에서 열렸다.

중부산지구 차기회장에 이영학(26회) 동문 선임

임기 내년 1월부터…당구대회 개최 결정

중부산지구 동창회 임시회의

중부산지구동창회의 차기 제3대 회장으로 이영학(26회) 수석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선임됐다. 임기 시작은 내년 1월이다. 지난 7월 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린 중부산지구동창회 임시회의에서 이 수석부회장이 추천돼 참가자 전원일치의 찬성을 받았다. 이날 임시회의는 회장 승계 절차를 위한 것으로, 임무홍(25회) 현 회장의 궐위를 대비한 것이었다. 임 회장은 라오스 특임대사로 내정돼 연말에 부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신의 신변 변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모교 가까이 중구에 총동창회관이 들어섰다. 중부산지구동창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중부산지구가 밴드가입 인원수 최다, 총동창회관 권역 등의 장점을 살리고, 조직력을 강화해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이 수석부회장은 "임철호(24회), 임무홍 두 역대 회장의 뒤를 이어 모임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소 답보상태인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때이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동문들이 봉사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산지구는 이 자리서 당구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안풍(28회) 부회장이 행사를 주도하도록 했다. 이날 김종오(36회) 사무국장이 제작한 5분짜리 동영상 경과보고는 새로운 형식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당 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은 1층 카페에 마련된 만찬을 들고 환담을 즐겼다. 동창회관 인근의 쓰리몽키스(홍민호 49회 동문 운영)에서 뒤풀이도 가졌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참석자=오영은(6회) 강부덕(20회) 임철호(24회) 서보민 임무홍 장세훈(이상 25회) 이영학(26회) 안풍(28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권인근 김세정 오문세 이원우(이상 35회) 김경찬 김종오 김창일 성귀호 손광성 이선우 전영목(이상 36회) 김형권 손봉상(이상 37회) 김언규 김태호 노재완 박이현(이상 38회) 이정삼(40회) 성찬기 안광근 윤성한(41회) 김현오 박동식 송정열(이상 42회) 김영휘(43회) 김형준 이부교 정영인 진성재(이상 44회) 권우일(45회) 육한수(46회) 곽정택(47회) 홍민호(49회) 송병우(50회) 양현진(54회) 오정환(59회) 신주용(63회) 이동현(70회). 총동창회 사무국팀 참가.

중부산지구동창회 임시회의가 지난 7월 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남부산지구동창회가 지난 7월 15일 권역을 벗어나 총동창회관에서 원정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관으로 원정모임 가세나"

남부산지구동창회, 권역 벗어난 파격

남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 7월 15일 오후 부산 중구 소재 총동창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15일 신년회 개최 이후 6개월 만의 모임으로 남부산 권역을 벗어난 파격이었다. 총동창회관 둘러보고 회원 얼굴도 보고 직영 식당 매상도 올린 소위 '1타 3피'의 즐거운 '첫 원정'이었다. 물론 궂은 날씨에 먼 길이라 참석자는 20여명에 그쳤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의 부재로 김정헌(36회) 수석부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한다. 동문들의 긍지를 모아 회관 개관으로 이끈 총동창회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동문들이 내 집처럼 끊임없이 많이 방문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개관 기념품 마케팅을 한 뒤 축사에서 "우리 동문회는 회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올라갈 일만 남았다. 동창회관은 1,700동문의 정성이 녹아 있고, 60여 동문이 리모델링에 참가한, 동문의 힘이 합쳐져 이룩한 명작이다. 회관을 통해 동문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이제는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율 증가에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모임에 처음 참석한 장지훈(55회) 동문은 "우리집에 온 느낌이라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식사 후 '1942KN' 카페에서 환담을 나누었다. 동창회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인근의 '옛날통닭'(황귀웅 45회 동문 운영)에서 치맥으로 뒤풀이 하였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이종휘 회장은 참가자들에게 머그컵 2개씩을 선물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3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찻값 일체를 찬조했다. 이날 행사에 총동창회 사무국팀과 박근태(39회) 집행위부회장이 참석했다.

◇남부산 참석자=박인평(29회) 장정석(33회) 김종만(33회) 김정헌(36회) 정병기(36회) 최보식(39회) 박용한(39회) 한수열(40회) 정용중(42회) 최상배(45회) 조청래(45회) 최재근(45회) 감기환(47회) 김석훈(50회) 오성진(51회) 문희규(53회) 고지현(54회) 장지훈(55회).

지구동창회장단, 총동창회관서 단합대회

지난 6월 12일 오후 지구동창회장단 단합대회가 총동창회관 '1942KN'식당에서 열렸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고 개관식 전 조용한 때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 5월 20일 남부산지구 주최로 열렸던 지구회장단 연합모임에서 결의한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단합의 시간갖기 첫 행사였다.

이날 참석 지구동창회 회장은 임무홍(25회) 중부산지구, 김택영(26회) 강서지구,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최승호(36회) 사하지구 회장이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총동창회 지구회장단 단합대회가 6월 12일 총동창회관 '1942KN'식당에서 열렸다.

매주 수요일 '상시 주중 산행' 펼쳐

울산지역동창회, 선후배 접촉 기회 늘리려 기획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상시 주중 산행'을 기획, 시행하고 있다. 이는 평소 만나기 쉽지 않은 선후배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낮 시간 무더위를 피해 오후 6시 30분에 집결하며, 거주지별 또는 취향별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문수산, 무룡산, 태화강변 걷기 등을 한다. 당일 회비는 1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7월에는 8, 15, 22, 29일 4차례 행사를 가졌다. 8일 태화강변 걷기, 15일 무룡산 야간산행, 22일 태화강변 걷기, 29일 울산대공원 걷기를 실시하였다.

무룡산과 문수산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언덕을 오르는 기분으로 가볍게 갈 수 있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태화강변에서는 울산의 숨어 있는 비경을 만날 수 있다. 지난 7월 22일 태화강변 걷기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야생화 감상으로 환상적 분위기였다고 한다.

지난 7월 29일 울산대공원에서 걷기를 한 박철종(36회), 최경침(31회), 허재원(43회), 이현(44회) 동문(왼쪽부터).

경양회 "얼굴 잊을라, '번개'라도 하자"

경양회(경남중고 양산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 2일(목) 오후 소정식당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다. 박경수(31회)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가라앉은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동문 얼굴 보기가 목적이었다.

경양회는 지난 7월 2일 코로나19 극복과 동문 얼굴 보기를 위한 번개모임을 가졌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6월 13일 예정된 산행 대신 당구대회로 동문 화합을 이어갔다.

우천으로 산행 못하자 당구대회 열어

김해지역동창회

김해지역동창회(회장 차의수·29회)는 지난 6월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분성산 편백숲 산행을 기획했다가 우천으로 당구대회로 일정을 급하게 변경했다. 에이스당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마창아구찜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김해당구동호회는 이상운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당구동호회장은 "앞으로 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지며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윤기가 나는 모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 이상운(23회) 조판제(25회) 박광수 박준모 차의수(이상 29회) 황성철(31회) 박원곤(32회) 김규선(36회) 김기덕(37회) 손옥명(40회).

호치민지역동창회 정기모임이 지난 5월 30일 열렸다.

코로나19 부담 줄어 심야까지 즐겨

호치민지역동창회

지난 5월 30일(토) An Phu Plan K / Mekong Merchant에서 9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호치민지역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베트남은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내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 거리두기 및 마스크사용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주재원 부임 5년차였던 강석주(59회)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총동창회 회관 완공소식과 더불어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며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조일래(30회) 김성준 옥종훈(33회) 김태원(38회) 정진훈(39회) 신창훈(41회) 이정훈(52회) 강석주(59회) 김민성(64회)

동창회보 축쇄판 4집 발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역사 읽을거리를 판매합니다.
2003년의 제3집 이후 17년 만에 무려 1200페이지의 축쇄판 제4집(회보 301호부터 400호까지 수록)을 발간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1-253-7788
FAX : 051-255-7787
E-mail : yongma2007@hanmail.net

경미회 족구대회가 지난 6월 13일 금정산성 마을에서 열렸다. 단합되고 힘찬 모습에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읽게 했다.

총동창회의 든든한 미래 보여주었다

경미회 족구대회, 기념 T셔츠 입고 결속 과시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미래를 여기서 보았다."

지난 6월 13일 낮 금정산성마을 물레방아가든에서 열린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제2회 족구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한 관전평이다. 수중전으로 예상했던 족구대회는 비 그친 흐린 날씨 덕에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미회 회원들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사비로 마련해 선물한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 T셔츠 4가지 종류를 4개 분과위원회별로 나눠 입고 출전, 한결 단합과 결속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이날 족구대회는 경미회 집행부 1팀, 4개 분과위원회 각 2팀, 총동창회 집행부 1팀 등 10개팀이 토너먼트식으로 승부를 겨뤘다. 우승(상금 50만원)은 친목교류분과 A팀이, 준우승(상금 30만원)은 총동창회 집행부가, 3위(상금 20만원)는 미래분과 A팀이 각각 차지했다. 친목교류분과는 사회공헌분과와 모의훈련(?)을 한 덕분에 팀워크가 좋아 패권을 차지했다. 총동창회 집행부는 총동창회관 개관의 기(氣)를 받은 듯 의외의 노익장(?)을 과시했다.

시상식 및 한마당 잔치에서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참가자들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비가 예고됐는데 날씨가 좋아 운동하기 안성맞춤이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찬조한 T셔츠로 행사 분위기가 한결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회가 더 잘되도록 열심히 하고, 총동창회 일에도 열심히 하여 총동창회가 잘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제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단체가 경미회이다. 동문회는 미래를 보고 간다. 40회부터 54회까지 참여 사실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2수석부회장은 "경미회 여러분들에게서 '젊은 경남'의 열기를 느꼈다. 든든한 미래를 보는 것 같다"면서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해 얼굴 익히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은 "앞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총동창회를 내가 이끌고 간다는 생각들이 뭉쳐져야 한다.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경미회 임원진 변화가 발표됐다. 최영준(42회) 사회공헌분과위원장이 차기 회장직을 맡을 수석부회장에, 사회공헌분과위원장에 김영휘(43회) 동문이 추천됐다. 최원석((46회) 동문이 감사로 지명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미회는 오는 8월 15~16일 진하해수욕장(더 케이 콘도)에서 1박2일 첫 야유회를 갖는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100만원과 족구대회 상금 30만원을 경미회에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의 T셔츠 찬조는 130만원대이다. 남 동창회관장과 김 2수석부회장, 류명석(31회)·허부남(37회·불참) 집행위부회장도 각각 금일봉을 전했다.

◇경미회 회원 찬조 내역=△우영환 회장-족구대회 시상금 100만원 △대외협력분과-이양걸(41회) 모자 35개(동창회관 기념상품), 권우일(45회) 행사 플래카드 3장, 정신(47회) 50만원 △친목교류 분과-전삼록(41회) 모자 35개(동창회관 기념상품) △사회공헌분과-최영준(42회) 수석부회장 50만원, 박동식(42회) 30만원 △경미회 45회 동기(김상수 조태성 구자삼 권우일 손창오 조청래 최상배) 일동 45만원.

경미회 4개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분과별로 디자인 색이 다른 옷을 입고 족구대회에 나섰다.

경미회 족구대회 뒤풀이 모습.

제22회 용마골프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대 회 명 : **총동창회장기 제22회 용마골프대회**
2. 개최일정 : **2020. 9. 14. (월) 오후 1시30분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3. 참가인원 : 각 기별, 지역 제한 없이 예상 참가조 선착순 36개조(144명)
   각 기수는 1조 4명 신청함을 원칙(추가 신청 조는 마감 후 추후 배정)
4. 참가신청 : **총동창회 사무국 : 051-253-7788, 010-8452-7551, FAX 051-255-7787**
5. 신청마감 : 입금 및 신청 명단 제출 **2020. 8. 24. (월) 오후 4시까지(입금으로 신청 인정).**
6. 참가회비 : 각 개인 참가비 : 40,000원(단체전, 개인전 구분 없이 1人당)
   참가비 용도 : 식대 40,000원
   ※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3-6717-04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송금 시 의뢰인의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경비 : 1) **그린피**(카트비 포함) **※ 비회원 그린피는 160,000원** 입니다.
   2) **캐디피** : 1조당 120,000원 (4명)
   3) **그늘집** : 각 조 개인 부담
8.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우승·준우승·3위
   ※ 기별 참가자 중 BEST SCORE 3명 합산하여 순위 결정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A조 : 1~34회, B조 : 35회 이후
   ⊙ 우승·MEDALIST·준우승·3위·LONGEST·니어 핀 (A, B조 각각 시상)
9. 시상방법 : 1) **시 상** : ① 단체전 : 기 3개 및 상품 (우승·준우승·3위)
   ② 개인전 : 상패 12개 및 상품 (우승·MEDALIST·준우승·3위·LONGEST·니어)
   2) **홀인원**(벤츠 승용차, 유재진 동문제공 협의), 이글 특별 시상도 있음
   3) **상 품** : 입상자 전원에게 부상 시상
10. 행운권 추첨 : 당일 단합회식 때 행운상품 추첨 후 시상
11. 진행시간 : 1) **오후 1시30분, 18개 전 홀에서 동시 Tee Off (shotgun방식)**
   ※ 낮12시까지 필히 도착·등록(접수), 단체사진 오후 1시
   (*점심은 각자 해결)
12. 시상식 및 식사 : 당일 **오후 7시**부터 (식사는 주최측 부담) - 골프장 내 3층 이벤트홀
13. 폐 회 : 당일 **오후 9시30분** 예정

◆ 용마골프대회 관련 연락은 총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
사무국폰 010-8452-7551 또는 신승렬 사무국장(36) 010-5224-1884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작 만들어낸 자부심…'찬, 찬, 찬' 축배

용건회 정기모임…총동창회관 성공적 리모델링 자축

"총동창회관은 우리들 손으로 만든 '명작'이란 자부심으로 가득찬 행사였다." 지난 6월 18일 총동창회관 내 '1942KN'식당에서 열린 용건회 정기모임을 관통하는 분위기를 말한다.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이틀 앞둔 이날은 건설인의 날이기도 해 뜻깊었다. 행사는 용건회 회원 개인과 건설인을 위한 박수로 시작했다.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들어 두 번 연기했던 행사를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앞두고 열어 그 의미가 크다. 향후 100년 총동창회를 지킬 이 자리를 우리 용건회 동지들이 땀흘려 이뤄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케팅 차원에서 '1942KN' 로고가 새겨진 T셔츠를 입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총동창회관은 동문 공동 소유의, 우리 모두의 집이다. 용건회 동문들이 엄청나게 일 많이 했다. 용건회가 만든 작품이란 자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관 마련 기금의 조성 내력과 회관 운영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박 총동창회장, 장상진(16회) 용건회 고문,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류종우(18회) 용건회 고문이 차례로 총동창회와 용건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다. 특히 류 고문은 "인생은 공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인연이 되어 만난 우리이다. 흥겹게, 자유롭게, 기쁘게 더 자주 만나자"고 역설했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공동책임시공자인 이양걸, 전삼록 41회 동문의 소회를 들어봤다. 이 동문은 "무거운 마음에서 출발했다.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전 동문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멋진 동창회관을 만들어낸 올해 정말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당 의자 기부자 김백권(46회), 동창회관 입주자로서 각종 광고물 제작을 맡은 권우일(45회) 동문의 감회도 들었다. 한마디로 '영광스럽다'였다.

참석자들은 회의 종료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었다. 박 총동창회장은 카페 찻값 일체를 찬조했다.

◇참석자=장상진(16회) 류종우(18회) 이규봉(23회) 이영학 이광태(이상 26회) 김정규(29회) 이원용(30회) 박성철 장기호 정현상(이상 32회) 이석희(33회) 박철웅(34회) 제명환(36회) 백기현 이원영(이상 39회) 김인수 전삼록 이양걸 김영철 황정후 한창희 김신욱 이종우(이상 41회) 박형규(43회) 안병규(44회) 조청래 권우일(이상 45회) 김백권(46회) 이충현(49회) 신현식(51회) 김광호 김권우(이상 53회) 외 총동창회 사무국팀.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회원들의 공이 컸던 용건회가 지난 6월 18일 '1942KN'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등대회, 골프모임·학술세미나 개최

이사회 및 간사회서 올해 하반기 사업 확정

"반년 만에 보는 얼굴, 반갑기 그지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모임이 없었던 등대회 회원들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총동창회관 '1942KN' 식당에 모였다. 등대회는 이날 올해 첫 모임행사로 이사회 및 간사회를 가졌다. 하반기 사업계획과 모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행사였다. 짓궂은 날씨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참가자는 10명 남짓했다.

안청홍(29회) 회장은 "금년도 첫 공식 모임을 열게 돼 매우 기쁘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모임을 자주 갖자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총동창회관에서 모임을 갖게 돼 뜻깊다. 총동창회관은 모교 재학생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야말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면 많은 동문 회원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대회는 이날 하반기 사업으로 소모임 활성화와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논의했다. 등대회 내 골프모임은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등산모임은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실행하기로 했다.

학술세미나는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2명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짤 계획이다. 주제는 회원들에게 실무적이고 실익이 되는 내용으로 주문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책자로 발간한다. 세미나를 마치고 '1942KN'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등대회가 올해 첫 모임행사로 이사회 및 간사회를 지난 7월 10일 '1942KN'식당에서 열었다.

등대회는 이날 후배기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원 찾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종동창회에서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등대회)=김성권(24회·고문) 안청홍(29회·회장) 노경보(33회) 채인석(35회) 안광근(41회) 장시호(43회) 정하윤 신동준(이상 47회) 강대근(48회) 김지원 유상일(이상 51회).

용마산악회가 산행을 못하자 회원 간 만남의 갈증을 번팅으로 해소했다.

산 못 탄 갈증 풀려 '오아시스'에?

용마산악회, 산행 대신 '번팅'

지난 2월 방태산 등반 이후 산행이 중단된 용마산악회가 회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뜻에서 '번팅'을 하였다. 지난 6월 실시키로 했던 100대명품산행마저 취소되어 만남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지난 6월 5일(금) 오후 7시 양정 단골집 '오아시스'에서 열린 용마산악회 번팅에는 13회부터 51회까지 모두 28명 참석했다. 산사나이들의 넉넉한 품성만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날 용마산악회 김법영(33회) 회장과 서석권(35회) 수석부회장의 찬조가 있었다.

용마코러스가 제9회 부산사람 이태석기념음악회에 3회 연속 특별출연하면서 호평을 받아 매우 고무되어 있다.

"용마코러스, 소리가 젊어졌다"

이태석기념음악회 특별출연…호평 받아

지난 7월 24일 오후 부산문화회관에서 제9회 부산사람 이태석기념음악회가 열렸다. 경제난과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음악으로써 위로와 안식을 선사한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었다. 이날 음악회는 선종 10주기를 맞은 고(故)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그의 삶을 추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 이 신부는 35회 졸업생 동문이다.

이날 음악회는 오충근 예술감독의 지휘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설은경·정혜욱 두 소프라노와 테너 김성진, 바리톤 김종표의 아리아와 가곡 연주가 펼쳐졌다. 첼리스트 이일세의 브루흐 작곡 '신의 날' 작품47 연주도 있었다. 이날 연주자들은 모두 재능기부 출연이었다.

세 번째 이 음악회에 특별출연한 용마코러스(단장 최상규·31회)는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병사들의 합창'과 이주호 작곡 '사랑으로'를 불러 갈채를 받았다.

이날 피날레곡은 이 신부 작곡 '슈크린 바바'로 연주자들이 모두 나와 관객들과 함께 불렀다. 슈크린 바바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수단어이다.

용마코러스는 이날 오 예술감독으로부터 "목소리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젊은 동문들의 참가가 늘어 소리가 힘이 있고 윤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연주에는 31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용마코러스는 단원 50명을 1차 목표로 단원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용마코러스는 오는 11월 24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용마코러스가 이태석기념음악회 공연 전 관람 동문들의 격려 속에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날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비롯, 사무국팀이 음악회를 관람했다. 총동창회는 용마코러스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특별출연에 참가한 단원은 다음과 같다. △테너 Ⅰ-장준식(20회) 최상규 김형수(31회) 박근태 안승진(이상 39회) 김황 최헌(44회) 노재훈(50회) 황진혁(51회) △테너 Ⅱ-안창범(18회) 안병규 문형준 탁정환 최현덕(44회) 김현윤(58회) △베이스-김태근 정용식(31회) 전상건 손수범(이상 35회) 심재민(38회) 김병기 노성수 백기현(39회) 김동원 신봉준(이상 42회) 박형규(43회) 주형기(45회) 조성빈(47회) 김석훈(50회) 김영권 이시원(51회).

백구의 향연 대신에 쓰리쿠션 '탁!' 즐겨

덕형리그, 제1회 회장배 당구대회 개최…광38야구단 우승

모교 운동장에서 매주 백구의 향연을 벌이던 덕형리그 회원들이 실내 녹색 테이블필드를 달렸다. 코로나19사태로 올해 경기 일정이 장기간 멈춰지자 갑갑함 해소와 치솟는 에너지 분출 방안으로 당구대회를 열었다. 지난 7월 25일 총동창회관 2층 덕형리그사무실과 KN당구장에서 열린 제1회 덕형리그회장배 당구대회 및 대표자회의는 회원 단합과 우정을 공고히 하고 확인하는 행사였다. 물론 총동창회관 개관 축하도 겸했다.

이날 당구대회에는 13개 야구단에서 총 5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A, B 두 조로 나뉘어 풀리그 예선전을 치르고 4강팀을 결정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광38야구단, 준우승 용마36야구단, 3위 야우29야구단, 4위 포원41야구단, 행운상 51회야구단이 각각 차지했다.

이문열(29회) 덕형리그 회장은 인사말에서 "답답한 분위기가 이번 대회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덕형리그 단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선전 도중에 이 자리를 방문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덕형리그가 동창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당구장 수익은 용마장학회에 귀속돼 모교 지원에만 쓰인다.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1층 '1942KN' 식당과 카페에서 대회 개최 축하연을 가졌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외 사무국팀이 참관했다.

◇대회 참가자=△야우29야구단-이문열 박기찬 장현경 조대제 현응열 △33야구단-박상국 김윤성 김일 이동근 김종욱 장정석 이훈 박근보 박은호 △용마36야구단-김한교 이학수 정병기 박재영 임창섭 △37드레곤즈야구단-박종식 탁낙준 정재호 차기완 이찬영 박준호 △광38야구단-김경곤 김원철 장광훈 신동훈 최성환 곽동열 손공 박정민 △40A,B(포티스,해피홀스)야구단-김동근 신영석 노인철 정원칠 안성호 박기엽 김준우 이기 김근영 이성배 △41포원야구단-강훈 김득수 전삼록 장익조 김신욱 △44회야구단-석상봉 △47회야구단-서정민 △51회야구단-손현직 △52회야구단-한중현 △53회야구단-황명수 김재환 이응배 △구형야구단-박형규(43회).

◇찬조 내역=△조석태(38회) 덕형리그 부회장-실내공기청정기 △박정민(38회) 광38야구단-진공청소기 △김정수(37회) 드레곤즈야구단-해산물 △김경곤 사무국장·강훈 경기이사-차량용공기청정기.

제1회 덕형리그회장배 당구대회 및 대표자회의가 지난 7월 25일 총동창회관 2층 KN당구장에서 열렸다.

경중·경고 야구부 선수 "나도 선배처럼"… '꿈' 키운 회관 견학

총동창회관 미니역사관 방문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지난 6월 26일 총동창회관을 방문하고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과 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남중 야구부 선수단이 6월 26일 김상욱(53회) 감독의 인솔로 총동창회관을 방문, 남진현 동창회관장의 격려의 말을 듣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남중·고 모교 야구부 선수단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총동창회를 각각 방문했다. 각 선수단은 6층 강당에서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으로부터 격려의 덕담을 들은 뒤 미니역사관을 비롯한 동창회관 내부를 관람하였다. 특히 미니역사관 내 야구부 역사 게시물 앞에서는 선배 야구 스타들의 활약상을 훑어볼 수 있었다. '나도 선배처럼'을 생각하면서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남 동창회관장은 경남중·고 각 선수들에게 "많이 뛰고, 많이 자고, 많이 먹어라. 무엇보다도 감독님의 지도를 잘 받고 기본기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꿈을 가지되,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땀을 흘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용기를 북돋웠다.

이날 총동창회는 각 선수단에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신입생 6월에 첫 등교

지난 6월 3일(수) 오전 경남고 교정. 코로나19 여파로 입학식도 없는 첫 등굣길의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어서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

경남고 학생회와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동아리는 부산 서구청에 마스크와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마스크·상품권 등 기증 선행

경남고 학생회·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동아리

경남고(교장 정대호) 학생회와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동아리(지도교사 조영택) 대표 학생들이 지난 7월 2일(목)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을 방문, 마스크 768장과 온누리상품권(51만원) 등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행으로 후배 용마들의 반듯한 인격적 성장 과정을 엿보게 해 선배 동문들의 미소를 짓게 했다.

기증 과정을 살펴보면, 등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기증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다. 학생회와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1인 1마스크 기증하기' 캠페인이 시작됐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소상공인 돕기 전통시장 체험활동용 온누리상품권(1인당 5만원) 중 일부를 학생들이 기증했다.

이번 기증의 중심이 된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동아리는 모교 35회 졸업생인 고(故)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공헌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자는 취지로 2017년에 조직되었다. '자원순환프로젝트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이 동아리는 우유팩 1kg을 모아오면 화장지 1개로 교환해주는 부산 서구청의 자원순환 정책에 적극 호응, 2017년부터 '우유팩모으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교환 화장지는 이태석신부 생가 근처의 독거노인들께 기증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교환된 화장지 400여개를 기증했다. 또 폐의약품도 수거하여 서구보건소에 연 4회 제출하고 있으며, 이면지 재사용하기,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한 자원순환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이효승(2학년) 학생은 "지구온난화나 환경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의 극복은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자원순환프로젝트가 유용한 대책의 하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중, 등하굣길 교통안전 수칙 발표

경남중(교장 김미정)은 지난 7월 21일 등하굣길 교통안전 수칙을 제정하여 교지 '용마소식'을 통해 발표했다. 경남중이 교통안전 수칙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문 앞 도로에 양방향 주차, 양방향 차량 통행 등으로 등하교 시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때문이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수칙을 보면, 통학차량 및 자가용 이용 경우 학교에서 떨어진 길에서 안전하게 하차토록 하고, 교문 앞 자가용 진입을 금지했다. 교문 안에서의 하차, 회차 금지는 물론이다. 도보로 등하교할 경우 반드시 신호등을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했고, 길거리 휴대폰 사용을 삼가 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이용 경우에는 학교 정문을 이용케 했다. 그리고 자전거 등하교는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장은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회,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13회 (울산)동지회 = 월례회

울산13동지회 월례회가 지난 7월 25일(토) 울산 남구 삼산동 '외식명가'에서 열렸다. 울산 거주 이태남(부동산임대사업·전 이화서림 대표), 조광수(전 대한해사검정공사 전무), 조준탁(동강병원 명예원장·노인전문병원 원장) 동문과 대구에서 온 조성호(전 대구가톨릭대 부총장) 동문 등 4명이 참석했다. 창원 거주 이병한(치과전문의) 동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 5인 모임의 정식 명칭은 '在蔚慶南中·高13同志會'(재울경남중·고13동지회)이다. 매달 13일 울산에서 모임을 갖는다. 1972년 결성돼 초창기 회원수가 13명에 달하기도 했다.

참석자: (사진 오른쪽부터) 이태남 조성호 조준탁 조광수

17회 산악회 = 제1199차 정기산행

지난 6월 21일(일) 엄광산 언저리 녹음 속 산행으로 도시철도 서대신동역에 모여 꽃동네까지 마을버스로 이동. 내원정사를 둘러 대동, 석탑, 옥천, 꽃마을샘터에서 박재구 동기와 조우해 초량으로 내리는 완만한 코스. 녹음 속 시원한 숲 바람 산행이 상쾌하다. 1200회 산행은 봄에 못한 동기회 야유회 모임과 같이 9월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초량6동 금수사 부근 초량이바구길을 지나 박청홍 회장이 딸 혼사 턱을 쏘아 모두 얼큰하게 취했다.

참석자: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청홍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건우 하영수

18회 동기회 = 바둑대회

지난 7월 23일(목) 서면 유원오피스텔 19층 동기회관에서 바둑대회를 하였다. 경기를 마친 후 녹산횟집에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9회 동기회 = 동창회관 방문

지난 6월 19일(금) 오후 동기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동창회관 '1942KN' 식당에서 정례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관 개관식 하루 전날 사전방문, 건물 전체를 둘러본 뒤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회 동기회(재경) = 수타사 야유회

지난 7월 12일(일) 수타사 유원지 트레킹을 다녀왔다. 오전 8시10분 복정역 출발, 9시50분 수타사유원지 정류장 도착. 약간의 바위, 풀밭, 논두렁과 야산이 어우러진 시골길의 정취를 만끽했다. 1시간 30분의 트레킹을 끝내고 통일신라 성덕왕 시절 창건된 수타사를 둘러보고 홍천읍에 소재한 양지말화로구이집에 도착했다.

〈기사 38면에 계속〉

28회 동기회 소모임 활동 활발

28회 동기회가 활기를 찾으면서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다. 최근 바둑, 골프, 당구 분야 소모임이 꽤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다. 박종기 동기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29회 형석회와 교류전

○…28회 바둑사랑회는 지난 7월 4일 서면 부전기원에서 29회 형석회와 교류전(사진 상)을 벌여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다. 진행 심판장은 이관선(28회) 동문이 맡았다.

◇참가 선수 : △28회=박래섭 이원표 김용섭 최태열 이승준 박임철 최경해 이만수 김정유 김부윤 이승열 박재훈 양동욱 △29회=강성훈 이영태 김대욱 김영훈 서석철 이석근 박장철 박봉구 박기찬 정길.

상주에서 15년 만에 경부전 열어

○…28회 골프동호회인 '28골우회'와 '재경28골프회'는 지난 6월 27~28일 양일간 경북 상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15년 만에 경부교류회를 개최했다(사진 중). 부산본부 28골우회에서 14명, 재경 28골프회에서 10명 등 24명이 참여했다. 28골우회(회장 박종기)가 주관을 맡았다.

김용진 경기위원은 3학년 때 같은 반 출신끼리 조를 편성, 학창시절의 추억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노영현 동기는 산성막설리를 공수, 고향의 맛을 재경동기들에게 선사했다. 만찬 시에는 김용진, 이만수, 엄재홍 동기가 양주를, 구영소 동기가 디저트와 간식을 찬조했다. 이 같은 마음씀씀이가 세월만큼이나 잘 익은 우정을 확인케 했다.

둘째 날 본부동기회 제공 오찬을 함께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김태영 재경28동기회장과 유태준 재경28골프회장은 인사말에서 "참 즐거웠다.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본부동기회의 준비와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총동창회관 당구장, 28회가 마수걸이

○…지난 6월 6일 오후 총동창회관 2층 KN당구장은 28회 당구 동호인들로 붐볐다. 28회 경부친선 당구대회가 열렸다(사진 하). 동창회관 개관 2주 전이나 경기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28회가 공식적으로 신품 당구대를 사용하는 마수걸이였다. 부산본부에서 18명, 재경동기회에서 14명이 출전, 교류전 사상 가장 많은 32명이 참석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친 단체전과 개인전 결과, 재경동기들이 36.5 승점을 얻어 29.5점을 모은 부산팀에 승리했다.

조광제 회장은 "총동창회서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28당구회는 이날 이후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모임을 갖고 있다.

〈글·박종기 편집위원〉

미국·캐나다 아우르는 '30회 북미 모임'

회장 허정택, 총무 이영재 동문

미국 켈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허정택(30회·사진) 동문이 30회 북미지역 동기회 명단을 보내왔다.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경남중고 용마인 동문이자 동기생이라는 인연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30회 북미모임은 3년 전 라스베가스에서 첫 행사를 가졌다. 회장 허정택, 총무 이영재 동문이 맡고 있다. 올해 하와이 단합여행까지 계획 잡았으나 코로나19사태로 불발돼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30회 북미지역 동기회 명단

이름(반)	거주지	이름(반)	거주지
강대영(10)	캐나다	이춘호(3)	미국
김찬석(8)	미국	이형렬(9)	미국
김 청(9)	미국	정예성(5)	미국
김 현(10)	미국	지용주(1)	미국
박용배(3)	캐나다	차민영(5)	미국
박인성(9)	미국	차정환(1)	미국
사창환(3)	미국	최임수(8)	캐나다
양윤종(2)	미국	추태명(10)	미국
이연재(2)	미국	허정택(7)	미국

<37면에 이어서>

화로구이를 먹고 오후 2시 40분에 출발, 5시 45분에 복정역에 도착해 헤어졌다. 정철화 동기 50만원, 최광훈 동기 20만원 찬조. 10월 하순경 포천 산정호수 트레킹 계획.

참석자: 윤명한 이상만 정순창 등 세 부부와 고광호 권정덕 김인선 박양조 오태수 유문환 이복춘 이시성 이종선 이철원 정철화 최흥표.

20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6월 26일(금) 오후 6시 더파티 서면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 동기회장에 강석근, 사무국장 김세준, 감사 허남균 동기가 각각 선출되었다.

참석자 : 강석근 강영환 김두영 김세준 김조동 노기태 류영덕 박기상 박병관 박병천 박재인 신현석 오경석 우철성 이실근 이종열 임지성 장병호 장춘식 정세현 정승창 최장하 탁성식 표문량 표문배 허규판 허남균.

21회 삼수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서면 숯불갈비에서 12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삼수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2차 호프 비용은 이익규 동기가 찬조하였다.

24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24일(수) 오후 6시 3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삼송초밥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2019년 송년회 이후 첫 동기회 모임이었다. 2년간 동기회장으로 봉사한 노상우 고문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졸업 이

후 동기회에 처음 참석하는 동기(서정득, 신병현)의 인사 및 소개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 : 강종문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동운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해성 배재일 서정득 신병현 안상수 여철우 옥태인 이재능 이현우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한종 조영태 주점권 차동렬 최명진 최원주 최창림 태창업 하재갑 황성훈.

24회 산우애 = 정기산행

지난 6월 6일(토) 16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오륙도 관광안내소~이기대 갈맷길~신선횟집 구간으로 6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20년도 시산제 이후 4개월 만의 산행이었다.

참석자 : 곽두희 김도현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박홍규 이현우 배재일 손세영 장수현 장현동 정영환 최원주 태창업 황규선

24회 이사빌 = 7월 월례회

지난 7월 12일(일) 오후 2시 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중앙동 플라틴당구카페와 꾸지뽕삼계탕에서 이사빌 7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는 우승 이재능, 준우승 김경남 동기가 차지했다.

참석자 : 김경남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이재능 임덕철 주점권 최우림 황성훈

24회 후라회 = 월례회

지난 6월 11일(목) 오후 6시30분 1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성문식당에서 6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동장 미개방으로 야구 연습은 실시하지 못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박홍규 장한종 장현동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황성동

25회 산우회 = 7월 정기산행

지난 7월 12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황령산 둘레길 2차 산행을 다녀왔다. 1차 산행은 10명 동기가 6월 14일 다녀왔다.

2차 참석자 : 김구화 김용수 노태호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제영성 탁준길 황곤태

26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7월 26일(월) 200㎜ 폭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18명의 동기가 함께 모여, 총동창회관 구경과 가정식 집밥(갈비찜+반계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 : 김선일 김정곤 김종우 김지승 김택영 성백운 송진성 왕정일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 이영학 정인수 정철주 최윤림 최의수 하원규

26회 동기회 = 제1차 에코투어

지난 7월 4일(토) 이광태 회장의 염원과 꼼꼼한 준비로 많은 동기와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에코투어를 다녀왔다.

<기사 39면에 계속>

〈38면에 이어서〉

물금-요산 김정한 소설 '수라도' 문학현장 탐방으로 용화사, 임경대를 다녀왔다. 이 회장이 간식 및 그림카드와 50만원을, 권종대, 김영훈, 이상원, 이영학, 최수일, 최윤림 동기가 10만원씩 찬조하였다.

참석자: 권종대내외 권해국 김상현 김종우 박만식 박재창 송진성 신형진 왕정일 유봉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내외 이영학내외 정인수 최수일내외 최윤림 최의수 하길태내외.

27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6월 14일(일) 12명의 동기가족이 모인 가운데 일광산 둘레길 산행(353차)을 다녀왔다.

참석자 : 박찬석 박현호 방문성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내외 이성득 이종찬 이헌 장기남 홍종만

28회 울산동기회 = 정기모임

7월 20일(월) 오후 7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송림 생오리'에서 올해 첫 28회 울산동기회가 열렸다. 서로 안부와 근황을 물으며 오랜만의 만남을 즐겼다.

참석자 : 김옥성 박종기 배명철 신중현 이승열 이양훈 하재근

29회 삼목회 = 삼목회장배 Scotchgame 대회

지난 5월 30일(토) 오후 2시 코로나19 극복기원 2020년 삼목회장배 Scotchgame 대회가 12팀이 참여한 가운데 수영센텀 당구클럽(유토피아호텔 2층)에서 열렸다. 우승 오경호 정길 동기, 준우승 박장철 이영태 동기, 3위 노승환 박광우 동기가 각각 차지했다. 매너상은 김영 동기가 수상했다.

참석자 : 김기영 김대욱 김상옥 김순기 김 영 김영화 김태완 노승환 박기찬 박광우 박봉구 박영환 박장철 백만호 서영학 송희태 오경호 오덕현 이범익 이영태 이충원 장현경 정길 정유성 최정만 허종 현응렬

45회, 경고에 장학금 2,460만원 전달

45회 동기회가 코로나19사태에 지친 동문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45회 장학회'는 지난 6월 1일 경남고 교장실을 방문, 정대호 교장에게 야구부 장학금 2,160만원과 신입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야구부 장학금은 본부동기회와 재경동기회가 각기 매년 360만원씩 모금, 선수 1명씩 선발해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2학년 투수 노운현, 1학년 포수 김범석 후배가 이 장학금을 받는다. 신입생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김상수 동기회장이 쾌척한 것으로 재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정대호 교장, 정광렬 야구부 감독, 45회 본부동기회장 김상수, 재경동기회장 나성태 동문 외 구자삼 김용주 박진수 동문 등이 참석했다.

30회 동기회 = 3학년3반 모임

지난 5월 29일(금) 대교횟집(서재원 동기 운영)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이태효 은사를 모시고 3학년3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이명건 동기회 회장, 박원호(울산 소재 신경외과 원장) 동기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2차 자리는 동기회에서 지원한 행사지원금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 : 권택술 김동준 김승대 김인수 김효수 명호준 박병하 박영홍 박원호 박인달 서재원 설광렬 이명건 이원용

30회 동기회 = 이사회 및 총회

지난 6월 12일(금) 대교횟집(서재원 동기 운영)에서 본부동기회 상반기 이사회 및 총회가 있었다. 38명의 동기가 참석, 단합된 동기회 모습을 보였다. 총동창회관 개관에 30회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로 자부심이 충만했다. 동기회에서 각종 모임-반모임, 지역모임, 동호회, 친목회모임 등-에 동기회비로 연(年)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뒤풀이는 인근 호프집에서 가졌다. 이명건 회장 찬조.

참석자 : 구을석 권용택 권택술 김병기 김우현 김유기 김인섭 김정웅 김진천 김한실김현태 노치훈 명효준 박동욱 박희관 배성근 서민석 서재원 송한식 신영주 오수동 우홍제 유창렬 이광봉 이명건 이상수 이원경 이원용 이학수 정 광 정성원 정용하 정종범 정채화 정해석 최석렬 홍인기 황철민

30회 마창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5일(금) 1년 만에 오경태 동기의 합천 쌍백면 전원주택에서 마창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9월에는 김해곤 동기의 양산별장모임 예정.

참석자 : 김백수 김병환 박중배 박철우 신구동 오경태 유영록 윤종순 임영수 최금석 홍인기

30회 북구모임 = 정기모임

〈기사 40면에 계속〉

〈39면에 이어서〉

지난 6월 13일(토) 화명동 SBS당구장에서 북구모임을 가졌다. 당구경기 후 롯데마트 화명점 인근 다다삼계탕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명건 동기회장이 참석, 식사비를 찬조하고 동기회 지원금을 전달했다.

참석자 : 구을석 김유기 김정형 김정형 신영주 오수동 이명건 정채화 홍인기

31회 삼일회 = 정기 라운드

매달 넷째 목요일 개최되는 삼일회 정기라운드가 지난 5월 28일 양산 통도CC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와 멋진 티샷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라운딩 후 골프장 근처 '고향의 봄' 음식점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참석자 : 공종렬 김시현 김재술 김태근 김학현 박종규 안용모 천장호 하명수

34회 당사모 = 정기모임

지난 6월 18일(목) 자갈치 소재 '어데고 당구장'에서 34회 당사모 6월 정기모임 및 전반기 결산 대회가 있었다. 10명의 동기가 참석, 자웅을 겨뤘다. 전반기 영예의 우승은 옥재명 동기가 거머쥐어 고급 큐를 수상하였다. 지난달까지 1위를 달리던 이정철 동기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고, 손병걸 황인철 동기가 공동3위를 차지, 푸짐한 부상을 가져갔다. 이후 근처 곰장어집에서 회포를 풀었다.

참석자 : 강윤모 권대식 김인철 김현용 손병걸 옥재명 이상운 이정철 조 선 황인철

35회 울산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11일(목) 오후 7시 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외식명가 삼산점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창호 김인수 손경호 이효성 전상건

36회 동기회 = 집행부 임시임원회의

지난 7월 17일(금) 오후 7시 총동창회관에서 2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집행부 임시임원회의를 가졌다. 회의 안건은 차기동기회장 선출, 사무국장 활동비의 현실화, 예금통장의 관리 및 임원회비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요청 등이었다.

참석자 : 김규선 김병주 김정헌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철원 박철종 안재익 양호진 이성호 이필이 이학수 임서룡 임창의 정병기 정윤희 정홍원 최상도 최승호

36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7월 18일(토) 9명의 동기가 7월 정기산행으로 황령산 야간산행을 다녀왔다. 지하철 2호선 수영역(5번출구, 이디아)에서 집결. 수영역 이디아~남부 소방서~동수영 중학교~금련산~황령산 봉수대까지 구간이었다. 이날 야간산행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코스도 알맞고 날씨도 좋아 유익한 산행이 되었다. 동기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 김수용 김창일 안재익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장상욱 정병기 최상도

Billy36 = 정기모임

지난 7월 10일(금) 오후 6시30분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총동창회관 2층 당구장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37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9일(화) 서면 동보성에서 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용하 권혁상 김성일 김재헌 김진영 윤태훈 정재호 탁낙준 표성수

38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23일(목) 장맛비 궂은 날씨를 뚫고 하반기 첫 동기모임을 총동창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참석, 지원금 30만원을 전해주고 격려해주었다. 또 사비로 '1942KN'로고 모자 1개씩을 선물했다. 용마인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 모임이었다.

참석자 : 강금성 강병균 곽동열 김경곤 김문철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손공 신동훈 심재민 이수관 정재형 정지원 최재신 한용준

39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26일(금) 오후 해운대신시가지 '무명연가'(우형철 30회 동문 운영)에서 올해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기 얼굴 보자고 모임 가졌지만 코로나19 기세에 눌린 듯 12명 참가에 그쳤다. 조촐한 행사가 됐지만 분위기는 더 정감이 있었다.

40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3일(금) 1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송도 부산갈매기횟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기사 41면에 계속〉

"'1942KN 대선소주' 좋아요"

"'1942KN 대선소주'(사진) 마셔보셨나요?"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1942KN'레스토랑에서만 판매되는 '용마인 소주'이다. 술을 마시면서 용마인의 긍지와 우정을 잊지 말고, 품위와 절제의 주도(酒道)를 견지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동문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도 판매한다.

이번 대선소주 스티커는 박동식(42회) 동문이 낸 아이디어를 BN그룹 부회장인 유영호(27회) 동문과 협의하여 성사된 것이다. 이양걸(41회) 동문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을 대선 측에서 자사 로고를 입혀 완성하였다. 대선 측에서 1000장의 스티커를 제공했다.

〈40면에 이어서〉

참석자 : 김근영 김동근 노인철 문태영 박근성 배병훈 배영진 안성호 윤경학 이 기 이강욱 이승배 이정삼 지창근 한수열

41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26일(금) 26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개관을 한 총동창회관에서 2020년 6월 정기모임을 하였다. 오랜만에 가진 모임이라 더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철 동기가 수석부회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참석자 : 강병오 강훈 김득수 김승원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한수 류지섭 문상현 박철홍 백창봉 서상대 안광근 여근섭 윤성한 윤형배 이양걸 이종우 이현철 장익조 전삼록 최영준 최호열 허치회 황정후

42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26일(금)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동기 만남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관을 방문, 의미 있고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 : 강인호 김세헌 김영태 김원주 김중동 문지성 박동식 신봉준 안용진 안정일 유경상 윤영기 윤영덕 이영도 이인호

45회 동기회 = 정기모임

25쌍백회, 자갈치서 동창회관 개관 축배

경부합동모임 21명 참가

"벗도 보고, 회관도 보고 부산 가세."

25쌍백회 서울 동문 5명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총동창회관을 찾아왔다. 이들은 이날 저녁시간(오후 5시) 자갈치 미정횟집에서 열릴 25쌍백회 경부합동모임 참가를 앞두고 총동창회관에서 점심식사와 회관 관람을 하고 당구게임도 즐겼다. 김경환 김연신 박일호 정호성 천석수 동문이다. 허정영 동문은 이들과 동행을 못하고 홀로 열차를 타고와 자갈치로 직행했다. 부산쌍백회 동문 15명은 자갈치로 곧장 왔다. 모두 21명이 모였다(사진).

양계현 25쌍백회 회장은 "힘든 시기에 반가운 얼굴 많이 보니 좋다. 서울 친구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경부합동만남을 갖자"고 말했다.

김연신 서울모임 회장은 "초대에 감사드린다. 총동창회관 개관이란 큰일을 해냈다. 오늘 같은 모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서울쌍백회 모임 때도 부산친구들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25회의 명예를 건다고 생각하고 회장이 됐다"면서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경위와 동창회관 건립과 모금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동문의 힘으로 동창회관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한 느낌"이라고 말한 박 총동창회장은 "내년에 갖는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송도호텔 방 100개를 예약해 두었다. 부부동반으로 꼭 참석 요망한다. 동기생들에게 신세를 많이 져 방값은 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40년 만에 찾았다는 허정영 동문은 "동기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어렴풋하다. 다음에 또 만나면 서먹서먹함이 없어질 것이다.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정호성 전임 회장은 "총동창회관 개관은 큰 경사이다. 박 총동창회장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미션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면서 경하했다.

◇찬조=박세철 20만원, 박종찬 20만원, 정동운 10만원, 한준석 30만원.

◇참석자=김경환 김길수 김연신 김유환 박세철 박일호 박종찬 양계현 오양득 옥동훈 이용우 장세훈 장승엽 정동운 정호성 조병욱 천석수 최재환 한봉재 한준석 허정영.

한편 쌍백회는 지난 6월 9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정례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김길수 장세훈 박굉용 여성조 최재환 양계현 옥동훈 박종찬 김유환 윤태석 조병욱 김규진 이동석 이대우 이태근 장승엽 황철 임무홍.

지난 7월 17일(금) 2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타워호텔 1층 소재 '참치사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치 해체쇼도 보고 아주 특별한 참치를 맛있게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별회식에 구자삼 동기와 류법권(43회) 동문의 조력(助力)이 있었다.

참석자 : 구자삼 권우일 김동규 김동완 김동욱 김상수 김성준 김종현 김창균 박준오 박진수 박진환 안형오 이광석 장성익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재근 추현상 황귀웅

47회 골프단 = 첫 정기라운딩

지난 5월 22일(금) 오후 5시 10명의 동기와 2명의 게스트가 모인 가운데 해운대CC에서 첫 정기라운딩을 하였다. 조마다 18홀 내내 다이내믹한 승부가 연출되었다. 라운딩 후 문현동 '그늘집'으로 이동, 식사하며 시상식을 가졌다. 1등 명품스윙 정하윤, 2등 명불허전 조덕만, 3등 일발장타 서정민, 노력상 김태효 동기가 각각 차지했다.

참석자 : 감기환(골프단 사무국장) 김태효 서정민 이일 장순재 정래권 정하윤 조덕만 최경훈(골프단장, 골프존24 운영) 최원창 게스트 2명

47·52·54회 야구단 = 합동 야구연습

지난 7월 11일(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여 동안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BPA 신항만 야구장에서 47회, 52회, 54회 야구단의 합동 야구연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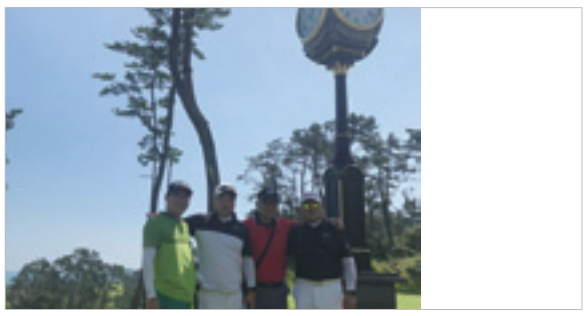
약 30여명의 인원이 참석. 연습은 내·외야 펑고, 프리 배팅, 라이브 배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신(47회·야구단장 겸 동기회장) 동문의 초청으로 52회와 54회 야구단은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연습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날 훈련에 정신 동문 외 서정민 조덕만 47회 동문의 헌신적 후배사랑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기사 42면에 계속〉

〈41면에 이어서〉

50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27일(토) 오후 6시 1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총동창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역사적인 동창회관을 친구들과 투어하며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 : 구민수 김동현 김재호 김정현 백송현 안기범 윤종선 이종환 이주현 전세계 채현철 최종빈 황현후

51·52·53·54회 회장단 모임

지난 7월 24일(금) 오후 6시 사상 야끼짱(54회 조중완 동기회장 운영)에서 51·52·53·54회 동기회장단 모임이 있었다. 오는 11월 7일(토) 54회 동기회의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와 관련된 준비 진행상황 점검, 현안과제 교감 및 대응방향 제시, 54회 동기회장단 격려를 위한 모임이었다. 51회 제안, 52회 기획, 53회 참여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 45회 권우일 동기회장, 46회 김백권 동기회장이 참석했다. 1차 사상 야끼짱은 52회 김지운 고문이 찬조하였고, 2차 사상 상상짬뽕은 51회 정유석 고문이 찬조하였다.

참석자 : 권우일(45회) 김백권(46회) 정유석 박보순(이상 51회) 김지운 김현진 김민철 허근영 정상중 한중현 김민수(이상 52회) 이원준 황명수 송승윤(이상 53회) 조중완 고지현 임길환 김영빈(이상 54회).

52회 술레자 = 정기모임

지난 6월 20일(토) 동기와 동기가족이 모인 가운데 52회 산악회 술레자 모임이 있었다. 화창한 날씨에 송도해수욕장 끄트머리에서 출발, 암남공원을 경유해 두도 전망대를 찍고 다시 암남공원 입구까지 오는 일명 '치유의 숲길' 트레킹을 했다.

참석자 : 김상곤 김형준 박선종 조용수(+부인, 아들, 딸) 정상중(아들)

54회 동기회 = 집행부 임시총회

지난 7월 10일(금) 오후 7시 사상 야끼짱(조중완 동기회장 운영)에서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집행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으로 신규 참석동기 환영인사 및 2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 진행상황 점검 및 예산검토, 총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독려 등이었다.

참석자 : 김영빈 서정호 손희원 양현진 이동하 이재필 이재하 전명진 정준섭 조정우 조중완

사랑회 = 번개모임

지난 6월 3일(수) 한우뭉치에서 식사 후 총동창회관을 방문, 2층 KN당구장에서 역사적인 첫 게임을 하였다. 훌륭한 시설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뒤풀이하였다. 이날 모임은 35회 오문세 동문이 전액 찬조하였다.

참석자 : 오문세(35회) 성귀호(36회) 김언규 김태호 박이현(이상 38회) 김득수(41회) 김현호(42회) 정영삼(53회)

부산시용마회 = 오찬 간담회

지난 7월 25일(토) 13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총동창회관을 둘러보고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 윤종배(33회) 안종일(35회) 김종오 김창일(이상 36회) 배석문(38회) 김천술(39회) 윤성한(41회) 손삼식(42회) 김종식(43회) 이성형(47회) 김상곤(52회) 이호규(65회) 이동현(70회)

현대차동문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3일(수) 오후 6시 외식명가 삼산점에서 10명의 동문이 모여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34회 김현범 동문이 자녀 결혼으로 20만원을 찬조.

참석자 : 정인영(32회) 김상갑 김현범 윤병욱(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유종아(40회) 정찬홍(43회) 정상희(46회) 이기주(53회)

고(故) 권훈칠(20회) 동문, 풍경화 전시회

고(故) 권훈칠(20회) 동문 작품 전시회가 서울대미술관 초청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서울대미술관 코어갤러리, 전시실1에서 '권훈칠전-어느 맑은 아침'이란 타이틀로 열리고 있다. 서울대 미대 동문들이 주도했다. 권 동문은 추상화가 주 전공이나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풍경화 50점 정도가 출품되었다. 권 동문은 고(故) 김근준(1회) 고문의 사위이자 김재용(42회·서울대 의대 교수) 동문의 큰 매형이다. *문의: (02)880-9504.

권훈칠 1998년 작 수채화 '금광지'.

정신(47회) 동문, 효창수산배 리틀야구 주관

"효창수산 주최 야구대회의 든든한 배경은 경남중고 동문회이다."

지난 7월 16~19일 기장 현대드림볼파크(유소년 야구장)에서 열린 제2회 효창수산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18일(토) 오후 2시에 열린 대회 개회식과 입장식에는 경미회 회원을 비롯한 많은 경남중·고인들이 참석했다. 효창수산 대표로서 이 대회를 주관하는 정신(47회·사진) 동문에게 힘을 보태고 격려하기 위한 '의리의 응원'이었다. 대회 리플릿에는 정신 동문의 대회사,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축사,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의 격려사가 있다. 용마로 채워졌다. 동문들이 보낸 축하화환이 도열했다. 박 총동창회장, 우 경미회 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찬조가 쇄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든든한 배경'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정신 동문은 "장마철 습한 날씨에 대회장을 찾아준 경미회 선후배, 멀리서 신경써주고 관심 가져준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신 동문은 동문회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용마로 알려져 있다.

〈10회〉
△**안우만** = 자식상(차남). 6월1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3회〉
△**정순착** = 모친상. 6월2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한병조** = 부인상. 6월11일 천주교 남천성당 추모관에서 발인.

〈17회〉
△**김병문** = 차녀 현주양 6월28일(일) 낮 12시30분 팔레드시즈 웨딩홀에서 결혼식. △**박청홍** = 장녀 지연양 6월20일(토) 오전 11시 메리움 웨딩홀에서 결혼식.

〈19회〉
△**정성필** = 모친상. 6월2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인건** = 아들 성우군 7월18일(토) 오후 1시 판교역 엔씨소프트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20회〉
△**김형수** = 장남 재호군 6월20일(토) 낮12시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결혼식.

〈21회〉
△**최수명** = 차녀 민지양 7월4일(토) 낮 12시30분 해운대 마리나 웨딩홀에서 결혼식.

〈23회〉
△**전재홍** = 부친상. 7월9일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4회〉
△**김인철** = 장남 성수군 7월19일(일) 목화웨딩컨벤션 15층 벨리스홀에서 결혼식. △**박경재** = 부친상. 5월24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발인. △**박천호** = 빙부상. 7월1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동엽** = 부인상. 6월2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대영** = 빙부상. 7월3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김안석** = 빙모상. 6월25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남영복** = 부친상. 6월28일 영락공원에서 발인. △**서기룡** = 아들 민석군 8월15일(토) 오후 2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이석재** = CEO 출신 관광통역안내사 이석재의 19가지 성공 비결「꿈꾸는 노마드」출판. △**이흥재** = 딸 보라양 8월15일(토) 오후 3시20분 더컨벤션영등포점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28회〉
△**엄재홍** = 차녀 7월19일(일) 낮 12시 힐튼호텔 1층 볼룸에서 결혼식.

〈29회〉
△**강인원** = 차남 경민군 7월11일(토) 오후 1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결혼식. △**김갑태** = 모친상. 7월21일 구포 한중프라임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성욱** = 딸 지민양 6월13일(토) 오후 4시30분 아이티컨벤션웨딩에서 결혼식. △**정 란** = 장남 종문군 6월27일(토) 오후 2시 라마다호텔에서 결혼식. △**정상국** = 장남 병준군 6월13일(토) 오후 2시30분 더S웨딩홀(삼성컨벤션웨딩홀)에서 결혼식. △**최명룡** = 장녀 유정양 7월18일(토) 오후 5시 아펠가모 공덕 효성해링턴스퀘어에서 결혼식.

〈30회〉
△**김경남** = 장남 창범군 6월28일(일) 오후 5시 서울 63스퀘어에서 결혼식. △**김승대** = 차녀 채린양 8월16일(일) 오후 1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결혼식. △**김용우** = 아들 이찬군 8월22일(토) 오후 1시30분 천안웨딩베리컨벤션에서 결혼식. △**김준효**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개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80, 대림상가 3층 43호. tel.051-293-3344) △**박광호** = 차녀 세윤양 8월8일(토) 낮 12시30분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결혼식. △**송치근** = 부친상. 6월20일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양윤종** = 모친상. 7월29일 아시아드 장례식장에서 발인. △**윤두홍** = 빙모상. 7월3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렬** = 모친상. 6월19일 인천 새천년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욱** = 차녀 은오양 7월18일(토) 오후 3시 서울 라비두스에서 결혼식. △**이용우** = 장남 치훈군 8월22일(토) 낮 12시 아모리스 강남메리츠타워점에서 결혼식. △**이헌수** = 장남 준민군 8월22일(토) 낮 12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결혼식. △**정경목** = 빙부상. 7월3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병철** = 장남 선도군 6월20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용선당예식장에서 결혼식. △**최신림** = 장녀 승은양 7월4일(토) 낮 1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결혼식. △**추태명** = 모친상. 7월4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함주혁** = 모친상. 7월5일 원주연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허주호** = 모친상. 6월6일 구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김정관** = 장남 찬형군 9월20일(일) 오후 1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 △**김진국** = 장남 성목군 7월4일(토) 낮 12시 해운대 씨네드쉐프 센텀시티점에서 결혼식. △**이훈** = 모친상. 7월6일 평택중앙장례식장에서 발인. △**조영기** = 딸 인영양 7월4일(토) 낮 12시 조방 디엘웨딩홀에서 결혼식.

〈34회〉
△**김현범** = 딸이 5월31일(일) 오후 1시 울산 오토벨리 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문창영** = 7월15일(수) 이성엽 동기회장 및 황기윤 서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기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이전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박기훈** = 아들이 7월12일(일) 낮 12시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 갤럭시홀에서 결혼식. △**이정철** = 딸이 6월27일(토) 오후 1시 경주힐튼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창범(7회)** = 7월 7일 작고
▶**김계순(10회)** = 3월 23일 작고
▶**정무길(10회)** =8월 1일 작고
▶**김종각(13회)** = 6월 15일 작고
▶**박양웅(13회)** = 6월 12일 작고
▶**김광남(14회)** = 6월 12일 작고
▶**서명성(14회)** = 7월 4일 작고
▶**박종만(18회)** = 6월 14일 작고
▶**홍삼선(20회)** = 6월 1일 작고
▶**정명환(24회)** = 6월 20일 작고
▶**이광수(26회)** = 6월 30일 작고
▶**박병곤(28회)** = 6월 14일 작고
▶**이윤태(28회)** = 6월 15일 작고
▶**이승원(29회)** = 7월 2일 작고
▶**손인식(30회)** = 7월 21일 작고
▶**전화원(30회)** = 5월 9일 작고
▶**이환희(52회)** = 6월 30일 작고

〈36회〉
△**김규선** = 빙모상. 7월30일 진주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연호** = 모친상. 6월23일 고성제일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김성태** = 빙부상. 6월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성영** = 부친상. 5월30일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성영** = 빙모상. 6월2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여근섭** = 구)백제병원 1층.「브라운핸즈」에서 7월6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지난 작품 전시.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초량동).

〈45회〉
△**김용주**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별난횟집 역삼직영점」개업.

〈74회〉
△**최준용** = 롯데자이언츠 1군 첫 게임에 등판해 1이닝을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처리.

△정갑윤(23회), 울산에 개인 사무실

정갑윤(23회·전 국회부의장) 동문이 최근 울산 중구 학성1길 55(지번: 학성동 379-5)에 소재한 '가나타운' 3층에 개인 사무실을 냈다. 정 동문은 중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16~20대 내리 5선 당선된 중진으로,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윤동섭(34회),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34회·강남세브란스병원장) 동문이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7월 6일 연세대 의료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내정돼 재단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 임기는 지난 8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윤 동문은 연세의대 강남부학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의학회 부회장, 외과학회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다.

△강현철(36회), 부산고용노동청장 취임

강현철(36회·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동문이 지난 7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청) 신임 청장으로 취임했다. 강 동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지난 1993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강 동문은 서울관악지청장, 부산센터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광주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영철(49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조영철(49회·통영적십자병원 원장) 동문이 지난 6월 11일 2020년 제8회 검역의 날을 맞아 검역 및 감염병 예방 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동문은 평소 통영검역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열, 콜레라 등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부산합동양조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
5도/6도/7도 생탁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위생적입니다
박 상 기 (21회)
박 호 철 (25회)
강 병 규 (43회)
생탁
부산합동양조
대표주문전화 051)622-7997
1박스(20병入)이상이면 전국 어디라도 배달 및 택배 가능합니다.